



소식 · 안내

- 40 월간브리핑
- 50 정책활동
2022년 상반기
주요 정책활동 추진 내용
- 89 시사 상식
레몬 시장 / 피치 마켓

특집

고곡물가 시대, 한우 新시장과 당면 정책과제

- 60 흑우, 한우의
새로운 성장동력 될까
- 66 유전자 정보로 바라본
한우산업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김관석 교수
(충북대학교 축산학과)
- 70 한우산업 전환법 발의돼
- 78 고향사랑기부금제와
연계를 통한
한우 소비 활성화 방안

기획

- 90 탐방
틈새시장공략
2등급 암소도 한우다
- 서동한우
- 96 대한한우
품질 좋은데
가격도 착한 '대한한우'
만족도 최고
- 유명농장 지유범 대표
- 102 우리한우판매점
강원 영월 '영월동강한우타운'
- 106 시·도지회
노블리스 오블리제 실천에
앞장서겠다 약속
- 박영철 강원도지회장
- 108 우수지부
"협회의 역할은
농가 민원 처리하는 해결사죠"
- 원주시지부

사양 · 컨설팅

- 113 컨설팅
육량등급 개선을 위한 컨설팅
지엠디컨설팅
- 116 원포인트레슨
거창축협 등록우
경매시장을 찾아서
이종현 전 사무국장
(한우협동조합연합회)
- 122 수의칼럼
한우 키포인트 이것만은 꼭!
소앤소 김재경 원장

연재 · 정보

- 126 연재
한우산업 안정화를 위해
미경산우 비육지원사업
적극 동참 필요
황남현 주임(분회 유통사업국)
- 128 소가사는세상
- 130 6월 한우동향분석
한우정책연구소
- 138 6월 한우정보 주요뉴스



「선제적 수급조절」 「철저한 차단방역」

당신이 외면하면, 이 신호는 곧 꺼질지도 모릅니다.
생각은 그만, 이제 실천해야 할 때입니다.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해 우리가 스스로 앞장 섭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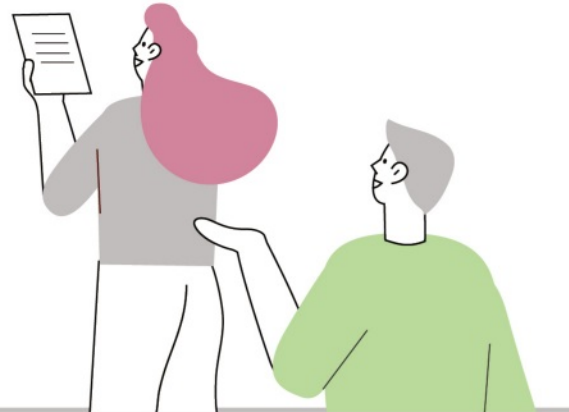
내가 먼저 실천하고 우리 모두 동참하는 한우 선제적 수급조절·철저한 차단방역

한우 선제적 수급조절 및 한우K-방역에 참여해주신 전국의 한우농가 여러분 감사합니다



월간브리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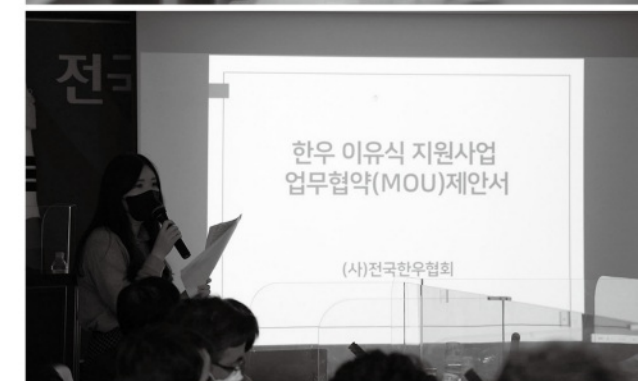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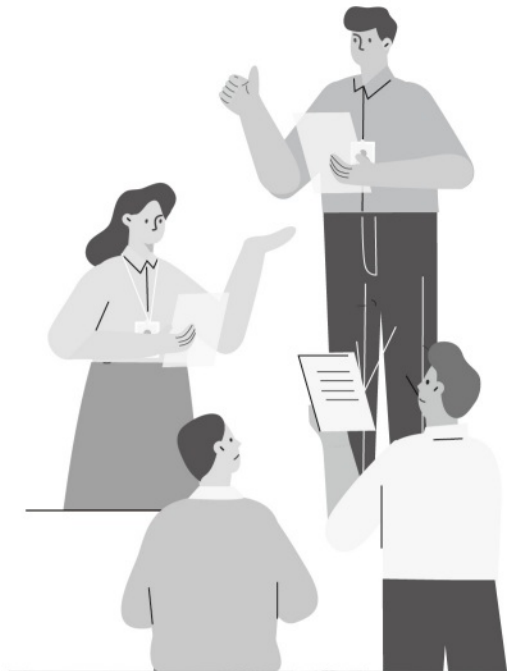
2022년 6월 협회 주요활동



- 6.2 ○ **농림축산식품부 정황근 장관 간담회**
 -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농업인 단체장 간담회 진행
 - 윤석열 대통령 대표 농정 공약인 농업직불금 5조원 확대를 강조
 - 농식품 산업을 국가 기간산업으로 육성하는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약속
 - (협회) 농축산업과 소통 및 동반자적 관계 구축 노력 당부
- 6.3 ○ **사료 TMR 전기 관련 회의**
- **2022 KO농산어촌 한마당 (6.3 - 5)**
- **국제아웃도어 캠핑박람회 (6.3 - 5)**
- 6.7 ○ **중앙회 주간회의·한우마당 편집회의**
- 6.8 ○ **협회 전용사료 '대한한우' OEM생산공장(동원팜스) 방문**
- 6.9 ○ **질병방역협의회 실무회의**
- **한국농어촌공사·한국농축산연합회 간담회**
- **한국동물약품협회 상반기 자문위원회**
- 6.13 ○ **중앙회 인사위원회**
- **전국한우협회 회장단회의**

- **한우산업 동향 및 정책활동 보고**
- **협회 사업 추진 현황(협회 전용사료, 조사료 쿼터, 유통사업, 자조금사업 등)**
- **사료가격 인상 대응 방안**
 - 사료관련 대책 건의
 - 1) 사료가격 인하 할 수 있는 의제 매입세액공제율 확대
 - 2) 사료구매자금 여신 한도 확대, 상황기간 연장, 가축담보, 기존 대출 연장
 - 3) OEM사료 원가 및 일반사료 분석 후 가격 인상 저지
 - 조사료 관련 대책 건의
 - 1) 지자체 볏짚 환원사업 폐지 요청
 - 2) 수입 조사료 쿼터 증량
- **전국 순회 정책간담회 추진계획**
 - 목적 : 한우 현안 정책에 대해 각 지역(지회)을 순회하며, 정책 의견을 수렴 및 논의
 - 중앙회 정책 추진 계획과 현장의 의견 취합
 - 소통과 현장의견 중심 정책 추진
 - 현장에서의 질의 응답 답변
 - 일시 : 6월 ~ 10월 중

일시	지역	장소
6/22(수)	전북	전주
6/27(월·숙박)	대전세종충남	홍성
6/28(화)	광주전남	영암
6/30(목)	서울인천경기	남양주
7/4(월·숙박)	부산경남	진주
7월중	울산	울산
8월중	대구경북	미정
10월중	충북	괴산
미정	강원, 제주	



6.13 ○ 한국국제축산박람회 실무자회의 (2022, 제22차)

- 2022한국국제축산박람회조직위원회의 이관 (대한양계협회)
- 주최단체 : 전국한우협회, 대한한돈협회, 한국낙농육우협회, 한국오리협회, 한국축산환경시설기계협회
- 차기 박람회: 2023년 9월 6~8일(3일간)
- 장소: 대구EXCO에서 개최



6.15

○ 소 사육방식개선 시범사업 착수 기념식

- 농협사료 안성목장에서 소 사육개선 시범사업 착수 기념식 개최
- 미트저널 창간 30주년 세미나 참석 (육류 유통시장의 미래)

6.21 ○ 가축개량협의회 한우분과위원회

○ 하천부지 활용 조사료 수확 시연회

- (추진 목적) 봄가뭄에 따른 생산량 감소 및 물가 상승으로 인해 국내산 조사료 가격이 지속 증가하는 상황으로, 공급 안정화를 위해 조사료 재배면적 확보 시급
- (내용) 국내산 조사료의 수급 안정을 위한 하천부지 활용 위해 '하천법'의 소관 부서인 환경부와 협의. 하천 점용 허가를 통해 들풀을 수거하고 사일리지를 제조할 수 있도록 환경부와 사전협의 완료(농식품부)
- (향후 계획)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천부지 등 유휴부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등 조사료 자원을 확대

○ 한우연합회 업무협의

6.22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1차 임시 이사회

- 지역순회정책세미나 (전북)
- 부여군지부 지역 한우농가 정책사업 및 교류지원
- 암소수급관련 회의 (농림부)

- 암소 현행 유지 시 사육규모 지속 증가로 '24~'26년 도축마릿수가 100만마리 내외 수준에서 형성(평년대비 34% 내외 이상)됨

- 해당 기간 도매가격(거세우)은 경영비 수준 이하로 하락 우려

● 2022년 미경산우비육지원사업 안내

구분	2021	2022
주체	전국한우협회	
재원	한우자조금	
감축규모	2만 마리	1.5만 마리
대상암소	신청일 기준 14개월령 이하	
지원제외	▷3년 동안 송아지 생산 이력이 없는 농가 ▷연평균 61마리 이상 미경산우를 출하한 농가	
양도	약정 후 양도 시 지원대상 제외	약정 후 양도 시 지원대상 인정
지원내용	20만원/마리	20만원/마리
지원한도	농가당 최대 40마리	
도축시기	36개월령 이내 도축	
지원시기	약정 후	도축 후

● 2022년 경산우비육지원사업 안내

구분	2021	2022
주체	농협경제지주	
재원	한우자조금	
감축규모	2만 마리	4만 마리
대상암소	신청일 기준 40개월령 이하	신청일 기준 50개월령 이하
지원제외	▷3년 동안 송아지 생산 이력이 없는 농가 ▷연평균 61마리 이상 경산우를 출하한 농가	
양도	약정 후 양도 시 지원대상 제외	약정 후 양도 시 지원대상 인정
지원내용	20만원/마리 + 정액 2str (한우자조금 15+농협중앙회 3 + 지역축협 2)	18만원/마리 + 정액(1.4str/마리) 또는 정액(2.8str/마리) (한우자조금 15+농협중앙회 3 + 지역축협 2 별도)
지원한도	농가당 최대 40마리	
도축시기	신청일 기준 6~12개월 이내	신청일 기준 6~10개월 이내
지원시기	도축 후	

※ 공통사항(지원대상 제외 농가)

- 3년('19~'21)동안 송아지 생산 실적이 없는 농가
- 3년('19~'21)동안 연평균 미경산우(경산우)를 61마리 이상 출하한 농가
- * 생축장은 자율감축 사업에 한해 제외 요건 미적용



6.23 ○ 한우산업 유관기관 역량강화 교육

- 일시 : 2022. 6. 23(목). ~ 6. 24(금)
- 장소 : 충북 괴산자연드림파크
- 목적 : 유관기관 간 유대감 및 협력 관계 강화, 한우자조금 사업 유관기관 직원 간 상호 소통과 단합 및 직원 역량강화

※ 프로그램 시간표

일자	시간	내용	세부내용
1일차	12:00 - 13:00	중식	
	13:00 - 13:30	입소 및 준비	
	13:30 - 15:00	강의 1	한우산업과 빅데이터
	15:00 - 15:10	휴식	
	15:10 - 16:40	강의 2	갈등 관리 및 소통의 리더십
	16:40 - 16:50	휴식	
	16:50 - 18:20	강의 3	대한민국 소비 트렌드
2일차	18:20 - 19:20	저녁식사	
	07:30 - 08:30	아침식사	
	09:00 - 10:00	강의 4	한우산업 발전 및 개선방안
	10:10 - 11:40	강의 5	트레킹
	11:30 - 12:00	총괄정리	총괄정리

6.24 ○ 산림청 침당굴제거 조사료화 시범사업

- 일시 : 2022. 6. 24.(금) / 14:30~15:30
- 장소 : 강원도 홍천군 상오안리 567-1(매화산경영모델숲)
- 내용: 축사 주변 나무심기 등 실질적인 협력 사업을 추진하여 산림청-전국 한우농가 상생 발전 도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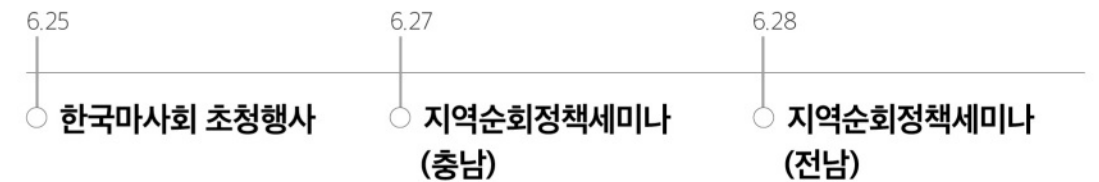


● 참석 : 15명

- 산림청(5) : 차장, 북부청장, 자원과장, 홍천소장, 담당사무관 등
- 한우협(4) : 회장, 정책지도국장, 홍천군지부장, 홍보팀장 등
- 강원도(5) : 산림소득과장, 홍천군 부군수, 산림과장 등

● 주요내용

- 산림청·지자체·한우협회 시범사업으로 덩굴제거 및 침 줄기 수거
- 시범사업 시·군(4개) : 강원 홍천, 강원 고성, 경북 경주, 경북 문경
- 수거된 침 줄기 일정장소 보관 및 지부에서 농가 운송 등





6.29 ○ 이종배 의원 면담 (감사패 전달)

- 김삼주 회장과 김문흠 부회장(충주)은 6월 29일(수) 15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이종배 의원(국민의 힘, 충북 충주)을 만나 감사패를 전달
- 이종배 의원은 지난 청탁금지법 선물가액 상향을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다방면으로 법 개정을 위해 힘써왔음. 또한, 어려운 농업환경을 개선하고 경쟁력 확보를 위한 예산 확충에 노력함
- 건의사항
 - (김삼주 회장) 청탁금지법 개정을 위해 노력해 준 부분에 감사, 현재 사료값 폭등으로 농가들은 생산비에도 못 미치는 가격에 소를 출하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 중. 농가의 생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사료 차액분 지원, 사료구매자금 금리제로, 상환 기간연장 건의.
 - (김문흠 부회장) 군납관련 국내산 공급, 지역 우선의 원칙이 지켜져 국내산 농축산물 소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 당부
 - (이종배 의원) 농가들의 고충을 이해하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음. 하반기나 내년 예산에 농가들의 고충이 조금이나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

6.30 ○ 지역순회정책 세미나 및 자조금 편람 교육(경기)



7.1 ○ 말레이시아 한우수출 관련 관계자 한우협회 방문

- 일시 : 2022년 7월 1일
- 장소 : 본회 회장실
- 참석자 : 말레이시아 대사관 노하리자 모하메드 유노스 상무관, 말레이시아 현지 유통바이어 NOVA INNOVATION JOFADLI ABDUL RASHID CEO, 한다운 류창열 회장 등
- 주요내용 : 말레이시아 한우고기 수출을 위한 수출작업장(한다운FSL) 등록 절차 관련 현지 실사 진행 후 협회 방문. 말레이시아를 교두보로 향후 UAE를 포함한 아랍권 국가로 한우수출 확대 기대.

7.4 ○ 지역순회정책 세미나(경남)



전국한우협회 대한한우사료

- 한우 사료 품질과 가격의 표준점 제시
- 농가 주도 생산·원가공개·매달 가격 연동 시행

대한한우 고급육 사양관리 프로그램

비육 구분 급여사료명	어린송아지 대한한우	육성기 대한한우								비육전기 대한한우								비육후기 대한한우								비고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생후 월령	2~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출하월령 28개월 이상		
체중 (kg)	150	200	220	240	260	290	320	350	380	420	450	480	510	540	570	600	630	650	670	690	710	730	750	출하체중 750kg 이상		
일당증체량(kg)	0.8	0.8 - 1.0								1.0 - 1.2								0.6 - 0.8								0.84 kg
조사료 건초 분질	2.0	자 유 채 식								2.0	2.0	1.0														
										1.0	1.0	1.0	2.0	2.0	1.5	1.5	1.5	1.0	1.0	1.0	1.0	1.0	1.0			
배합사료 급여량		3.0	3.5	4.0	4.5	5.0	5.5	6.0	7.0	8.0	9.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9.5	9.0	9.0	8.5	8.0			

대한한우 번식우 사양 프로그램

사 육 구 분		번식우육성(반추위, 소화기관 완성기)							임신우													포유우	
1일사료 급여량 (kg)	월 령 (개월)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 경산우										포유중
	체 중 (kg)	130 ~150	150 ~170	170 ~190	190 ~210	210 ~230	230 ~250	250 ~265	270 ~285	290 ~305	310 ~325	330 ~345	350 ~365	370 ~385	390 ~405	410 ~425	430 ~445	450 ~465	470 ~485	490 ~505	510 ~515	520 ~535	
	일당증체량 (kg)	0.6 ~ 0.8							0.4 ~ 0.6													0.6	
	구 분	번식용 중송아지							임신우													임신우	
	섭취 량	2 ~ 3 kg							3 ~ 4 kg													4 kg	
	배합 조사료	조사료는 자유채식							조사료는 자유채식													조사료는 자유채식	
	증감 요인	■ 겨울철(혹한기)과 환절기에는 10% 정도 증가시켜 줄 것							■ 겨울철(혹한기)과 환절기에는 10%정도 증가시켜 줄 것 임신 7개월부터 10% 증가													■ 겨울철(혹한기)과 환절기에는 10% 정도 증가시켜 줄 것	

대한한우
어린송아지사료

25kg

적용범위 생후2개월~6개월

- 미아리산과 탄닌 함유에 의한 고창증과 설사 예방
- 천연물질에 의한 항병력 강화
- 반추미생물과 효모제 강화
- 식이섬유와 비타민/미네랄 강화에 의한 스트레스 완화
- 대용유함유에 의한 빠른 입몰이기

구분	조단백	조지방	조섬유	
에너지	20.0	2.5	20.0	
조화분	칼슘	인	TDN	
	10.0	0.9	1.5	70.0

고품질
대한한우

25kg

적용범위 5개월~임신우

- 발정과 수태율 최적화를 위한 충분한 영양소 공급
- 번식전용 비타민/미네랄 설계
- 황토급여에 의한 미네랄 보충
- 성장을 위한 충분한 단백질 공급

구분	조단백	조지방	조섬유	
번식우	14.0	2.0	15.0	
조화분	칼슘	인	TDN	
	15.0	0.8	1.2	68.0

고품질
대한한우

25kg

적용범위 생후7개월~14개월

- 성장을 위한 충분한 단백질 공급
- 골격과 내장의 발달을 촉진
- 적정에너지 공급
- 섬유소 공급에 의한 반추위와 소화기관 안정화
- 높은 수준의 비타민과 균형 있는 미네랄 공급

구분	조단백	조지방	조섬유	
육성기	15.0	2.5	20.0	
조화분	칼슘	인	TDN	
	15.0	0.7	1.2	70.0

고품질
대한한우

25kg

적용범위 생후15개월~22개월

- 반추위 기능을 정상적으로 유지
- 최대 성장을 위한 충분한 단백질 공급
- 비타민 A조절에 의한 고급육 향상, 육량과 육질등급 향상
- 간기능과 요석증 등 비육장애를 극소화하기 위하여 영양소 균형
- 비육효과를 최대로 발현시키기 위하여 쾌적한 환경 조성 필요

구분	조단백	조지방	조섬유	
비육전기	13.0	2.5	20.0	
조화분	칼슘	인	TDN	
	15.0	0.7	1.2	73.0

고품질
대한한우

25kg

적용범위 생후23개월~28개월

- 근육내 지방 발달 극대화로 육질 향상
- 단백질과 에너지의 균형 있는 배합
- 간기능과 요석증 등 비육장애를 극소화하기 위하여 영양소 균형
- 고급육 효과를 최대 발현시키기 위하여 TDN을 높여 줌
- 비타민 A조절에 의한 고급육 향상, 육량과 육질등급을 향상
- 과비방지

구분	조단백	조지방	조섬유	
비육후기	12.0	2.5	20.0	
조화분	칼슘	인	TDN	
	15.0	0.7	1.2	75.0

대한한우 사료의 원료구성

옥수수, 루핀후레이크, 대두박, 옥배아박, 채종박, 아자박, 팜박, 소맥피, 단백피, 비타민+미네랄혼합제, 황토, 미생물제, 당밀향+감미제, 번식개선펙제

사료가격 투명화 / 합리적 가격 / 생산비 절감

고품질 한우사료 ‘대한한우’

한우 생산비 중 농가소득을 좌우하는 사료비 비중이 50%이상!

사료가격 결정의 주체는 농민이 되어야 합니다

※ 매월 1일 환율 및 유가(곡물가) 변동 등에 따라 기준가격 변동

22년 7월 협회전용 사료 ‘대한한우’ 가격 안내

공장출고가 기준(운송비 등 추가비용 반영안된 가격임)



어린송아지
15,3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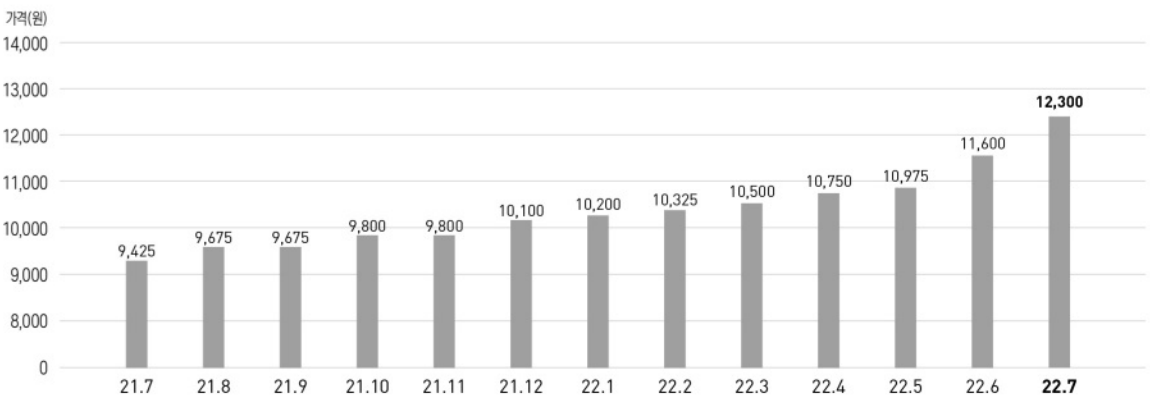
번식우
12,150

육성
12,300

비육전기
12,500

비육후기
12,750

대한한우 사료 가격 변동 추이 (육성우 기준)



협회전용사료 문의 ☎ 02-525-1053 (내선 208)

2022년 상반기 주요 정책활동 추진 내용

김삼주 회장은 협회의 정책기능을 강화해 안정적인 한우산업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의 공감대 형성에 노력하고 있다. 국회 농해수위뿐만 아니라 전방위적인 면담으로 예산, 환경 등 다양하고 복합적인 현안 해결에 적극 나서고 있다.

대한민국 농업과 농촌에서 한우산업의 위치와 중요성과 그리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제도 마련의 필요성을 주로 설명했다.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담당 공무원들과도 장단기 한우산업 과제에 대해 공유하며 걱정없이 사육에만 전념할 수 있는 한우산업 환경 조성에 온 힘을 쏟고 있다. 2022년 상반기 정책활동을 요약 정리한다.



의원 면담 및 정부 건의 활동

1 입법·정책활동

● 주요내용

- 대통령 선거 공약 관련 한우산업 정책 건의
- 사료가격안정화, 한우산업기 본법 등 정책 건의 (사료값 폭등에 따른 차액 보전, 추경증액)
- CPTPP중단, 한우산업 경영 안정화 방안 등 정책 건의

● 대상

- 김태흠 농해수위 위원장외 9명 총 12회 방문
- 2.8 김태흠, 위성곤,
- 2.24 김태흠, 4.4 홍문표,
- 4.14 신정훈, 4.15 정희용,
- 4.18 정운천, 4.19 서삼석,
- 4.25 홍문표, 4.28 최형두,
- 5.3 이원택, 6.29 이종배



- 1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중앙회 회장단 간 한우산업 간담회 모습.
- 2 이종배 의원에게 감사패를 전달하는 모습.
- 3 한우연구소와 업무협의를 중인 모습.

2 정부 및 관련기관 정책 활동

구분	일시	면담 및 위원	주요 내용
국립축산과학원	3.24	한우연구소장	국립축산과학원 한우연구소장 업무협의 - 한우인공수정교육, TMR교육 등 협의
농식품부	3.30	축산정책국장	사료값 폭등 정부대책 마련 건의
농특위	4.15	농특위원장	한우산업 관련 정책 건의 - CPTPP, 사료가격, 경축순환 등
농식품부	4.26	축산정책국장	사육밀도 관련 소규모농가 규제 완화 건의
농식품부	6.02	농식품부장관	농민단체 간담회, 축산현안 및 한우산업 안정화 건의
한국마사회	6.25	한국마사회장	축산발전기금 활성화 논의
농진청	7.08	농촌진흥청장	축산환경(메탄, 퇴비부숙, 경축순환)연구 건의



3 집회, 기자회견

- 1.12 CPTPP 설명회 반대 기자회견(at센터)
- 1.12 CPTPP 결사반대 농수축산임업 공동 기자회견(청와대 앞 분수광장)
- 1.19 가전법 개정안 철회 기자회견 (세종 농식품부 앞)
- 3.25 CPTPP 관련 공청회 규탄 기자회견 및 저지활동(세종정부청사)
- 4.13 CPTPP 관련 인수위 건의문 전달 (인수위 앞)
- 4.13 CPTPP 가입 저지 농수축산임업 규탄 대회(여의도 문화공원)
- 7.11 수입축산물 무관세! 축산업 포기! 정부규탄 기자회견(용산 대통령실 앞)

4 한국농축산연합회 및 축단협 회의

- 1.11 한국농축산연합회 운영회의 (CPTPP 대응 안건 논의)
- 1.19 축단협 생산자 단체장 회의 (가전법 대응 안건 논의)
- 3.17 한국농축산연합회 운영회의 (정기총회 관련 안건 논의)
- 3.28 한국농축산연합회 정기총회 (2021년 결산 및 활동 보고, 2022년 예산 및 사업계획 승인, 회장 및 임원선거 안건 등 논의)
- 4.08 한국농축산연합회 임원회의 (CPTPP 대응 집회 관련 안건 논의)
- 4.25 축단협 임원회의 (정기총회 안건 논의)
- 5.27 한국농축산연합회 임원회의 (장관간담회, 이취임식 등 안건 논의)



CPTPP 관련 대응 활동

1 내용 : 정부가 CPTPP가입을 적극 검토('21.1, 대경장)함에 따라 비공식 협의, 주요 규범관련 제도정비 등을 진행 후 사회적 논의 착수('21.12), 가입신청서 제출을 목표로 국내 절차를 진행하여 이에 대한 대응 필요

- CPTPP 농업 피해액 연구용역 결과 공개 및 이에 따른 대책 마련 요구
 - 농축산업 분야별 모델별 피해액을 정확히 분석하고 중장기적인 농업 대책 마련(先대책 後체결)
 - 특히, 한우산업의 경우 일본 화우의 증산정책으로 인한 CPTPP 가입에 따른 피해분석과 이에 대한 대책마련 요구
- 농민과 공감대 형성 등 충분한 논의를 통한 대안 마련 요구
- CPTPP 가입추진 중단 및 식량자급율을 높일 수 있는 대책 마련

2 성과

- CPTPP 산자부 국회보고(CPTPP가입 필수절차) 유보(4.25)
 - CPTPP 추진에 따른 정부의 시나리오별 영향 분석 불충분 및 농업계의 추가 피해 지원 대책 필요로 국회 보고 유보

3 대응 및 주요 활동 사항

- CPTPP 가입반대를 위한 기자회견, 집회, 입장전달, 토론회 등 활동 전개
- 1.12 CPTPP 설명회 반대 기자회견
- 1.12 CPTPP 결사반대 농수축산임업 공동 기자회견
- 1.24 CPTPP 대응활동을 위한 실무책임자 회의
- 3.25 CPTPP 관련 공청회 규탄 기자회견 및 저지활동
- 4.07 CPTPP 저지 전국농민대회 실무회의
- 4.13 CPTPP 저지 인수위 건의문 전달 기자회견
- 4.18 CPTPP 관련 인수위 정운천의원-농민단체 면담
- 4.21 CPTPP 대응 토론회(산자위 류호정의원실)
- 5.31 농식품부 FTA 간담회

4 향후 대책

- 국회통과 무산으로 산자부에서는 농어민 등 이해관계자와 충분한 소통을 거친 후 추진한다고 하지만 지속적인 선대책 요구 및 모니터링 필요
- 윤석열 정부 출범후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가 논의되면서 CPTPP는 IPEF이후 재개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대한 대응 필요
 - IPEF는 관세인하는 논의대상이 아니나, SPS 등 검역문제가 논의돼 시장개방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며, 조약이 아닌 행정협정으로 국회 비준 등의 절차를 밟지 않아도 돼 CPTPP보다 우선 추진

※ IPEF
(Indo Pacific Economic Framework)

5.23 공식출범, 참여국(한국,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아세안 7개국(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인도, 피지 등 14개국) IPEF는 관세 인화와 시장개방을 목표로 하는 전통적 자유무역협정(FTA)과 달리, 코로나19로 불거진 공급망 위기와 첨단기술 분야에서 공조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무역 △공급망 △인프라-청정에너지-탈탄소 △조세-반부패 등 4대 분야를 중심으로 다양한 의제들이 다뤄질 예정

한우수급조절 관련 대응 활동

1 내용 : 암소감축을 위한 미경산우, 경산우 감축 사업의 기준 설정 및 논의

2 대응 및 주요 활동 사항

- 1.26 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 소위원회
- 2.07 저능력 경산우 비육지원사업 추진 실무협의회
- 4.26 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 소위원회
- 5.02 암소감축 인센티브 논의
- 5.26 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 소위원회
- 6.22, 7.6, 7.13 암소수급관련 회의



3 향후 대응

- 저능력 미경산우·경산우 사업 프로그램 제작 후 8월 1일 시행 예정



사료값 및 조사료 관련 대응 활동

1 내용 : 사료가격이 '22년 한해 지속 상승세로 전망되어 농가 부담완화를 위한 활동 전개

● 협회 요구사항

- 1 사료 인상분 차액 보전방안 마련 (ex. 22년 비료차액 보조지원)
- 2 농가 사료구매자금 확대 및 금리인하, 지원단가 인상, 상환기간 연장
- 3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확대 : 현행 2/102 → 6/106
- 4 원자재 구입가 3년 평균 일정비율 이상 인상 시 지자체 조례 마련
- 5 안정적인 생산비 대책을 위한 사료안정기금 및 사료곡물비축제도 마련
- 6 국내산 조사료 활성화
 - 확대(現 6만원/톤→8.8), 장거리운송비 확대(現 12→22억원), 기계장비보조금(現 42.5→64억원), 종자보조금(現 37→100억원), 농타작물직불금(조사료재배), 하천부지 활용 조사료 재배 건의

2 대응 및 주요 활동 사항

- 3.28 사료값 폭등에 따른 대책 마련 실무책임자 회의
- 3.30 사료값 폭등 정부대책 마련 건의
- 4.04 사료값 폭등 협회 긴급이사회 개최

- 5.17 사료가격 폭등 대책마련을 위한 실무협의회

- 5.18 사료구매자금 추가증액 요청 및 국회설명(국회 예결위)
 - 국회 예결위 및 소위의원실 15여명 방문, 사료값 폭등에 따른 추가 증액 필요성 설명, 2차 추경 시 통과 요청

- 5.30 조사료 수급상황 대책회의
- 매주 조사료 수급상황 모니터링을 위한 민관 협의체 회의

- 수시 사료값 대책을 위한 국회의원 면담 및 예산지원 건의
- 사료값 폭등에 따른 대책 마련 언론 홍보, 인터뷰 등 약 30회 이상 게재



3 사료가격 대응 성과

- 사료구매자금 저리지원(1%) 및 예산 증액(1.145조원)을 통한 금융부담 완화, 상환기간 연장(2년 일시상환→3년거치 2년분할), 조사료 쿼터 30만톤 증액 등
- 특별사료구매자금 : 22년 1.145조원(이차보전) 1%(추경 통과)
 - 농가사료구매자금(농가직거래활성화자금) : 금리인하 1.8% → 1%로 인하
 - 상환기간 연장 : 2년 일시상환 → 3년거치 2년분할 상환
 - 조사료 쿼터 증액 : 80만톤 → 110만톤 (30만톤 증액)

협의 사항

추가 정책 반영을 위해 정부와 협의중인 사항

중장기적 대책 마련

- ✓ 사료안정기금 도입 : 사료가격 상승 시 보전금 지원
- ✓ 사료곡물 비축물량 확대 : 사료곡물 재고확보로 수급 안정화
- ✓ 사료곡물 안전재고 일수 확대 : 기존 30일 → 변경 60일
- ✓ SOC(항구 저장시설 등) 추가확보 및 운영자금 등 정부차원 지원필요
- ✓ 대체원료(겉보리, 소맥피 등) 할당관세 추천물량 증량

조사료 대책 마련

(국내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 ✓ 사일리지 제조비용(생산+유통비) 지원확대(작업비 톤당 6만원 → 9만원),
- ✓ 종자비 지원 확대(37억원→100억원 이상)
- ✓ 논의 사료용 버 등 조사료 재배 지원 (논타작물)
- ✓ 유흥지 및 하천부지 농축협·영농조합법인 조사료 부지 활용 건의



사육밀도 관련 대응 활동

1 내용 : 소규모 농가에 과도한 규제로 작용, 사육밀도 조정 요구

2 대응 및 주요 활동 사항

- 2.16 사육밀도 관련 업무협의
- 3.04 사육밀도 기준 미적용(8개월령 확대) 검토 요청
- 4.22 소규모농가 송아지 8개월령까지 사육밀도 기준 미적용 건의
- 5.02 한우소규모농가 축분관리 및 사육밀도 조정 건의
 - 송아지 8개월령 제외(정부안(50㎡내 소규모농가), 협회안(20두미만, 100㎡내 농가 제외))

3 향후 계획

- 소규모농가 제외 기준 및 축분관리 지원 방안 등 지속 협의

대통령선거 관련 대응 활동

1 내용 : 한우산업을 위한 전국한우협회 5대 공약요구사항을 마련, 각 대통령후보자의 정책공약에 포함 요구, 당선시 공약이행 대응 활동 전개

2 성과 : 양당 정책협약을 통해 한우산업 농정공약 부분포함

3 대응 및 주요 활동 사항

- 2.08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전국농어민위원회 정책간담회
- 2.11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한우산업 정책 협약 체결
- 2.11 국민의힘 선대위 정책 업무협약
- 2.24 국민의힘 농해수위 위원과의 농축산업 정책간담회

4 향후 계획

- 농업직불금 5조원 확대 등 농정공약 사항에 대한 이행 요구
 - 선택형직불금 확대 시 한우(축산)분야가 마련될 수 있도록 정부 건의
- 한우산업 안정화 방안을 위한 한우산업기본법 등 국회 법안 발의 요구



요구사항

한우산업 5대 공약 요구사항

- ① 한우산업기본법 제정
- ② 한우산업경영안정화 방안 마련
 - 한우농가 기본소득 보장제 마련
 - 송아지생산안정제 개편
- ③ 생산비 절감을 위한 대책 마련
 - 사료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사료곡물 비축제 마련
 - 사료·조사료 공급망 안정체계 구축
 - 국내산 조사료 자급을 위한 생산기반 확대
- ④ 가축질병 예방 및 방역을 위한 제도개선 요구
 - 가축질병 청정화를 위한 농가지원 확대
 - 살처분 보상금 현실화 및 농가보상체계 개선
 - 브루셀라 감염 확산방지를 위한 링백신 등 근절방역 강구
 - 산업동물 공수의사 인력 확대 및 수의사처방제 개편
- ⑤ 축산 탄소저감 및 퇴비부숙을 위한 지원대책 마련
 - 공익형직불제 축산농 도입 (저메탄·저단백질사료 농가)
 - 정부·지자체의 가축분뇨자원화 사업 및 공공처리시설 마련
 - 가축분뇨 에너지화 및 퇴비부숙을 위한 기계·장비 지원
 - 경축순환 확대를 위한 우분퇴비 살포비 지원
 - 퇴비사 건폐율 제의를 통한 부숙 활성화 유도

지방선거 관련 대응 활동

1 내용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6.1)를 앞두고 농정 현안 해결 및 지속가능한 한우산업 유지를 위한 제7대 공약요구사항 발표 및 요구사항에 대한 후보자들의 당선 후 임기 내 정책공약 실현 요구

2 성과 : 각 지역 도지사, 시장·군수 등 공약요구사항 전달 및 6.1 지방선거 협회 관련자 당선

지역	당선자
강원	홍천군의원 윤준순(現 사무국장) 강원 고성군의원 함형진(前 사무국장)
충북	보은군의원 성제홍(現 지부장)
전북	남원시의원 김한수, 남원시의원 소태수, 남원시의원 전평기
전남	고흥군의원 신건호(前 지회장), 고흥군의원 고건, 함평군의원 김영인(前 지부장)
경북	영양군의원 장수상(現 지부장)
경남	함안군수 조근제, 경남도의원 이상원, 거창군의원 최근규(前 사무국장), 김해시의원 김동관, 의령군의원 김창호,
울산	울산 울주군의원 이상우

3 대응 및 주요 활동 사항

- 지역 당선자들의 임기 내 정책 공약사항 시행 모니터링 및 실현 요구



7대 공약 요구사항

- ① 한우최저가격보장제
- ② 사료가격 수급안정을 위한 지원
- ③ 국내산 조사료 및 볶짚 활성화 지원
- ④ 경축순환 활성화
- ⑤ 저탄소축산물인증직불제
- ⑥ 청년농부 최저임금보장제
- ⑦ 고향사랑기부제 정착방안 마련

가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관련 대응

1 내용 : 가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대한 대응활동 전개

- 가전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폐쇄 또는 가축사육 제한 처분 신설(제6조제3항, 제4항, 제5항 신설)으로 위반사항(7가지)에 따라 경고, 사육제한 3개월·6개월, 폐쇄 등 처분기준 구체화
- 축산관련단체협의회를 중심으로 성명서 발표, 기자회견 개최, 집회 참여 등 가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철회를 위한 행동 대응

2 대응 및 주요 활동 사항

- 1.17 가전법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관련 대응 전략 회의
- 1.19 가전법 개정안 철회 기자회견

- 성과 -

가전법 시행령·
시행규칙
입법 유예

정액보관용 액체질소 공급 중단 관련 대응

1 내용 : 최근 산업단지에서 발생한 공장 질소탱크 폭발사고와 관련해 안전과 적격성 문제로 '22.6.1일부터 축산농가 액체질소 공급 중단 예고

- 농협으로부터 액체질소를 공급받던 농가들은 갑작스러운 중단 조치로 인해 당장 정액보관이 어려워지고, 비용부담이 증가될 수 있는 상황, 이에 대한 대응활동 및 대책마련 건의

- 성과 -

농식품부,
농협경제지주 공급중단
유예 및 대책마련
건의를 통해 단가 협의 후
기존 방식으로
추진

TMR 농사용 전기 대응 활동

1 내용 : 사료TMR공장의 농업용전기 사용과 관련 생산비 절감차원의 FTA 피해대책으로 지원되었으나, 한전과 계약과정에서 자가생산해 자가소비한다는 내용에 서명하여 자가소비 외 생산 및 판매분에 대한 전기사용료가 추징될 상황임

- 추징예정액 : 2017년~2021년 5년간 전기사용료 추징(약 2억원 전후)
- 축산인의 생산비 절감차원에서 시행된 FTA피해대책 목적을 부각하여 대응

2 대응 및 주요 활동 사항

- 3.23 사료TMR 농사용 전기 유권해석 및 개정요청
- 5.25 산자위 신정훈 의원실 농사용 전기 관련 면담
- 5월 말 지역별 TMR현황 조사 및 계약용 전기 조사
- 6.03 사료TMR 전기 관련 담당 지부-법인 회의
- 7.12 사료TMR 전기 관련 담당 지부-법인 회의

3 향후 대책

- 현재까지의 추징 면제 및 이후 계약 변경 요구, 사용료 3년치로 감액, 추징금은 폐지, 한전과 협의의 불수용 시 추후 법률자문등 대응



흑우, 한우의 새로운 성장동력 될까

이티바이오텍(주)

10여 년간 흑우 개량 매진...품질고급화 선도

도체중 평균 500kg에
고품질 한우 생산 가능 '가능성' 열어

침소와 함께 한우의 한 품종으로 알려진
'흑우'는 제주도에서 주로 볼 수 있는
희귀한 한우이다.

각종 자료에 따르면 제주도에서는
기원전부터 흑돼지와 더불어 흑우를
사육했던 것으로 보이며, 조선왕조실록에
서 고려시대 이래 진상품으로 바쳤다는
기록이 있다. 탐라순력도에서도 흑우의
사육기록이 남아있다.

하지만 일제 침략기 일본이 한우 표준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소를 적갈색,
일본의 소를 흑색 소로 규정하면서
제주 흑우는 고유지위를 상실하게 됐고
한우에서 제외되고 말았다.

이후 1980년대 육량 위주의
소 산업 정책으로 제주 흑우는
도태위기에 처하기도 했다.
다행히 제주 흑우는 2004년
FAO(국제식량농업기구)
한우 품종의 한 계통으로
공식 등록돼 명맥을 유지하게 됐고,
2013년엔 국가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
제546호로 지정됐다. 2020년에는 축산
물품질평가원의 '소도체 등급판정결과'에
'제주 흑우'가 표기되도록 관련 제도가
정비되면서 비로소 제주 흑우의 지위는
회복됐다.

10여 년간 흑우 개량 전념

멸종 위기에 처했던 흑우의 번식과 개량에 관심을 두고 새로운 한우의 카테고리로 성장시키기 위해 수년간 노력을 기울여온 곳이 있어 주목받고 있다.

한우 육종개량 및 수정란 이식 전문업체인 이티바이오텍(대표 정연길)이 바로 그곳이다.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통해 한우 개량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정연길 대표는 누구보다 흑우의 경쟁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정 대표는 “고유의 한우 색깔인 황색 한우 뿐만 아니라, 칙소, 흑소 모두 우리 고유의 품종인 한우”라며 “흑우의 경우 소비자들의 다양한 기호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한우고기의 새로운 시장을 열 수 있다”고 말했다.

정연길 대표가 흑우의 개량과 증식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건 10여 년 전인 지난 2011년이다.

제주도청에서 제주 흑우의 개량과 관련한 발전 방안을 듣고 싶다는 요청이 있어 흑우와 관련한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방안들을 조론했지만 안타깝게도 제대로 실행에 옮겨지지 않는 않았다.

제주 흑우와 관련해 연구하며 유전적 잠재성에 깊은 신뢰감을 가지게 된 정연길 대표는 ‘제주도가 하지 않는다면 내륙에서 흑우를 개량해보자’라는 신념으로 10여 년간 흑우 개량에 전념, 최근엔 종모우까지 생산하며 가시적인 결과를 얻어내고 있다.

1 흑우 개량에 전념해온 이티바이오텍 정연길 대표

2 충북 보은 연구농장에 사육 중인 흑소



흑우, 한우·칙소와 ‘한 품종’... 유전적 차이 거의 없어

국립축산과학원과 충남대, 호주 New England 대학에 따르면 한우, 칙소, 제주 흑우의 뿌리는 동일하기 때문에 유전적 차이가 거의 없다. 한 품종에서 나온 것으로, 다만 모색이 다를 뿐이다.

정 대표는 이러한 사실에 기반해 1++등급을 생산하는 뛰어난 형질을 가진 한우의 어미 소에서 난소를 채취, 고능력 흑우 정액과의 체외수정을 통해 수정란을 생산·이식하는 방식으로 흑우의 품질고급화를 추진해왔다.

정 대표에 따르면 흑우와 한우는 거의 동일한 유전력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모색의 경우 흑우가 우성인자이기 때문에 흑우 송아지가 생산된다. 정 대표는 이처럼 우량 한우 어미소와 흑우 종모우의 교배와 수정란 생산, 후대검정을 통해 약 10여 년간 흑

우 개량을 추진하며 최근 육질과 육량면에서 괄목한 만한 성적을 보이며 흑우를 통한 새로운 한우 시장 활성화의 가능성을 열고 있다. 올해 이티바이오텍이 출하한 13마리의 흑우 출하 성적은 도체중량이 평균 490kg에 달하는 가운데 1++등급이 8마리, 1+등급이 2마리, 1등급이 3마리로 육량과 육질면에서 모두 우수한 성적을 보였다. 13마리 중 미경산 암소가 2마리 출하되었는데 미경산 암소의 성적은 도체중이 각각 424kg(1++등급), 521kg(1+)에 달해연구진들은 물론 주위를 모두 깜짝 놀라게 했다. 맛에 대한 관능 평가의 경우 참가자들의 반응이 훨씬 뜨거웠다는 게

정연길 대표의 설명이다.

흑우의 깊은 맛과 감칠맛은 일반 한우와는 또 다른 새로운 맛이어서 소비자 입맛을 사로잡기에 충분했다고.

실제로 농업기술 실용화재단 분석에 따르면 정 대표가 의뢰한 흑우의 경우 고기를 부드럽게 해주고 풍미를 높여주는 올레인산 함량이 49%가 넘었다.

뿐만이 아니다. 최근 소비자들에게 인기가 높은 우둔 부위로 만든 생고기의 경우 지방 침착이 우둔 부위까지 촘촘히 박힌 데다 찰기가 높아 상품성이 매우 뛰어났다.

흑우, 한우 못지않은 경쟁력 입증

현재 제주도를 포함해 전국에서 약 1천여 두가 조금 넘는 두수가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흑우를 지금의 수준까지 끌어올리기까지는 우여곡절도 많았다.

우량 수소를 선발해 정자를 생산, 수정하고 30개월이 넘는 비육 기간을 거쳐 후대 검정에 이르기까지 최소한 5년의 투자 기간 어느 한 곳의 지원 없이 오롯이 정연길 대표 혼자만의 노력으로 지금의 결실을 맺게 됐다.

99년부터 약 10년간 일본에서 육종 연구에 힘써왔던 정 대표는 이후 한국에 돌아온 뒤 지금까지 한우와 칀소, 흑우 등 한우의 다양한 유전자원을 찾아 복원하는 데 매진해 왔다.



“한우 개량사업이라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정자(종모우) 생산에서부터 수정과 임신, 비육, 도축에 이르기까지 한 세대 개량을 위해선 최소한 5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어마어마한 투자비용에다 실패에 대한 부담까지 안고 가야 합니다. 하지만 흑우 역시 한우 못지않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확신했고, 그러한 희망 속에서 10여 년을 지내오며 결국 좋은 결실을 맺게 되어 보람을 느낍니다.”

흑우 본격적인 증식·개량 ‘산업화’ 모색

흑우와 관련해 업계 관계자를 대상으로 몇 차례 시식회를 개최하면서 흑우의 사육과 유통에 대해 높은 관심을 가진 이들이 많아지면서 앞으로 정 대표는 흑우의 본격적인 증식과 개량을 통한 산업화를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꾸준한 개량을 통해 흑우 종모우를 생산, 농가에 정액을 보급하는 한편 축산농가에 우수한 유전 형질의 가진 수정란을 이식은 물론 번식 농가에는 우량 암송아지를 공급해 흑우의 사육기반을 확대해 나간다는 것이 그것이다.

10여 년간 가시밭길을 걸어왔다는 정연길 대표는 흑우의 비전에 대해 이같이 전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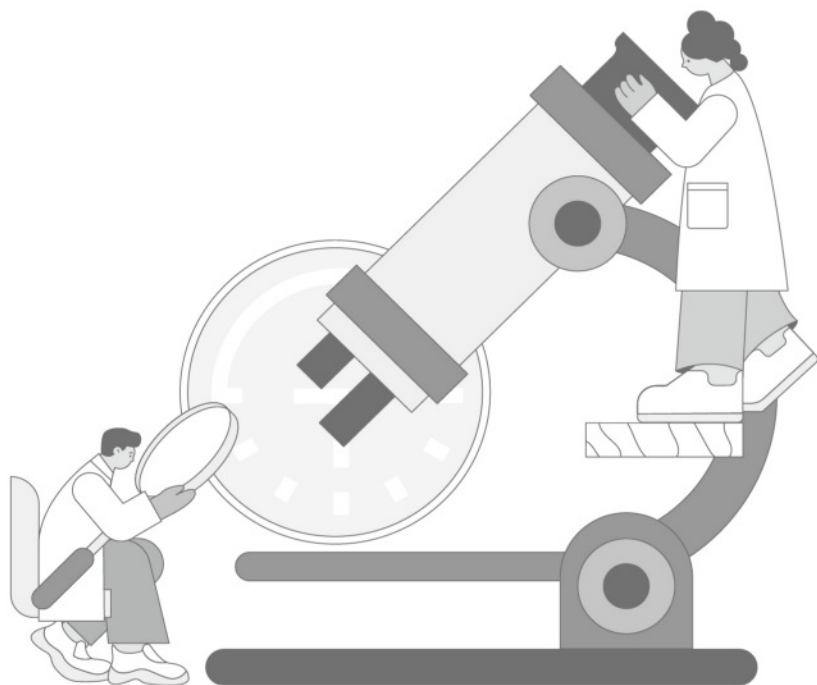
“소비자는 더 새롭고 특별하고 다양한 맛을 원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한우업계는 이처럼 다양한 소비자의 입맛을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획일적인 상품과 스토리로는 소비자들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어렵다는 얘기지요. 한우 역시 한우, 칀소, 흑우 등 여러 다양한 상품을 개발해 공급한다면 앞으로의 우리 한우산업은 더욱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요? 흑우의 높은 품질과 맛이 분명히 한우업계의 새로운 블루오션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유전자 정보로 바라본 한우산업



글 김관석 교수
(충북대학교 축산학과)



2000년대에 들어서 한우 사양기술과 사육환경이 전반적으로 개선되면서 한우의 유전능력 향상이 한우 산업을 안정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수단으로 대두됐다. 이에 지난 20여 년 동안 한우의 유전정보를 해독하고 이용하는데 여러 국가기관과 대학의 축산연구자들이 연구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과 투자가 꽤 이루어져 왔다. 그 과정을 살펴보고 앞으로 발전해 나가야 할 방향을 가늠해 보고자 한다.

일본 와규에서 시작된 높은 마블링 소고기에 대한 인기는 우리도 마블링이 많은 한우 소고기를 생산하는 것이 목표가 되었고 수입산 소고기에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기반으로 작용하였다. 즉 한우의 고품질화는 마블링이 높은 소고기를 생산하는 것이었다. 마블링을 높이려는 육종방법으로 한우 등심에서 초음파 측정을 통해서 마블링이 우수한 소를 선발하는 것 기술이 도입되었고, 이용하는 초음파 장비를 국내업체에서도 생산하게 되면서 초음파진단을 통한 마블링 측정이 현장에서 쉽게 할 수 있게 되었다.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또한, 마블링을 높일 수 있는 데 관여하는 유전인자를 찾아내기 위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어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한우의 마블링을 높이거나 맛있는 한우고기를 생산하는데 중요한 유전자를 찾아냈다는 무수히 많은 언론 기사를 간단한 웹검색만으로 쉽게 접할 수 있었다. 그 언론기사들 대부분은 농촌진흥청의 보도자료를 그대로 기사화한 것으로 많은 예산을 연구비로 투자하여 얻어낸 결과를 홍보하는 것이지만, 기사에 소개되는 한우 소고기의 마블링이나 맛을 높일 수 있는 유전자들이 한우 품종의 개량과 한우농가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과연 얼마나 이바지하였는지는 생각해 보아야 한다.

연구는 되었지만,
한우 산업현장에 활용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마블링은 소고기의 중요한 품질기준이지만, 유전자 진단을 통해서 한우 소고기의 마블링과 맛 품질을 일정하게 유지하며 소비자에게 공급하기는 쉽지 않은 현실이다. 많은 한우 브랜드가 지역별로 있지만, 한우고기 브랜드 간에 차별화된 요소를 생산된 지역 외에는 하나라도 찾아보기가 어렵다. 하지만 일본화우의 브랜드는 지역별 뚜렷한 고기의 특징을 가지고 있고 브랜드마다

맛의 차이를 강조하는 요소들을 가지고 있다. 일본 화우 브랜드의 가장 중요한 장점은 유전적으로 차별화된 종축계통을 보유하고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사육방식으로 소고기의 품질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역별로 뚜렷이 다른 소고기 특성이 있으니 지역별로 보유한 화우종축들의 개량목표도 서로 다르다. 예를 들면 고베비프로 유명한 일본 효고현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보유한 종모우 34두에서 생산된 후대들의 도체에서 올레인산 함량을 조사하였는데 후대의 올레인산 조성에 유전적으로 가장 우수한 종모우를 선발하였다는 연구결과를 지금으로부터 20여 년 전인 2002년에 발표하였다. 우리는 아직도 마블링 위주의 개량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올레인산 함량을 증대할 개량목표로 종모우를 선발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데, 고베비프 브랜드가 세계적으로 가장 이름있는 소고기로 인정을 받는 이유 중에는 20여 년 전에 이미 올레인산 함량을 개량목표로 세운 지역 기반에 있다고 생각한다. 화우의 도체에서 간편하게 올레인산 함량을 측정할 수 있는 장치도 이후엔 개발되어 도축장 현장에 보급됨으로써 화우의 올레인산 함량을 지속해서 감시하여 개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화우의 도체에서 측정된 올레인산 함량과 종모우 계통은 수년이 지나서는

올레인산 함량에 영향을 주는 유전인자를 찾아내는 데 이바지하였고 올레인산을 높이는 유전인자는 선발하는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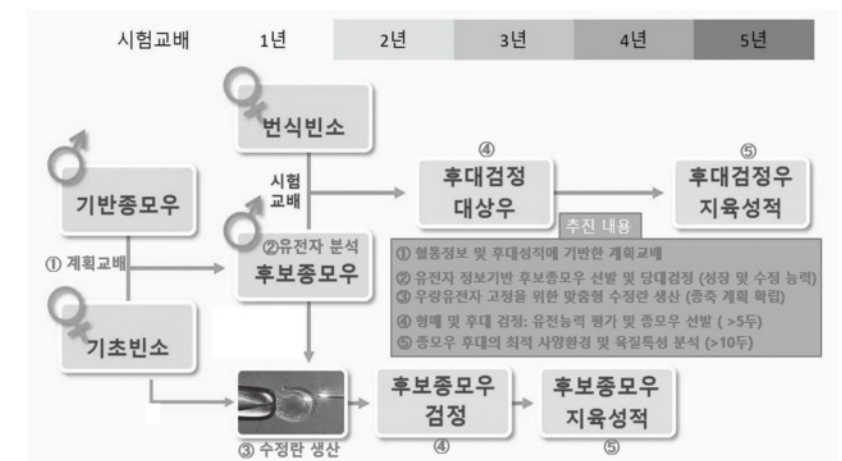
화우에서 발견된 올레인산 증대 유전자는 한우에서도 올레인산을 증가시키는 같은 효과를 있다는 것이 검증하였지만, 한우고기의 맛과 건강에 이로운 올레인산 성분을 더욱 증가시킬 수 있는 도구로 활용되고 있지는 못하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한우 생산자들이 한우의 상품성을 높이고 소비자의 만족감을 높일 수 있는 개량기반과 체계를 아직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원하는 유전자 정보를 가진 종모우를 선발하거나 활용할 수 없도록 제도적으로 막아놓은 현실이기 때문이다.

1966년 시작된 일본 화우 개량 공진회는 화우를 고기소로 만들기 위한 노력에서 시작되었는데 5년마다 개량목표를 정해서 그 결과를 검증하고 또 다음 5년의 개량 방향을 수립해 나가며 변화하는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새로운 개량 형질 도입을 지속하게 하고 지역마다 특색있는 화우 브랜드들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작게는 시군단위에서도 자체 화우 개량을 위한 집단과 선발체계를 유지할 수 있게 만드는 데 이바지하고 있다. 이에 반해서 지난 30여 년 동안 그대로인 한우 종모우 선발 형질과 선발체계는 급격하게 변화하는 한우 산업의 주변 환경에서 지속할 수 있는 한우 산업에 아무런 도움이 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오랫동안 한우 개량에 노력해온 한우농가에서는 더는 개량을 기대할 수 없는 한계에 다다라 있다고 할 수 있다.

일본에서의 사례처럼 2020년에 전라북도 장수군 장수한우지방공사와 장수지역 한우 특유의 유전적 특성을 개발하고 우량유전자를 고정함으로써 우수한 유전능력을 극대화한 장수한우 브랜드 사업을 기획하였다. 하지만 코로나-19의 발생으로 진행을 하지 못하였다가 2년이 지난 2022년도에 겨우 시작을 하였는데 장수한우지방공사 안에 소재한 수정란 생산 및 이식기술을 보유한 이티바이오텍(주) 회사와 함께 고능력 우량 번식우 집단을 조성하여 ‘더 맛있는 한우고기’를 위한 우량한 장수한우종축을 선발하는 체계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유전자 정보를 개량에 도구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적용대상 집단과 대상 형질이 명확하여야 하는데, 장수한우지방공사는 자체적으로 보유한 700여 두의 암소집단을 보유하고 있어서, 자체적으로 종모우 선발을 위한 충분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었다.

장수한우지방공사에서 차별화된 한우 종모우를 생산하는 체계는 다음 다섯 단계로 제안하였다 (그림 1 참고). 먼저 혈통정보와 후대성적에 기반해서 우수한 개체를 선발하여 계획교배를 하여 생산된 수송아지



<그림 1>
유전자 분석과
수정란 이식 기술을 이용한
종모우 선발체계

에서 유전자 분석하여 원하는 유전자형을 보유한 개체를 후보종모우로 선발한다. 이는 많은 수의 후보종모우를 대상으로 수행한 유전자형 정보만으로 선발하여, 장수한우지방공사와 같이 보유한 암소 집단이 있을 때 선발강도를 최고로 높이는 방법이기도 하다. 선발된 후보종모우는 참여농가에서 인공수정을 통한 시험교배와 기초빈우에서 채란한 난자를 이용하여 생산된 수정란을 수란우 집단에 이식하는 두가지 방법으로 후대를 생산하게 된다. 수정란 이식을 통하여 생산된 후대 축은 후보종모우의 성장능력과 유전질환 유무, 그리고 자체 지육 특성을 분석하는 데 이용되며, 참여하는 농가의 빈소에 인공수정을 통해서 생산된 후대 축은 사육환경 차이에 따른 성장능력과 지육 특성을 평가하게 된다. 수정란 이식과 인공수정을 통해서 얻은 정보는 후보종모우의 선발에 활용되게 되는데 이러한 방법은 5년마다 새로운 개량 형질을 도입하여 우량한 유전자를 고정하고 우수한 유전능력을 극대화한 차별화된 종축을 만들어 낼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유전자 정보를 분석할 수 있는 기술의 발전으로 시간과 비용이 크게 단축되었다. 유전자 정보를 분석하는 것이 그동안 단순히 개체별 유전자형 데이터를 생산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는데, 한우 사육단계에서 도출되었을 때 얻어진 정보들과 유전자형 정보가 접목됨으로써 좀 더 효율적인 사육관리를 할 수 있는 정보와 마블링을 높여서 한우고기의 육질 등급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마블링 중심의 소비자 구매요인이 맛의 다양성과 상품 가치 중심의 소비로 바뀌고 있고, 한우 브랜드의 시작은 차별화된 종축에서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긴밀한 정보에 차별화된 종축이 기반이 되어 차별화된 마케팅의 수단이 될 수 있다. 그 기반 위에 농장생산단계의 개체정보에서부터 사육기간 동안의 환경정보, 도축 후 육가공장에서 얻어진 품질정보가 통합됨으로써 지역별로 농가별로 한우고기의 품질을 다층화할 수 있으며, 한우를 좋아하는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도 반영될 수 있다. 그러한 목적성을 가지고 있어야 유전자 분석 정보를 활용하여 안정적으로 차별화된 종축을 선발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데, 과연 누가 그런 한우 브랜드가 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다.

한우산업 전환법 발의돼

지난 20대 대선 당시
여·야 거대양당 정책협약 일환
국회 상임위 구성 후
조속한 통과 기대



발의연월일 : 2022. 7. 12.

발의자 : 이원택 · 신정훈
위성곤 · 유정주
최인호 · 박완주
서삼석 · 주철현
장경태 · 권철승
한병도 · 안호영 의원(12인)

이번 대선 당시 우리 협회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
모두와 ‘한우산업 기본법의 조속한 법제화’를 위한 정책협약
을 맺은 바 있습니다.

지난 7월 12일 더불어민주당 이원택의원은 한우산업의 건전
한 발전과 탄소중립 시대 전환을 위해 별도로 법률을 지정하
여 한우산업의 발전을 지원해야 한다며 법안을 대표 발의하
였습니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한우산업발전법 (탄소중립에 따른 한
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전환을 위한 지원법)은 탄소중립 실
현 과정과 환경변화에 따른 한우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을 목
적으로 합니다.

△농식품부장관은 5년마다 한우산업발전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한우산업발전협의회 설치 △한우농가 탄소저감을 위
한 경축순환 농업 전환 △한우수급정책 수립 △한우 품질개
선 및 유통활성화를 위한 조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전환을 위한 지원법안

<법안 전문>

이원택의원 대표발의

1 제안이유 2 제안이유 3 제안이유

한우산업은 2001년 쇠고기
수입자유화 및 미국, 호주, 유
럽 등과의 자유무역협정 체
결 이후 자급률 저하 및 농가
호수 급감 등으로 생산기반
이 지속적으로 약화되고 있으
며, 2026년 관세화 제로 이후
급격한 자급률 저하 및 사육
기반 약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됨.

이에 더하여 축산 분야의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하여 온실가스
배출 저감, 분뇨의 에너지화
등 저탄소 축산구조로의 전환
이 요구되고 있는 바, 이를 위
한 지원이 절실한 상황임.

이에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
과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법
률안을 별도로 제정하여 한우
산업의 발전 및 전환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한우의 수
급 조절, 도축·출하장려금 지
원, 경영개선자금 지원 등 실
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여 한
우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한우산업발전법(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전환을 위한 지원법)은
탄소중립 실현 과정과
환경변화에 따른
한우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을
목적으로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전북 김제시부안군)

주요내용

가. 이 법은 탄소중립 실현 과정과 환경변화에 따른 축산환경의 전환, 한우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한우가격의 안정적 유지를 도모하여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축산업경영의 안정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제환경과 국내여건 변화에 부합하는 한우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한우산업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종합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다. 한우산업발전에 관하여 수급상황과 환경을 고려한 적정 사육두수 규모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한우산업발전협의회를 둠(안 제8조).

라. 국가는 한우농가의 탄소 저감을 촉진하기 위하여 경축순환 농업으로의 전환, 탄소감축 기술개발 지원 등의 정책을 추진하도록 함(안 제10조).

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우의 수급조절을 위하여 한우수급에 관한 중장기적인 한우수급정책을 수립하고 한우수급에 대한 분석 및 전망을 한우농가에 제공하도록 하며, 5년마다 한우의 사육두수 규모 등 수급상황을 파악하여 사육두수 등 한우의 수급을 적정하게 관리하도록 함(안 제11조).

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우농가가 한우수급정책에 따른 수급조절을 위하여 일정기간 사육한 한우를 도축 및 출하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우산업 경영으로 인한 소득금액 및 부채 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한우농가에 대하여 경영개선을 위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규모한우농가에 대하여 경영·기술·재무·회계 등에 관한 종합적인 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우의 품질개선 및 유통활성화를 위하여 한우의 거래 규격 및 품질 표시의 보급, 한우유통구조의 개선 및 다양화 등의 조치를 강구하도록 함(안 제19조).

차.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우의 수출기반 조성을 위하여 해외개척, 수출검역 및 판매전략 등에 대한 정보제공 등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함(안 제22조).

제1장

한우산업의 발전을 위한 목적과 책무

제1조(목적) 이 법은 탄소중립 실현 과정과 환경변화에 따른 축산환경의 전환, 한우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한우가격의 안정적 유지를 도모하여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축산업경영의 안정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우농가”란 규모에 상관없이 한우를 생산 또는 사육하는 농가를 말한다.
2. “한우산업”이란 한우의 생산·사육·가공·포장·보관·수송·유통·판매·수출 등에 관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는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실현 과정에 따른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지원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환경과 여건에 맞는 한우의 생산 및 사육을 위하여 한우농가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한우농가는 한우분야에서의 탄소중립 실현 및 저탄소축산물의 생산과 환경친화적 축산환경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한우산업발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한우산업의 발전 및 전환을 위한 기반 조성

제5조(종합계획)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제환경과 국내여건 변화에 부합하는 한우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한우산업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한우산업발전을 위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2. 기후변화에 따른 한우 적정 사육두수 규모 관리방안
3. 탄소중립 실현과 기후변화에 대응한 환경 개선 지원방안
4. 한우유통·수출 진흥 및 소비촉진 방안
5. 한우가격의 안정화 방안
6. 한우 사육규모별 환경·사회적 책임 차등부여 방안
7. 한우 토종유전자 보존 및 국내 환경에 맞는 종모우 생산에 관한 사항
8. 송아지생산안정제·비육우경영안정제·공익직접지불제도 등 경영안정프로그램의 추진에 관한 사항
9. 한우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10. 한우분야 자원재순환 및 경축순환 활성화 방안
11. 축분 에너지화 등 한우 분야 재생에너지 확대방안
12. 그 밖에 한우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종합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⑦ 그 밖에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실태조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그 밖

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한우산업발전 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운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우의 생산·사육·유통·소비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한우산업 현황에 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한우산업종합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한우산업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한우산업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한우산업발전협의회) ① 한우산업발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한우산업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이라 한다)를 둔다.

1. 수급상황과 환경을 고려한 적정 사육두수 규모 관리
2. 환경변화에 따른 한우생산 기술개발 및 보급
3. 자원재순환을 통한 사료자원 보급
4. 한우의 유통 및 수출지원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
2. 전국한우협회를 대표하는 사람

3. 한우협동조합연합회를 대표하는 사람
 4.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임원
 5.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의 임원
 6. 그 밖에 한우산업발전에 필요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격 기준에 맞는 사람
- ③ 협의회는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우수급조절협의회, 한우수출지원협의회 등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④ 그 밖에 협의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연구·개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우의 효율적 생산 및 부가가치 향상에 필요한 기술을 연구·개발하여 농가에 보급하여야 한다.

제10조(한우농가의 탄소 저감 촉진) 국가는 한우농가의 탄소 저감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경축순환 농업으로의 전환
2. 탄소감축 기술개발 지원



제3장 한우산업의 발전을 위한 지원

제11조(한우의 수급조절)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우의 수급조절을 위하여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우수급에 관한 중장기적인 한우수급정책(이하 “한우수급정책”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한우수급에 대한 분석 및 전망을 한우농가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5년마다 한우의 사육두수 규모 등 수급상황을 파악하여 사육두수 등 한우의 수급을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우수급정책 수립 시 한우 사육규모별 환경·사회적 책임 차등부여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2조(도축·출하장려금)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우농가가 한우수급정책에 따른 수급조절을 위하여 일정기간 사육한 한우를 도축 및 출하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장려금 지급의 요건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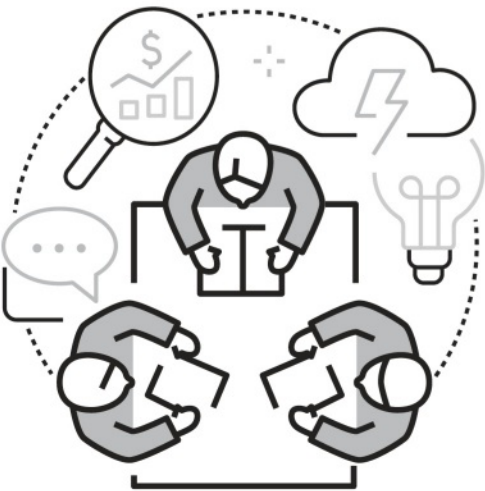
제13조(경영비용 부담 완화) 국가는 한우농가의 경영비용 부담 완화를 위하여 사료구매자금 지원, 사료안정기금 설치 등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4조(경영개선자금 지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우산업 경영으로 인한 소득금액 및 부채 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한우농가에 대하여 경영개선을 위한

자금(이하 “경영개선자금”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경영개선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경영개선계획(이하 “경영개선계획”이라 한다)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한우농가의 소재지 및 사육두수
 2. 한우의 사육두수 및 사육 방법
 3. 경영개선의 기본 방향 및 개요
 4. 경영개선계획 시행 시기 및 기간
 5. 그 밖에 경영개선계획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경영개선계획을 제출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경영개선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통보하여야 한다.
- ④ 경영개선계획의 제출, 타당성 검토, 통보의 절차·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교육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한우농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을 하여야 한다.

1. 국내 환경변화에 따른 저탄소 사양에 대한 교육
 2. 한우의 부가가치 향상에 대한 교육
 3. 한우의 효과적인 유통방법에 대한 교육
 4. 그 밖에 한우산업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우농가 전문 교육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훈련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성실하게 이수한 한우농가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 및 포상을 할 수 있다.

제16조(소규모한우농가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규모한우농가(거주, 생계, 한우산업경영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농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경영·기술·재무·회계 등에 관한 종합적인 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규모한우농가의 효과적인 방역을 위한 방역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7조(부산물의 활용)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우의 생산·가공·판매 등의 과정에서 기본 생산물 외에 부수적으로 발생한 부산물을 식용 또는 사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강

구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우의 부산물을 식용으로 공급하는 자에게 식품안전 및 위생요건을 충족하는 시설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소비촉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한우의 판매확대 및 소비촉진을 위하여 공공급식의 확대, 시장개척 및 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19조(품질 및 유통구조 개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우의 품질개선 및 유통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 한우의 거래 규칙 및 품질표시의 보급
2. 한우의 산지 처리의 추진 및 인센티브 제공
3. 한우유통구조의 개선 및 다양화

제20조(도축·가공시설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한우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도축장의 현대화 및 권역별 도축·가공시설의 구축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각 도축장 간의 물류기능 통합과 수도권 판매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축산물종합물류센터의 확대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단위 거점도축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 및 판로확보를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민간 한우유통업체 육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민간의 한우유통업체를 육성하기 위하여 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원체계를 수립하여야 한다.

제22조(수출기반조성계획)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우의 수출기반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해외개척, 수출검역 및 판매전략 등에 대한 정보제공
2. 수출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훈련
3. 수출기반조성에 관한 국제협력의 촉진
4. 한우의 이미지 개선을 위한 대외 홍보
5. 그 밖에 수출기반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4장 보칙

제23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한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2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23조제2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한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향사랑기부금제 연계를 통한 한우 소비 활성화 방안

우리협회는 한우의 소비확산을 위해 할인행사 등 다양한 유통소비 행사 외에도 한우소비의 정책적 제도화에도 온 힘을 쏟고 있다. 일본의 고향세와 유사한 제도로 나의 연고지 또는 응원하고 싶은 지역에 기부를 할 수 있는 제도다. 고향세는 지금까지 대통령 선거 당시 공약으로도 자주 나왔던 제도다. 최근 열악한 지방재정 상황을 개선하고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고향사랑 기부금을 활용하는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2021년 9월 28일에 국회 본회의를 법률을 통과하고 세부 시행령 및 조례 마련에 한창이다. 일본에선 이미 고향세로 와규가 인기다. 국내에선 한우의 신수요 창출이 기대되므로 각 지역에서 조례제정 등을 확인하기 위해 지역 의회 등에 관심을 가져야 할 때다. 본회 한우정책 연구소가 조사한 고향사랑기부금제에 대해 알아본다.



1 고향사랑기부금제 개요

1) 고향사랑기부금의 필요성 및 주요 내용

(1) 고향사랑기부금제 연계 필요성

- 고향사랑기부금은 일본의 '고향세'를 벤치마킹한 제도로 일본의 '고향세'란, 태어난 고향이나 응원하고 싶은 자치 단체에 기부를 할 수 있는 제도(2008년 도입, 초년도 실적 73억 엔)로 우리나라의 고향사랑기부금제는 2023년 1월 1일 시행 예정임
- 일본의 경우 각 지자체는 고향세 기부 촉진을 위해 매력있는 답례품을 제공, 특히 와규가 고액 기부자 유도에 도움이 된 사례가 있는 바, 고향사랑 기부금제 시행에 앞서 한우를 답례품으로 개발토록 촉구하여 한우의 새로운 수요창출에 기회요인으로 활용, 시장선점 노력이 필요함

(2)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

- 첫째, 고향사랑기부금의 기부 주체는 개인으로, 법인은 기부 주체가 되지 못함
 - 개인이 기부할 수 있는 기부 대상은 현재 거주지 이외의 모든 지방 자치단체임(동법 제4조)
 - 개인별 고향사랑기부금의 연간 상한액은 5백만 원임(동법 제8조)
- 둘째, 기부에 대한 감사 표시로 지방자치단체는 기부자에게 답례품(지역특산물·지역사랑상품권·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것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것 등)을 제공할 수 있음
 - 현금·귀금속·보석·지역사랑상품권이 아닌 상품권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지 품목을 답례품으로 제공해서는 안 됨(동법 제9조)
 -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에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향후 시행령에서 답례품의 상한액을 기부액의 30% 이내, 최대 1백만 원 이내로 규정할 예정
- 셋째, 고향사랑기부금의 관리·감독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을 설치하고(동법 제11조), 고향사랑기부금의 접수현황 및 운용 결과 등을 공개해야 함(동법 제13조).
- 넷째,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에서는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해서는 소득세(국세)와 지방소득세(지방세)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질 예정

고향사랑기부금 세제혜택 및 답례품 지급 범위

구분	내용
세제혜택	• 10만원 이하 100%혜택, 10만원 초과 16.5%혜택
답례품	• 기부액의 30%이내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 가능

2

고향사랑기부금 연계 통한
한우 소비 활성화 방안

1) 해당지역 답례품 제공에 대한 제도적 근거 마련 필요

- 우리나라는 고향사랑기부금의 사용 용도를 법률로 정해놓고 있음

제11조(고향사랑기부금의 설치 등)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이하 “고향사랑기부금”이라 한다)은 고향사랑 기부금을 재원으로 하고, 제3항에 따라 모집·운용 비용에 충당하는 경우 외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1.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
2.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보건 등의 증진
3.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4. 그 밖에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의 추진

- 지역사랑상품권, 지역포인트샵 등을 운영해 기부자가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존중해주고 기부활성화를 유도하는 방안 마련 필요
- 한우 및 한우육 가공제품을 포함한 농축산물 위주의 지역특산물을 선정하고 소비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 마련

2) 한우 활용 답례품 구성을 위한 객관적인 분석 및 답례품 상품화 모델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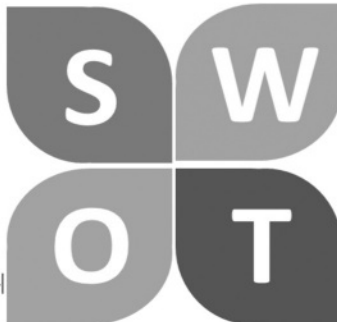
- 한우를 활용한 답례품 구성을 위한 SWOT 분석 결과, 한우의 특성 상 높은 단가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모색 필요

한우의 답례품 상품화 SWOT분석



Strengths

1. 독보적 정체성
2. 고 선호도/인지도



Weaknesses

1. 높은 단가(가격)
2. 각종 인증제 유무



Opportunities

1. 육류 소비량 증가
2. 적체된 비선호부위



Threats

1. 낮은 단가의 농수산물
2. 비건 소비 트렌드 증가

- 강점요인(Strengths) : 한우의 독보적인 정체성과 높은 선호도 및 인지도
- 약점요인(Weaknesses) : 상대적으로 높은 단가(가격)와 각종 인증 유무
- 기회요인(Opportunities) : 지속적인 육류 소비량 증가 및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과 가공 상품화 가능한 비선호 부위의 적체 그리고 거리두기 해제 및 캠핑문화의 활성화
- 위협요인(Theats) : 한우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단가의 답례품 상품화 활용 가능한 농수산물 및 축산물 섭취를 지양하는 비건 소비 트렌드 증가
- 연간 상한액(500만원) 기준 답례품 비율 40% 적용 시 약 200만원까지 지급이 가능한 것을 감안하여 고가의 한우를 답례품화하기 위한 전략 수립이 필요
 - 협회 중심으로 와규 답례품이 고액 기부자 유도에 효과적이었던 일본의 사례와 2021년 일본 고향세 답례품 1위가 육류(와규)였던 점 등을 지자체 등에 적극적으로 홍보, 한우 활용의 타당성 지속 홍보 및 어필
 - 답례품을 상품을 포함한 지역화폐, 마일리지, 포인트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 희망하는 답례품 구매가 가능하도록 적립 가능 방법 추진
 - 또한 공동 적립 등을 통하여 사회적 약자 대상 한우 답례품의 기부가 가능한 방법도 추진
- 이를 위해 협회 및 회원농가는 각 지자체를 대상으로 답례품 구성에 한우를 포함하여 개발토록 압박 필요
 - 한우 답례품 개발 MOU 체결(한우브랜드 활성화 지자체 우선 실시 및 지속적인 언론 노출을 위한 도지회 및 시군지부와 중앙회 공동 협약 전략 수립) 및 자조금채원 활용 가능 방안 모색
 - 협회 추진 사업인 미경산우비육지원사업 연계 방안(미경산우 도축육 우선 활용 등) 모색



3 참고자료

1) 고향사랑기부금제의 이해

(1) 고향사랑기부금의 연혁

- 고향사랑기부금은 2007년 12월 대통령 선거공약으로 “고향세”가 발표되면서 논의되기 시작하였으며 당시의 고향세는 FTA로 손해를 입은 농촌을 살릴 대안으로 도시민이 내는 주민세소득할(現지방소득세)의 10%를 농촌인 고향으로 내는 것이었음
- 이후 2010년 4월 지방선거 공약으로 “향토 발전세”가 발표된 바 있고, 2017년 5월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고향사랑기부금”이 발표되었고 국정 과제에 “고향사랑기부금” 신설이 포함되었음

(2)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정의 의의

-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은 인구감소 및 인구 유출로 야기되는 지방소멸의 위기와 지방 재정 악화의 악순환을 완화할 제도적 수단이 마련되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음
- 2021년 10월 19일에 제정된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은 고향사랑기부금의 기부 주체를 출향민으로 한정하지 않고 모든 개인으로 하였고, 기부 대상을 고향으로 한정하지 않고 현재 거주지 이외의 모든 지방자치단체로 확대
 - 고향사랑기부금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기부문화를 확산시키고, 새로운 재원 확보를 통해 재정이 취약한 지방자치 단체에 도움을 주며,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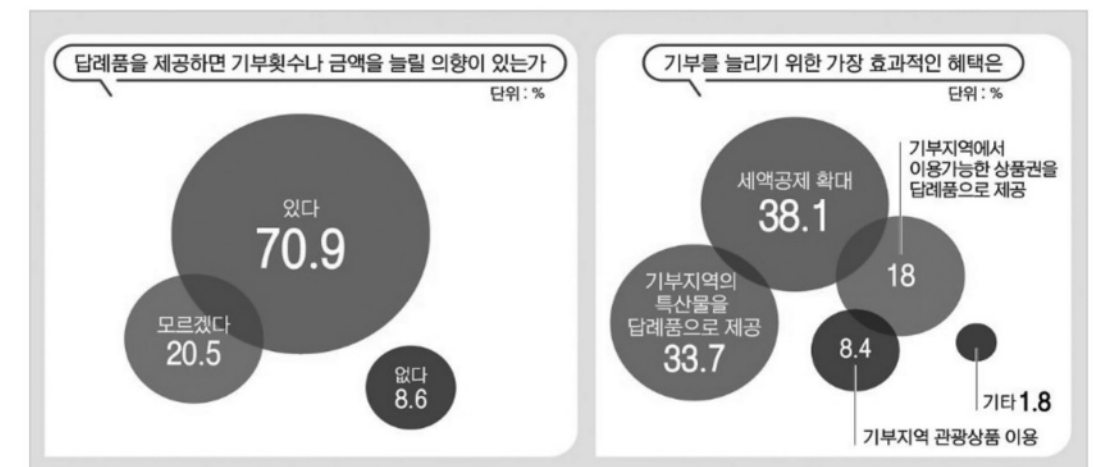
2) 제도의 필요성

- 2021년 기준으로 전국 243개의 광역 및 기초자치 단체 중에서 지방세 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가 107개(44%), 자체 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가 63개(25.9%)에 달하는 등 지방재정이 열악한 상황임
 - 또한,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 격차가 개선되지 못하고 있어서 2021년 기준으로 전국 평균 재정자립도가 48.7%인데, 기초자치단체 중 에서 경기 과천시 70.7%와 경북 봉화군 6.7%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실정임
- 이에, 정부는 열악한 지방재정 상황을 개선하고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촉매제로 고향사랑기부금을 활용하고자 제21대 국회에서 발의한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2021년 9월 28일에 국회 본회의를 법률을 통과하고 2021년 10월 19일에 제정되어, 2023. 1. 1.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시행령 및 조례 마련 중에 있음

3) 고향세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결과

- 한국갤럽과 농민신문사가 공동으로 조사한 고향세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 답례품을 제공하면 기부횟수나 금액을 늘릴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기부를 늘리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혜택으로는 세액공제 확대와 기부지역의 특산물을 답례품으로 제공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 답례품을 제공하면 기부횟수나 금액을 늘릴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 70.9%가 긍정적으로 응답, ‘의향 없음’ 응답은 8.6%에 불과
 - 기부를 늘리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혜택으로는 ‘세액공제 확대’가 38.1%, ‘기부지역의 특산물을 답례품으로 제공’이 33.7%로 응답

고향세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결과



4) 지역 특산물 활용 답례품 제공에 따른 지역경제 기대효과

- 일본 나가노현 아난정의 경우 농가 고령화로 논리는 땅이 많아 골머리를 앓았으나 답례품으로 쌀을 증정하기 시장, 쌀 수요 증가로 휴경지를 다시 경작함
 - 2014년 고향세 모금 실적 1위를 기록한 히라토시는 해산물을 답례품으로 제공하는데 인기가 좋아 주문이 밀려들어 지역 일자리 창출을 한 대표적인 사례임
- 전문가들은 지역 특산물을 답례품으로 제공할 경우 기부 활성화를 비롯하여 농가 판로 개척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효과 발생을 전망함
 - 육동한 (前)강원연구원장은 “답례품 제도를 활성화하면 지역 특산물 홍보와 지역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다”고 강조한 바 있음
 - 이정환 GS&J 인스티튜트 이사장은 “답례품 제공은 농가에 안정적인 판로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크다”고 평가한 바 있음

4 일본의 고향납세 사례 및 시사점

1) 도입배경 및 주요 내용

- ‘고향세’란, 태어난 고향이나 응원하고 싶은 자치 단체에 기부를 할 수 있는 제도(2008년 도입, 초년도 실적 73억 엔)
 - 니시카와(西川) 후쿠이현 지사가 2006년 10월 ‘고향기부금공제’ 제안
- 기부자 스스로 기부금 용도를 지정할 수 있고, 지역 특산품 등의 답례품(지자체의 모금 마케팅)도 받을 수 있는 매력적인 구조
 - 기부를 받은 지역에서는, 지역 특산물로 답례(화우고기 최고 인기)
-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일본은 2008년 4월 30일에 개정된 「지방세법」에 근거하여 고향납세(ふるさと納税) 제도를 도입함
 - 고향납세는 “도시에서 거주하는 도시민”이 “고향 또는 원하는 지역”을 지정해 2천 엔 이상의 기부금(寄附金)을 기부하는 제도임
 - 2천 엔을 초과한 기부금에 대해 소득세(국세)와 개인주민세(지방세)를 일정 상한액까지 전액 공제해 주는데, 기부자의 연 소득액과 가족구성에 비례해 공제액 상한선이 정해있음
- 도시민이 기부하고 싶은 지역을 선택한 후 해당 지역의 웹사이트로 접속해 기부를 신청하고 기부금을 납부하면, 기부받은 지방정부가 기부자에게 기부금수령증명서와 답례품을 전달함



출처: 일본 총무성, 「고향납세 현황 조사 결과」, 농민신문사 보도자료 재인용

2) 일본 고향납세 현황 및 시사점

- 일본의 고향납세의 의의는 지방재정 확충, 지역경제 활성화, 재난지역 지원 등으로 요약할 수 있음
- 도시민의 기부금을 지방정부의 자주재원 수입으로 확충하거나, 지역특산품을 답례품으로 제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거나, 지진 등 재난 지역을 지원하는 기부금으로 활용함



일본 고향납세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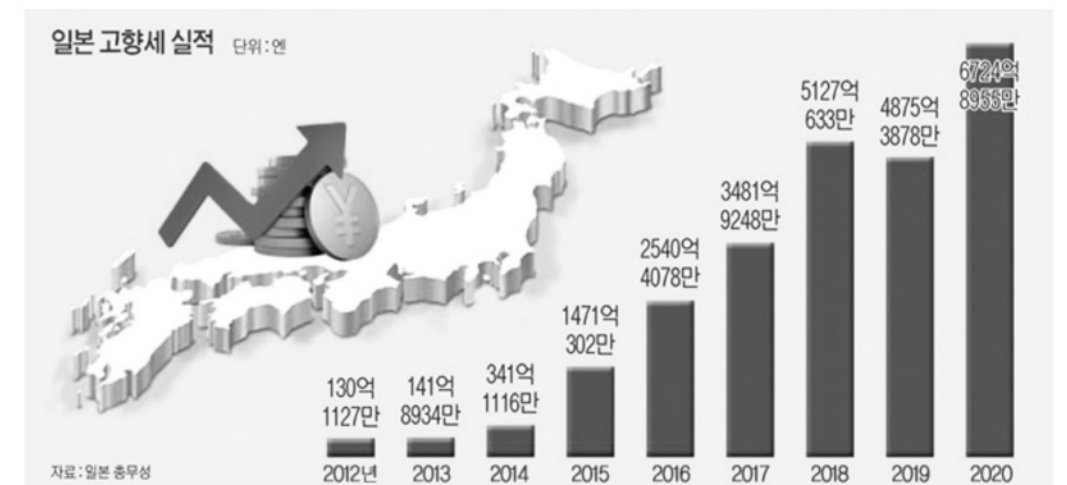
(단위: 만 건, 억 엔)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건수	5.4	5.6	8.0	10.1	12.2
금액	81.4	77.0	102.2	121.6	104.1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건수	42.7	191.3	726.0	1,271.1	1,730.2
금액	145.6	388.5	1,652.9	2,844.1	3,653.2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합계	
건수	2,322.4	2,333.6	3,488.8	12,147.4	
금액	5,127.1	4,875.4	6,724.9	25,898.0	

출처: 일본 총무성, 「고향납세 현황 조사 결과」

주: 법인 고향납세 실적 제외

일본 고향세 실적 변화 추이



출처: 일본 총무성, 「고향납세 현황 조사 결과」

주: 농민신문사 보도자료 재인용

- 고향납세 도입 초에는 기부 건수와 금액이 적었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증가 이유는 다음과 같음
 - 첫째, 고향납세 최저 하한액이 2008년에 5천 엔이었는데, 2011년부터 2천 엔이 되어 소액 기부가 인정되었음
 - 둘째, 2015년부터 고향납세 윈스톱 특례제도를 실시해 세액공제 절차를 간소화하였음
 - 셋째, 개인주민세 세액공제율이 2008년에 10%이었는데 2015년부터 20%로 상향되었음
 - 넷째, 고향납세 증가의 이유에 대해 일본 지방정부의 57.1%가 답례품의 충실(返礼品の充実)을 응답할 정도로 답례품이 고향납세의 유인이 되었음
- 한편, 고향납세 유치경쟁이 과열되면서, 지방정부가 지역 특산물이 아닌 전자제품·상품권을 답례품으로 과다하게 지급하는 문제가 발생하였음
 - 이에 따라 2017년 4월 1일에 총무성 지침으로 답례품 금액 한도를 고향납세 금액의 30% 이내로 하고, 전자제품·상품권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였음

문제점

일본 고향납세 답례품 경쟁 과열 부작용

답례품으로 가장 인기 있는 품목은 고급 쇠고기, 게, 쌀 등이다. 이와 같은 상품이 생산되는 지자체는 기부금이 많이 모인다. 2017년도 고향세 수입금 1위를 달성한 오사카부(大阪府) 이즈미시(泉佐野市)는 1만 엔을 기부하면 맥주 24캔을 답례품으로 제공한다. 하지만 이렇다 할 특산품도 없고 답례품 마련을 위한 비용이 수입보다 큰 지자체는 적자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일본 아사히신문이 일본 총무성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구마모토현(熊本縣) 기쿠요정(菊陽町)은 2017년도 고향세로 인해 약 2300만 엔의 적자가 발생했다. 이곳은 2016년 발생한 구마모토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이다. 답례품이 제공되지 않는 재해 복구를 위한 기부는 줄고, 된장과 말고기 등 답례품 마련을 위한 비용만 늘어났다. 또 지역 주민이 다른 지자체에 기부한 금액이

전년도에 비해 크게 증가하면서 적자가 전년도보다 약 1800만 엔 늘어 재정이 악화됐다.

시즈오카현(静岡県) 오야마정(小山町)의 2018년도 고향세 기부금은 2018년 말 기준으로 약 249억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9배나 많은 수익을 달성했다. 이는 답례품으로 기부금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의 아마존 기프트권을 제공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오야마정 입장에서 인구 감소 대책으로 충분한 재정확보가 가능해졌지만, 전국적으로 보면 답례품 경쟁 과열로 이어져 오히려 재정이 악화된 지자체가 발생하는 결과를 낳게 됐다.

이 같은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일본 정부는 답례품이 기부금액의 30%를 넘지 않도록 하고 답례품은 지역 관련 상품으로 제한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6월부터는 고향세 대상에서 제외시키기로 했다.

출처 : 시사저널(<http://www.sisajournal.com>)

미치노에키 고향납세 자판기(좌)와 유라쿠초역 고향납세 자판기(우)



- 이 외에, 일본에서는 2016년부터 법인도 고향납세하도록 허용하는데, 이는 정확하게는 법인이 고향 또는 원하는 지역에 기부하는 것이 아니고, “지방정부가 마련하고 내각부가 인정한 지방 창생(蒼生) 또는 지역 재생(再生) 사업”에 법인이 기부금을 기부하면 기부금의 일정 비율을 세액공제하는 방식임
 - 법인 기부금의 최저 하한액은 10만 엔이고,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방정부의 사업에만 기부하도록 제한하고 있음
- 일본은 고향납세 제도를 2008년에 도입하였는데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확산하였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에서 고향사랑기부금 제도가 성과를 거두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사료됨
- 또한, 세액공제 절차를 간소화해 기부의 편의성을 높이고, 세액공제 인센티브를 상향하고, 충실한 답례품을 제공한 것이 일본의 고향납세 증가의 유인으로 작용하였다는 점을 감안한 정책 추진이 필요함
- 또한 일본의 경우 고향세 제도가 안착하며 새로운 시도들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음
 - 로컬푸드 판매장에서 고향세를 기부하고 바로 답례품을 받아 갈 수 있도록 한 것이나 고향세 납부 자판기가 대표적인 사례로 일본 야마나시현 고스게촌(村)은 최근 지역 내 한 미치노에키에 고향세 기부 수속과 답례품 수령이 가능한 자판기를 설치, 면허증 등 개인정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스캔하면 그 자리에서 고향세를 기부하고, 답례품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영 중임

3) 우리나라 고향사랑기부금과 일본 고향납세의 비교

- 우리나라의 고향사랑기부금과 일본의 고향납세를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음
 - 첫째, 우리나라와 일본 모두 지방자치단체에 기부금을 기부한다는 점에서 동일
 - 둘째, 기부에 대해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이 있는 점도 일본과 동일함
 - 셋째, 우리나라는 모든 개인의 기부가 인정되지만, 일본은 개인 중에서 도시민의 기부만 가능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 넷째, 우리나라는 법인의 기부가 불가능하지만, 일본은 법인도 기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부 주체가 상이함
 - 다섯째, 우리나라는 개인이 현재 거주지 이외의 지역에 기부금을 기부하지만, 일본은 고향 또는 원하는 지역에 기부하기 때문에 현재 거주지에도 기부할 수 있다는 차이가 있음
 - 여섯째, 우리나라는 5백만 원 이하를 기부할 수 있지만, 일본은 2천 엔 이상을 기부할 수 있고 기부금의 한도액이 없다는 점에서도 차이가 있음

우리나라 고향사랑기부금과 일본의 고향납세 비교표

고향사랑기부금(한국)	구분	고향납세(일본)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근거법률	지방세법
2023년 1월	시행시기	2008년 8월
개인이 현재 거주지 이외의 지역에 기부금을 기부	주요내용	도시민이 고향 또는 원하는 지역에 기부금을 기부
개인(법인 기부 불가)	기부주체	도시민(도시 거주 개인)과 법인
현재 거주지 이외의 지역	기부대상	고향 또는 원하는 지역 (현재 거주 지역에 기부 가능)
기부금(5백만 원 이하)	기부금	기부금(2천 엔 이상, 한도액 없음)
기부금 세액공제(소득세, 지방소득세), 답례품 제공	기부주체혜택	소득세 소득공제, 개인주민세 세액공제, 답례품 제공
기부금액에 따라 세액공제(시행령 예정): - 기부금 1십만 원 이하: 전액 - 1십만 원 ~ 5백만 원: 16.5%	세액공제	기부자 연 소득 및 가족구성에 따라 공제 상한선 변동 (예: 자녀 없는 맞벌이 부부의 연 소득이 3백만 엔이면 2만 8천 엔, 5백만 엔이면 6만 1천 엔 등)
종류 제한(법률): 현금·귀금속·보석 금지	답례품 규정	종류 제한(총무성 지침): 전자제품·상품권 금지
상한액 제한(시행령 예정): 기부액의 30% 이내, 최대 1백만 원 이내		상한액 제한(총무성 지침): 기부액의 30% 이내

레몬마켓

The Market for Lemons

레몬 시장 (The Market for Lemons)은

경제학에서 정립된 투명한 정보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이론으로, 재화나 서비스의 품질을 구매자가 알 수 없을 때 나타나는 현상을 말한다. 소비자가 상품의 품질을 구분할 수 없어 불량품을 구매할 확률이 높을 경우 소비자는 정당한 댓가를 지불하려 하지 않게 되고, 그로 인해 공급자들도 질이 낮은 상품만을 팔게 된다는 것이다. 과거 국내 쇠고기 시장이 저가의 수입육이 한우로 쉽게 둔갑되던 시절 소비자들은 한우고기를 구매하며 가짜 한우를 구매할 수 있다는 불신이 가득하였다. 결국 국내 쇠고기 시장은 이러한 시장 불신에 디스카운트(할인)가 존재하였다. 이를 극복하게 된 프로그램이 원산지 표시제의 식당으로 확대된 정보의 투명성을 높이는 프로그램이 도입되자 한우고기 가격이 상승한 경험 있다. 영어에서 레몬(lemon)은 속어로 '불쾌한 것', '불량품'이라는 의미가 있으며, 겉모습은 노란색의 구미를 당기는 외관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 레몬을 베어 물었을 때는 강한 신맛에 불쾌감을 갖기 때문에 즉, 겉과 속이 다른 불투명한 시장의 대명사가 되었다.

피치마켓(Peach Market)은

레몬마켓의 반대 개념이다. 상품에 대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고 거래되는 상품의 품질도 좋은 시장을 일컫는 경제학 용어이다.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정보가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에게 투명하게 공개된 상태를 말한다. 판매자와 구매자 중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한쪽이 더 많이 알고 있는 경우를 정보의 비대칭성이라 이야기하는데, 이 비대칭성이 해소된 시장을 말하며, 소비자들이 품질을 알고 상품을 구매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가격이 아닌 품질로 경쟁하는 시장이 된다. 한우는 2000년대 중반까지 레몬시장이었으나 원산지표시제 확대, 이력추적제 도입 등으로 피치마켓으로 전환되었다.

피치마켓

Peach Market

틈새시장공략

2등급
암소도

한우다

서동한우



서동한우 유인신 대표는 한우에 건조숙성이라는 개념을 처음 적용해 상업화한 선구자다.

소를 키우고 싶은 생각에 축산과를 나와 한우를 사육하고 있고, 한우 파동 당시 식당을 시작하여 1등급 이상 고급육만을 판매하다가 우연히 건조숙성육 맛을 본 이후 연구에 연구를 거쳐 지금의 서동한우를 만들게 되었다.

유인신 대표는 만약 본인이 건조숙성에 빠지지 않고 소 사육에만 전념했으면 지금보다 몇 배는 더 부자가 되었을 것이라면서 한우 사육에 대한 애착도 감추지 않고 있다.

서동한우를 찾을 때마다 유인신 대표는 자신의 건조숙성실을 공개하고 건조숙성육의 특성을 설명해 준다(전부 공개하는 것은 아니니 다짜고 짜 서동한우를 찾아가 숙성고를 보여달라고 하면 안 됨).

숙성실 문을 열면 치즈향이 확 퍼져 코를 자극하는데, 보통 고기를 보관하는 냉장고 근처에서는 피비린내 같은 냄새가 나기 마련인데 숙성실에 가득찬 생고기의 향에서부터 차이를 느낄 수 있다.



기존 한우고기와는 다른 차별적인 맛

유인신 대표의 서동한우에 대한 평가는 감칠맛이다.

유 대표는 “그동안 한우고기를 지방과 식감, 두 가지 맛으로 즐겼다면 건조숙성육은 고기의 단백질 맛으로 즐기는 음식”이라고 평가한다.

건조숙성 한우고기의 독특한 풍미와 부드러운 육질을 만들어내기 위해 고기를 공기 중에 그대로 노출한 채 냉장 상태로 수주 동안 보관하면, 자기소화 과정을 거치면서 단백질이 아미노산으로 분해가 되면서 감칠맛을 내는 아미노산 성분이 최대 15배까지 증가하고, 산도가 높아 보수력이 향상되어 판매를 위해 소포장을 하거나 쇠고기를 구울 때도 드립이 생기지 않는 독특한 고기로 변화하게 된다.

보통 쇠고기는 덜 익혀 먹어야 맛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서동한우의 건조숙성육은 완전히 구워도 딱딱하거나 질기지 않고 단백질 타는 구수한 향이 나는 특징이 있다.

서동한우 맛을 처음 본 분들에게 맛 평가를 부탁하면, 존뚱하면서 부드러운 식감이 인상적이다. 남자도 좋아하지만, 여성들이 특히 더 좋아할 것 같다며 일반 한우와는 다른 평가가 나온다.

2등급 한우 암소고기를 드라이에이징해 비싼 값에 판다고 하면, 한우 농가들은 대번 화를 내거나 거부감을 나타낸다.



그동안 한우고기를 지방과 식감,
두 가지 맛으로 즐겼다면
건조숙성육은 고기의 단백질 맛으로
즐기는 음식

현행 등급 테두리 안에서 소를 키우고 있는 한우 농가의 입장에서 등급에 대한 신뢰가 깨질 수도 있다는 우려도 이해되는 측면이 있다.

하지만 유 대표는 자신도 한우를 사육하는 농가이고, 2등급 한우, 2등급 한우 암소도 한우인데 1등급 이상 등급을 맞은 고기만 한우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공정하지도 합리적이지도 않다는 주장이다.

유 대표의 거친 표현을 그대로 옮기면 자기도 한우협회 회원이고, 자신도 자조금을 내고 있는데 2등급이라고 서자 취급하는 것을 옳지 않다는 것이다.

일반한우가 농장에서 맛을 내기 위해 장기 비육한다면, 서동한우는 숙성고에서 짧게는 30일 길게는 120일까지 맛을 내는 시간을 투자한다 할 수 있다.



서동한우는
숙성고에서
짧게는 30일
길게는 120일까지
맛을 내는 시간을
투자한다

소비자 기호따라 선택될 수 있어야

보통 소비자들은 마블링이 잘 형성된 한우를 찾지만, 마블링은 적지만 감칠맛 나는 건조숙성육을 좋아하는 소비자도 있다는 것이다.

유인신 대표는 2등급의 한우든, 1++ 등급의 한우든 소비자가 모두 좋아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우리 한우업체가 해야 할 일이라 주장한다.

그런 면에서 유 대표 자신이 우연히 발견하여 상업화에 성공한 건조숙성 기술은 한우산업을 더 건강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한 방법이라 생각하고 있다.

1등급 이상 한우고기는 고소한 지방과 한우만의 식감 등이 조화를 이루기 때문에 그 자체로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지만, 2등급 이하 쇠고기는 가장 비싸게 판매할 수 있는 구이용이나 스테이크용으로는 약점이 있기 때문이다.

2등급 쇠고기에 대한 약점을 건조숙성기술로 극복해 낼 수 있기 때문에 모든 등급의 쇠고기를 소비자들이 선호하게 만들 수 있게 된다.

한우 중에서 “1+ 등급 이상만 맛있다”가 아니라 “모든 한우가 맛있다”라는 새로운 명제를 건조숙성 기술로 구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료 가격 폭등기 대안될 수 있어

공급이 증가해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시점에서 암소의 사육두수 조절은 매우 중요한데, 1등급 이상 쇠고기에 소비자의 관심이 집중된다면, 수급조절에도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한우 암소고기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존재한다면 사육두수가 늘어 가격이 하락하는 공급의 증가 시기와 공급이 줄어 가격이 상승하는 시기의 편차도 줄일 수 있는 면이 있다.

현재 한우농가들은 사료 가격 폭등으로 생산비가 증가하고, 공급 증가로 가격은 하락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생산비를 한푼이라도 줄여야 하는 상황이지만, 1++ 등급을 맞아야 손해를 면하는 상황이라 생산비를 절감하지 못하는 딜레마에 빠져 있다.

유 대표는 농장에서 소를 사육해 도축해보니 24~26개월령 사이 한우는 성장을 멈추고 이후에는 피하지방, 근내지방이 증가하는 시기라며,



만약 건조숙성 용으로 한우를 비육하는 목장이라면 26개월 정도에 소를 도축하면 4~5개월 치 사료비를 절약할 수 있으므로 농가 입장에서도 매우 유리하다는 것이다.

각각의 시장에 맞게 한우가 사육될 수 있다면, 한우산업의 경쟁력은 더욱 올라갈 수 있다.

지금은 모든 소를 1++등급 출현에 맞춰서 사육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비용을 지불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건조숙성 한우 틈새시장

이른바 틈새시장(niche market) 공략이라는 말이 있다.

고객의 특성(구매 패턴, 기호, 선호도, 라이프 스타일 등)을 분석하여 특정 집단을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마케팅 전략을 니치마케팅(niche marketing)하고 니치마케팅이 집중하는 집단이 틈새시장이 되는 것이다.

이와 반대되는 개념이 매스마케팅(mass marketing)이다. 불특정 다수가 좋아할 만한 상품을 불특정 다수에게 대규모 프로모션을 통해 판매되는 제품들이 여기에 속한다.

건조숙성 한우는 주류시장과 비교할 때 틈새시장을 공략한 상품이라 할 수 있다.

마블링스코어가 높은 한우고기가 아닌 대중들이 덜 선호하는 마블링스코어가 낮은 1~2등급 한우고기에 숙성과 발효라는 기술을 접목해 시장을 창출해 냈기 때문이다. 숙성한우고기를 선호하는 소비자는 기름기가 적은 고기를 선호하는 소비자라 할 수 있다.

앞으로 한우시장은 이렇게 고객의 특성을 분석해 더욱 시장을 세분화해 접근해야 한다.

소비자들은 갈수록 다양한 숙성의 쇠고기를 찾고 있는데, 한우고기도 소비자를 특성에 따라 세분화하고 해당 시장을 공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기후위기에 관심이 많은 소비자를 위해 저탄소기술을 적용한 한우고기, 유기농에 관심이 많은 소비자를 위한 친환경 인증한우, 동물복지에 관심이 많은 소비자를 위한 동물복지 인증 한우, 초원에 방목된 쇠고기를 좋아하는 소비자를 위한 한우 등 틈새시장은 소비자군에 따라 무궁무진하게 많아질 수 있다.





품질 좋은데 가격도 착한 ‘대한한우’ 만족도 최고

유명농장
지유범 대표

글·사진 박현욱 기자
(농축유통신문)

ㄷㄷ
협회전용사료
쓰려고
직접 다른 지역가서
모셔옵니다

ㄱㄱ

충청남도 아산에 거주하는 지유범 유명농장 대표는 1994년부터 한우 사육을 시작한 한우인이다. 81세라는 고령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젊은이 못지않은 노익장을 과시하며 70두 규모의 번식농장을 운영 중이다.

번식 농장 경영은 청년들에게도 고된 작업이라 불릴 만큼 축산업 중에서도 어려운 업종으로 통한다. 면역력이 약한 어린 송아지를 케어하고 극도로 예민한 가임암소나 임신우를 돌봐야 해서다.

지난 30년간 번식농장을 경영한 지 대표는 한우산업의 발전과정을 가감없이 목격해 온 산증인이기도 하다. 한우산업이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농가 스스로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자존감과 자존심을 찾아야 한다면서 협회와 축협 등 기관들의 중요성과 ‘똑똑한 한우 농민’을 강조했다. 똑똑한 농가가 선택한 협회전용사료 대한한우의 만족도는 어떨까. 한우마당이 지유범 대표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다.



지유범 대표가 직접 공수해 오는 한우협회 사료

“쓰던 사료 중 협회 사료가 가장 명품”
사료 운송도 스스로...“그만큼 좋다”

“저 같은 소규모 농가에게는 한우협회 전용사료가 정말 좋아요. 소 입질이 좋고 영양가도 풍부해 금방 비육되거든요. 발정도 좋고요. 사룻값도 타 사료에 비해 저렴해 경영비 절감이나 소득 향상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한우협회에서 출시했다길래 냉큼 써봤죠. 이렇게 좋은데 조금 더 많이 알려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유범 대표는 그동안 급이해 본 배합사료 중 한우협회 전용 사료 품질을 가장 으뜸으로 추켜세운다. “품질이 좋은데 가격이 낮은 편이어서 가성비가 가장 뛰어나다”는 게 지 대표의 설명. 다만 지근거리에 위치한 농가들이 사용하지 않으면 쉽게 공급받을 수 없어 향후 사료 유통망 확충이 꼭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곳 농가들이 협회 사료를 잘 모르는 탓에 사료 공급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역별로 거점이 있어야 하는데 이곳 아산은 수요가 적어 공급 기지가 없죠. 그래서 제가 직접 다른 지역까지 가서 협회 사료를 공수해 옵니다. 직접 운송을 감수할 만큼 협회 사료는 매력이 있니까요.”

지 대표는 직접 발품을 팔아 사료를 충당한다. 지역 공급 기지가 없어서이기도 하지만 원가를 절감하기 위한 조치다. 특히 번식을 주력으로 하는 지 대표에게 송아지 사료에 대한 품질 보장은 반드시 필요하다. 최근 협회 송아지 사료가 좋다는 입소문이 나면서 협회 사료의 인기는 더 치솟고 있다는 게 지 대표의 귀뜸이다.

“번식만 30년을 했어요. 송아지 상태만 봐도 대변에 알죠. 협회 사료 먹인 이후 오동통해졌어요. 최근 사룻값이 크게 올랐잖아요. 협회가 사료 사업으로 마진을 보는 게 아니고요. 그만큼 믿을 수 있고 일반 기업 배합사료 가격 인상에 대한 견제 역할을 해주는 한우협회가 농가 입장에서는 고마울 따름입니다. 협회 사료에 대해 농가들이 더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1 사료를 주고 있는 지유범 대표
- 2 농기계 작업도 척척
- 3 지유범 대표가 키우고 있는 쇠소 사진
- 4 농장을 바라보고 있는 지유범 대표



과거 역사 타산지석 "배워야 한다" 협회 사업에 적극 동참하는 자세 필요

한우산업에 대한 그의 열변도 이어졌다. 우선 글로벌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한우 자체의 경쟁력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우 사육 초기부터 개량과 종자의 중요성을 강조해 온 지 대표는 열악한 시절을 회상하며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 대표가 키우는 일부 최소도 종자에 대한 관심에서 비롯됐다. 좋은 품종 희귀한 소들이 소비지까지 연결되면 그만큼 경쟁력이 있다는 이유다.

“과거 농가들은 종자 개량에 대한 과학적인 마인드가 없었어요. 농민은 그저 수정사들만 믿었죠. 일부 농가에게 사기 치는 이들에

게 많이 속았죠. 저는 KPN 수정 데이터 팸플릿을 가지고 다닐 정도로 종자 개량에 관심이 많았어요. 양질의 개량은 반드시 소득과 연결되거든요. 그때부터 농가들도 똑똑해져야 하고 공부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한우 개량의 중요성이 처음 태동하던 시절, 지 대표 농장에서 보유한 건실한 수소의 정액을 얻기 위해 농가들이 줄 서기를 했을 정도로 유명했다. 변변한 수송 차량도 없던 당시에는 수십 킬로를 암소를 대동해 지 대표의 농장으로 끌고 올 정도로 극성인 농가들도 있었다. 지 대표는 한우 농가들이 우량 한우를 만들어보겠다는 열정이 충만한 만큼 미래를 내다보는 혜안만 갖춘다면 100년 한우산업도 문제없다고 자신했다.

“저는 이 한 몸 없어질 때까지 한우 사육을 할 테지만 우리 한우산업은 영원해야 되잖아요. 한우 사육이 생각보다 많은 과학적 지식을 많이 필요로 합니다. 우리 농가들이 공부도 많이 하고 산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필요가 있어요. 특히 이를 위해서는 한우협회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농가 교육은 물론이거니와 농가들을 보호하고 권익을 지켜주는 것은 결국 우리가 만든 협회 아니겠습니까. 협회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야 어떤 위기도 헤쳐나갈 수 있죠. 한우협회 직거래유통망이나 전용사료, 농가 교육 등 농가를 위한 좋은 사업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저는 한우 농가들이 협회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의 권리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 그게 똑똑한 겁니다.”

한우 파동 겪은 산증인 자주(自主) 강조 "농가 스스로 한우산업 지켜야 한다"

지 대표가 한우 농민이 갓출 덕목에 똑똑함을 강조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그는 한우산업이 막 산업으로서 태동할 무렵 한우 농가의 어려움을 몸소 체험했다. 국제 곡물값 폭등과 같은 글로벌 악재와 사육 두수 급증으로 인한 내수시장 침체로 한우 산업은 큰 충격을 경험해 왔다.

때마다 반복된 한우 산업의 위기는 한우 농민들의 삶을 위협했고, 그 결과는 농가수의 급감으로 이어졌다. 지 대표는 한우산업을 지키기 위해서는 농가 스스로의 산업을 지켜야 한다는 ‘신념’과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동안 한우산업이 어려운 시기도 경험했지만 지금까지 이렇게 버티고 발전해 온 데에는 한우 농가들의 희생과 산업을 이끄는 몇몇 리더들의 지혜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과거 역사를 반추하면 한우산업은 어느 누구도 지켜주지 않았습니니다. 농가 스스로 지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농가 간 협력하고 농민 스스로 똑똑해지지 않으면 한순간 위기에 빠질 수 있는 것이 지금 우리의 축산업입니다. 이는 오랫동안 산업을 관찰해 온 결과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한우식당 기행(7)

영월동강
한우타운



강원 영월군 영월읍 하송안길 65

09:00 - 21:30 연중무휴

0507-1423-1552

농가형 한우식당의 원조 ‘영월동강한우타운’

전국 최초 전농가 HACCP·무항생제 ‘동시인증’
고품질 한우·합리적 가격, 동강한우의 경쟁력

강원도 영월은 빼어난 경관으로 유명한 곳이다. 역사의 배경이 된 유적지와 다양한 박물관도 이곳의 자랑이다. 숙부인 수양대군에게 왕권을 빼앗긴 뒤 유배 생활을 하다 세상을 떠난 조선의 6대 임금 단종의 한 맺힌 역사가 서려 있는 청령포 역시 영월 하면 떠오르는 곳이다. 천혜의 자연환경 속에 다양한 스토리를 품고 있는 영월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먹거리가 있으니 바로 ‘한우’다. 영월을 남북으로 관통하는 ‘동강’과 ‘한우’가 만나 명소가 된 곳, 영월동강한우타운을 찾았다.



농가형 한우식당의 원조... 2008년 문 열어

동강한우타운은 한우를 키우는 농가들이 직접 경영하는 농가형 한우식당이다. 영월이 가진 유구한 역사만큼 한우업계에선 전통있는 한우 식당으로 꼽힌다.

지난 2008년 ‘최고품질의 영월 한우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소비자들에게 직접 공급하며 신뢰를 얻어 차별화하자’라는 취지로 영월 관내 한우 사육 농가 18명이 영농조합을 힘을 합쳐 영월동강한우영농조합법인 설립하고, 식당까지 개설한 것이 그 시작이다.

당초 청령포에 자리 잡은 동강한우타운은 영월 강변의 저류지 조성공사로 식당 부지가 수용되면서 2011년 지금의 위치로 자리를 옮겨 규모를 늘리고 2층으로 올려 지었다.

1천여 평 면적에 220평 건물을 지어 1층은 정육형 한우식당으로 2층은 연회장으로 꾸며 각종 모임과 돌잔치, 연회 공간까지 갖췄다. 개업 당시부터 지금까지 ‘한우농가들이 직접 키운 맛 좋고 질 좋은 한우를 저렴한 가격에 즐길 수 있다’는 입소문과 평판이 줄을 이으면서 전국의 한우 맛집으로 이름이 높다.



차별화된 품질·합리적인 가격 ‘동강한우’의 경쟁력

동강한우타운이 오랜 기간 소비자들의 두터운 신뢰와 사랑을 얻게 된 건 동강한우만의 ‘차별화된 고품질 전략’ 덕분이라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동강한우의 창립멤버이자 현재 한우타운의 전문 경영을 맡고 있는 고찬규 대표는 “해발 200~700m의 청정한 사육 환경과 일교차가 큰 자연여건으로 단단한 육질과 깊은 맛의 한우가 생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동강한우영농조합의 농가들이 생산한 한우는 1+등급 이상 출현율이 60% 이상을 차지하며, 육색과 식감은 물론 깊은 풍미로 소비자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다.

서울과 수도권 한우식당의 절반 수준에 판매되는 합리적인 가격 역시 ‘동강한우타운’이 전국에서 이름난 한우명소로 자리 잡게한 또 다른 성공 요인이다.

현재 영월동강한우영농조합은 음성공판장 평균 경락가격을 기준으로 한 가격 정산과 출하두수에 따라 지급하는 출하장려금 외에 모든 이윤은 소비자들의 편익에 기여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한우고기를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하는데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도매시장 한우 가격이 크게 상승한 상황에서도 동강한우타운에선 1++등급 등심과 새우살 등을 100g에 1만 4천 원 수준에 즐길 수 있다. 갈빗살과 치마살 등 특수 부위도 1만 4천~1만 6천 원 선에 판매 중이다.

불고기의 경우 600g 한 팩에 2만 4천 원(100g당 4천 원)인데, 한우 매장에서 불고기

감을 구매해 양념 비(1팩당 4천 원)를 내면, 한우 생불고기를 즉석에서 즐길 수 있다.

2층의 명품관에선 1인분 양을 줄곧 180g으로 유지하면서 고품질의 최고급 한우를 양껏 즐길 수 있게 했다.

명품관의 한우 가격도 합리적인 수준이어서 일반 소비자들도 부담없이 방문 할 수 있다.

한우 등심 1인분이 3만 8천 원, 갈빗살이 4만 3천 원으로보다 100g당 2만 원이 조금 넘는 수준으로 보다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다.

최고급 한우고기에 어울리는 식사와 밑반찬 역시 동강한우타운의 경쟁력으로 꼽힌다.

식당 개점부터 주방을 맡았던 고참 주방장이 올해로 15년째 근무하면서 영월동강한우의 맛을 더욱 살려줄 식사메뉴를 전담하고 있는 것. 한우육회냉면과 강원도 명물인 코다리냉면에 이어 최근엔 한우 물회를 선보이는 등 한결같은 맛에 새로운 메뉴개발 노력까지 더해지면서 지방의 작은 군 단위 한우 매장에서 매일 한 마리, 1주일에 8마리의 한우를 팔아치우는 한우명소로 자리매김했다.

전 농가 HACCP·무항생제 동시 인증 ‘전국 최초·최고한우’ 자부

동강한우타운이 지금의 명성을 얻기까지는 마냥 꽃길만 걸어온 것은 아니다.

청령포 식당 부지가 개업 3년 만에 군에 수용되고 지금의 자리로 이전해 2층 건물로 지어 올리면서는 대규모 차입이 불가피했다.

이 과정에서 몇몇 농가는 영농조합을 탈퇴했고, 결국 남겨진 13명의 한우농가는 한우식당

을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는 일념으로 추가 출자와 대출까지 받아가며 허리띠를 졸라매는 등 식당이 다시 자리를 잡는 데 모두가 사력을 다해 힘을 모았다. 고찬규 대표는 당시를 이렇게 회상했다.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자는
생각으로 똘똘 뭉쳤습니다.
어려운 시기 가운데 오히려
하나가 된 것 같아요.
없는 살림에 전 재산을 털어
출자하는 농가도 있었고,
서로 연대 보증을 서가며
필요한 재원을 마련했습니다.”

농가들의 노력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최고의 한우를 생산하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였다. 생산비 절감은 물론 균일한 맛과 품질의 한우고기 생산을 위해 사료를 공동구매했다.

2017년엔 전 농가가 HACCP 인증을 완료한 데 이어 7월 말에는 전 농가의 무항생제 인증 완료를 눈앞에 두고 있다. 브랜드 사업에 참여하는 전 농가들이 HACCP와 무항생제 인증을 동시에 모두 획득한 것은 한우업계에서도 사례를 찾기 어렵다.

가장 안전한 고품질 한우가 바로 ‘영월동강한우’라고 자신하는 이유다.

지난해 10월엔 횡성축협한우에서 생산부터 유통부문 사업을 총괄했던 정의강 전 상무(축산학 박사)를 본부장으로 특별채용해 동강한우의 우수성 홍보와 사업을 체계화하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동강한우 ‘사회적 기업’으로 발전시켜 나갈 터

고찬규 대표와 한우농가들은 앞으로 동강한우타운을 ‘영월을 찾으면 반드시 찾아야 할 방문코스’로 정착시켜 영월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게 하는 등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일을 모색하고 있다. 또 판매 활성화를 통해 현재 영농조합 사업에 참여 중인 13개 농가의 회원 수를 확대하고 이를 발판으로 사회적 기업으로 조합을 키우는 데도 관심을 갖고 있다.

고찬규 대표는 “동강한우타운이 농가와 소비자의 편익은 물론 물론 영월군의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판매역량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농가들의 출하처를 확보하겠다는 작은 꿈에서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하는 사회적 기업으로 발전시켜 나가는데 큰 목표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박영철

전국한우협회 강원도지회장

강원도 내 소외계층과
소비자들에게 아낌없이 나누리~

“노블리스 오블리제 실천에 앞장서겠다” 약속



6억 원. 2015년부터 전국한우협회 강원도지회가 사회에 환원한 금액이다. 실제 전국한우협회 강원도지회는 매년 강원도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 나눔행사를 실시하고 있다. 가장 최근이었던 지난 설에도 ‘설맞이 한우농가 사랑의 한우곰탕’(5000개·2000만원 상당) 나눔 행사를 실시했다. 지난 3월 발생한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강릉·동해·삼척 지역의 피해 이재민들에게 1200만원 상당의 한우곰탕을 전달하기도 했다.

전국한우협회 강원도지회의 이 같은 활동은 박영철 지회장의 생각이 고스란히 반영된 결과다. 박영철 지회장은 “대규모 한우 농가들은 ‘노블리스 오블리제’(높은 신분·많은 재산 등의 혜택을 누리는 사람은 그렇지 못한 다른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는 생각)를 실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동안 강원도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 차상위계층과 장애인 등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나눔 활동을 진행했다. 그 결과, 우리 도지회가 나눔 단체 현판 1호로 선정됐다. 소비자들에게 축산업에 종사하는 한우농가들의 역할을 보여주는 계기가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눔단체 현판은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한 기업·단체 등을 대상으로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기업·단체임을 홍보해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강원도사회공헌정보센터가 제작·전달하고 있다.

이런 활동은 축산업의 부정적인 시각 변화에도 일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영철 지회장은 “상당수 도민들은 가축분뇨를 혐오라는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 같은 시각에서 탈피할 수 있는 활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소비자들과 만나는 행사도 한우를 사랑해주는 소비자들에게 보답하고 부정적인 시선을 탈바꿈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이다. 그는 “5년 전부터 실시해온 도농상생축제를 지난 2년 동안 코로나19 여파로 못했다. 지난 5월 가정의 달에 한우고기를 30% 할인 판매하는 행사를 오랜만에 개최하니 너무 좋았다”고 회상했다.

그는 또 “지난 행사 때 어느 정도 거리두기가 완화돼 판매 행사만 했지만 향후 여건이 더 좋아지면 예전에 했던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며 “그동안 한우자조금을 활용해 홍천한우축제·치악산한우축제·강원한우축제 등을 함께 했다. 올 11월 1일 대한민국 한우먹는 날을 앞두고 전야제 성격으로 10월에 대관형한우축제를 추진하는 등 한우고기 소비와 지역축제가 시너지를 얻을 수 있도록 (지역 행사를) 잘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강원도의 한우산업 발전을 위한 활동도 적극 나서고 있다. 박영철 지회장은 “강원도가 진행하고 있는 한우산업발전 5개년 계획이 내년에 종료된다. 그래서 얼마 전 강원도청과 한우산업발전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농가들에게 필요한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박영철 지회장은 “(5개년 계획에 대한) 중간 평가 개념으로 이번 간담회를 진행한 것”이라며 “정권도 바뀌었고 신임 김진태 도지사께서 7월 1일 취임한 만큼 새로운 틀을 가져갈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다. 농가의 어려움을 피력해 규제를 완화하고 지역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틀을 함께 마련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지난해부터 이어진 사료가격 상승으로 한우농가들의 생산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



를 해소하기 위해) 관련 기관과 면밀히 그리고 지속적으로 대화를 나눌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6월 전국한우협회 강원도내 시군지부 등과 함께 실시한 한우 역량강화 교육도 마찬가지. 박영철 지회장은 “최근 제주도에서 한우협회 강원도지회 시군지부장 등 70여명과 리더십 교육, 인문 아카데미, 강원도 내 한우 브랜드 마케팅 전략, 유전체 분석과 한우 개량 효과 등에 대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며 “오히려 교육 일정이 짧아서 아쉽다는 반응도 나오는 등 호응이 아주 좋았다. 내년에도 착실히 준비해서 진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또 “한우 수급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8월 말에서 9월 초에, 강원도청과 강원대, 축산기술연구소, 농협 등 산학연관이 함께 하는 심포지엄도 고급육 이미지 강화를 주제로 11월 말에서 12월 초 사이에 개최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박영철 지회장은 “농가들에겐 생산비 상승, 한우가격 하락 등의 고비를 같이 이겨내자고 말해주고 싶다. 중앙정부와 지자체도 농가들의 어려움을 다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자고 요청한다”며 “한우협회 강원도지회는 행정기관과 협업하는 등 최대한 노력해서 농가들의 어려움을 조금씩 풀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전국한우협회 원주시지부

“협회의 역할은 농가 민원 처리하는 해결사죠”

조사료 구매 애로, 운송협의 및 공동구매로 극복
축협·원주시 적극 소통 협력으로 치악산한우 ‘원팀’

강원도는 대규모 수요처인 서울 등 수도권과 인접해 있고, 청정지역이라는 강점 때문에 산악지대라는 불리한 사육 여건 속에서도 한우가 지역을 대표하는 품목으로 자리 잡았다.

강원도 내 대부분이 인구 감소로 생산에 방점이 찍혀 있거나 소비의 상당수를 관광객에 의존하고 있는 반면, 원주시는 인구 36만의 강원도 내 최대 인구 밀집 지역으로 생산과 소비가 조화를 이루고 있어 한우 생산과 유통에 있어 비교적 어려움이 적은 편이다. 원주 관내 한우농가는 400여호. 그중 210농가가 한우협회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100두 이상 대군 농가와 중소규모 농가 비중도 50:50으로 타 지역보다 대군 농가 비중이 높은 상황이다.

지난해 말 취임한 이진원 원주시지부장은 연구하는 한우농가로 지역 내에서는 정평이 나 있다.

새로운 사양기술 등을 접목하여 자신의 농장에서 시범 사육을 해보고 효과가 있는 기술 등은 관내 농가들에게 전수해 주는 등 관내 어떤 농가보다 앞선 사양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고급육의 성지라 할 수 있는 일본 화우산업에도 관심을 두고 일본 화우농가와 교류하면서 원주한우 고급화에 힘을 쏟고 있다.

이진원 지부장은 “사료 가격이 폭등하고, 쇠고기 관세가 철폐되고 있는 위기 상황에서 우리 농가들의 생존 공식은 고급육생산에 있다”며 “고급육 생산에 도움이 되는 기술을 계속해서 연구해 관내 농가들에게 보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사료 불모지나 다름없는 강원도 원주시지부, 안정적 조사료 조달 체계 구축

이진원 지부장은 외환위기 당시 하던 운수업을 접고 귀농에 나섰다. 2000년을 전후해 한우 사육업이 전업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시기였는데, 사료가격 폭등, 공급과잉에 따른 한우 가격 하락, 시장개방 등으로 너도나도 한우 사육을 포기하던 때 이진원 지부장은 한우 사육에 뛰어 들었던 것이다.

운송업의 경험은 조사료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한우농가들을 위한 재능 기부로 이어졌다.

지난해 말 총회에서 지부장으로 취임한 직후 곧바로 회원 농가들에게 “한우를 사육하며 무엇이 제일 힘든니까?”라고 문자를 전부 띄웠는데, 가장 큰 문제가 조사료 수급과 퇴비장 문제라는 걸 알게 됐다고.

사실 조사료의 유통은 강원도의 경우 축협과 축협 간 거래가 주로 이뤄지는데 벼짚이나 조사료가 풍부한 호남 지역도 사료가격 폭등과 조사료 부족 상황이 발생하자 관내 생산된 벼짚이나 조사료를 외부로 반출하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고 있다. 이 지부장은 원주지역으로 올라오는 화물운송기사와 협약을 맺고 정기적으로 호남쪽을 오가면서 조사료를 수배해 지역으로 공급하는 물꼬를 텃다. 초기에는 라이그라스를 공급하다가 최근엔 보리짚, 밀짚 등을 구해서 회원농가들에게 공급하고 있다.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아 지난해 한톨에 7만 5000원 정도에 받았던 라이그라스를 올해는 12만원 정도에 공급받고 있다고. 높은 가격이지만 그나마도 구하지 못해서 농가들이 받을



동동 굴렀는데 원주시지부에서 공동구매사업 진행하며 관내 농가들로부터 고맙다는 이야기를 계속 전해 듣고 있다고 보람을 전했다.

이진원 원주시지부장은 “조사료, 배합사료 모두 가격이 크게 상승하며 농가들이 매우 위축되고 있지만 조사료 공동구매와 같이 협회 단위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농가들이 생산비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원주시지부는 TMR사료의 원료 구매에도 가격교섭에 나서고 있다. 이진원 지부장은 “축협이나 민간에서 운영하는 TMR공장들은 원료가 비싸다고 하면 비싼대로 구매해 사료를 제조하기 때문에 가격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며

“조사료, 배합사료 모두 가격이 크게 상승하며 농가들이 매우 위축되고 있지만 조사료 공동구매와 같이 협회 단위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농가들이 생산비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퇴비장 문제 원주시와 긴밀히 협조

우분 처리 어려움은 부숙도 검사 의무화가 시행된 이후 전국 대부분의 농가가 겪고 있는 문제다. 여기에 강원지역은 산악지대가 많고 농지가 상대적으로 적다 보니 쏟아져 나오는 우분을 적기에 살포하기에도 벅찬 상황이다. 그나마 우분은 비료 가치가 높아 활용도가 높았지만, 부숙도 의무화 이후 농가들이 보유하고 있던 기존 퇴비장이 비좁아 새로운 기준에 맞게 관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진원 지부장은 원주지역 한우농가를 대상으로 퇴비장 수요조사에 들어갔더니 200평, 150평 이런식으로 17농가가 퇴비장이 필요하다고 알려왔다고.

원주시 축산과와 협의에 들어간 끝에 원주시 축산과 담당자들도 농가들이 가축분을 제대로 처리하겠다고 나서는데 시에서 최대한 협조해 내년 예산에 반영되도록 긍정 검토하겠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협회와 농가들의 노력과 적극성을 보고 원주시에서도 관심을 갖고 행정에 임해 주고 있는 것이다. 이진원 지부는 이러한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원주 관내 한우농가 교류의 장 마련

원주시지부는 지난 2년 반 동안 코로나19 때문에 제대로 된 모임도 교육도 하지 못했다. 관내 전체 한우농가의 절반 정도가 협회 활동을 하고 있지만, 나머지 소규모 농가의 경우도

한우를 사육하는 공동체 일원인 만큼 함께 교류하고 힘을 모아야 한다는 게 이진원 지부장의 소신이다.

사회적거리두기가 해제되자 원주시지가 제일 먼저 기획한 일은 제1회 치악산한우 한마음대회다. 이날 행사에는 박정하 국회의원, 원강수 원주시장 당선인을 비롯해 박영철 강원도지회장, 신동훈 원주축협 조합장, 백삼령 농협사료 강원지사장 등의 내빈이 참석한 가운데 한우인 약 500여명이 참석하였다.

이 자리에서 이진원 지부장은 “한우인들의 열정과 담함으로 치악산한우가 최고의 브랜드로 성장하고 있다”며 “지역 한우산업 발전을 위해 원주시와 축협, 한우협회가 협력해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농가들이 양축에 전념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밝히기도 했다.

우천가운데 치러진 행사지만 관내 한우농가는 물론이고, 원주시 관계자, 시의회, 축협, 강원도 한우지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모두가 한우한우산업 발전을 위해 의기투합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원주 한우농가들의 미래는 매우 밝다. 원주시와 축협, 한우협회가 유기적으로 협조하며 한우농가들을 지원하고 있다.

여기에 공부하는 지부장, 연구하는 지부장을 중심으로 한우농가들이 양축 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해 지부 임원들이 노력하고 있고, 농가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기 위해 수시로 농가들과 임원들이 소통에 앞장서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 한우산업 발전을 위해
원주시와 축협, 한우협회가 협력해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농가들이 양축에 전념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



슬기로운
출하요령

전국한우협회 직거래유통망

- 농가가 원하는 적기 출하
- 경매 상장 수수료 無
- 운송비 절감
- 하자육 발생시 농가 손실 방지제도 운영



• 한 차(8두 기준) 출하, 100만원 이상 이득 ⇒ **농가수익개선**

전국한우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직거래유통망은 부산물 제값받기와 적기출하를 위해 만들어진 전국한우협회 전용 도축유통망입니다. 경매 상장수수료가 없고 운송비를 절감할 수 있어 경영안정에 유익합니다.

◆출하 신청방법 (☎ 02-525-1053)

- 담당 : 유통사업국 박호경 대리(내선 207)
- 시기 : 출하 계획 14일~30일전 협회로 신청
- 접수 : 중앙회 담당직원 연락 또는 시군지부 접수
- 팩스 : 02-525-1054

◆정산기준

구분	거세우	암소	비고
출하규격 (지육중량)	27개월령 이상 36개월령 이하 380kg이상 600kg이하	26개월령 이상 60개월령 이하 300kg이상 550kg 이하	※ 등심단면적 기준 (거세) 86cm ² 이상 110cm ² 이하 (암소) 76cm ² 이상 100cm ² 이하
가격적용 기준	농협 음성공판장 화,수,목,금 평균가	음성공판장 화,수,목 평균가	
부산물	두·내장·우족은 농협 음성공판장 가격 적용		우피는 당해 도축장 가격에 따름
하자육 처리	근출혈 보상보험 두당 8,500원		하자육 금액이 kg당 1,000원 이상으로 발생시 일부 자부담 발생
출하장려금	(거세, 두당 7만원) 도체중 420kg~560kg이하, 월령 30~34개월이하, 등심단면적 86cm ² 이상 (암소, 두당 12만원) 도체중 350kg~550kg이하, 월령 28~60개월이하, 등심단면적 76cm ²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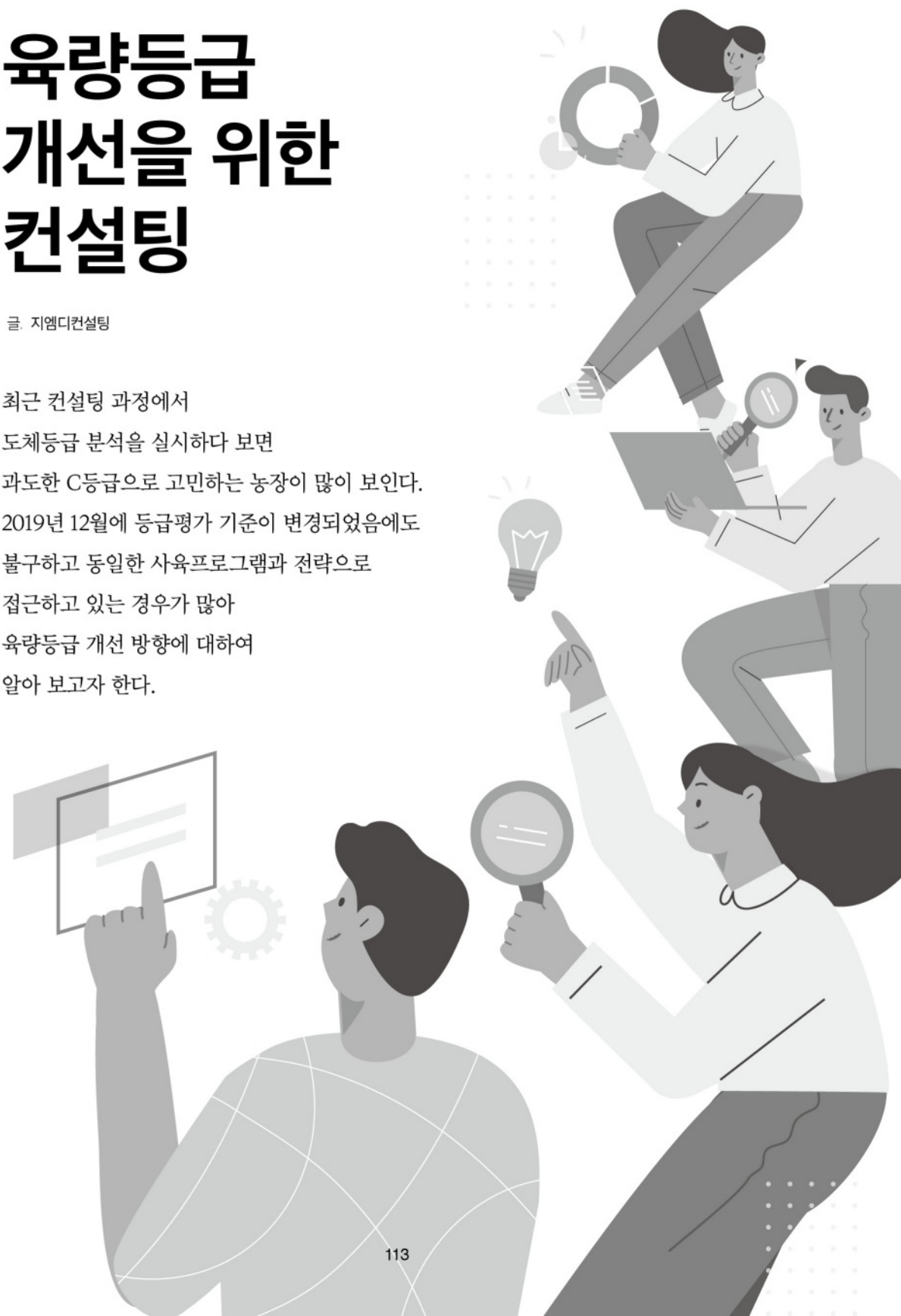


사단법인 전국한우협회

육량등급 개선을 위한 컨설팅

글. 지엠디컨설팅

최근 컨설팅 과정에서
도체등급 분석을 실시하다 보면
과도한 C등급으로 고민하는 농장이 많이 보인다.
2019년 12월에 등급평가 기준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사육프로그램과 전략으로
접근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육량등급 개선 방향에 대하여
알아 보고자 한다.



< 한우 거세 육량등급 기준 >

구분	이전	현안
육량 지수 공식	68.184 - [0.625*등지방두께(mm)] + [0.130*등심면적(cm ²)] - [0.024*도체중량(kg)] 단, 한우는 가산점 3.23점	=[11.06398-1.25149*등지방 두께(mm)+0.28293*배최장근 단면적(cm ²)+0.56781*도체 중량(kg)]/[도체중량(kg)*100
육량 등급 구분	A등급 67.2이상	A등급 65.52이상
	B등급 63.3이상~67.2미만	B등급 60.40이상~62.52미만
	C등급 63.3미만	C등급 60.40미만

위의 표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등심단면적이 육량지수에 미치는 비중이 상승하고 도체중량이 하향 요인에서 상향요인으로 변경된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도체중량의 증가는 전체육량지수를 낮추는 요인이 되기는 한다. 다시 말 하자면 등지방두께에만 집중 한다면 경제적 측면에서 좋은 결과를 볼 수 없다는 뜻이다.

소의 산육생리에 따른 중요 포인트를 살펴보면 대응하는 것이 C등급 출현율을 최소화 시키는 데 효과적이다. 도체중은 12.4~23.4개월령(최대 18개월)에 걸쳐 증가가 이뤄지고, 등심은 14.5~30.6개월 (평균 최대 발달시기는 22.6개월)까지 성장된다. 지방침착 정도는 일정기간동안 급여된 영양소의 총량이 높고 낮음에 따라 결정되므로, 결국 비육기간의 농후사료 급여수준이 등지방두께를 좌우하게 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를 걱정하여 비육기간 중 농후사료 급여량을 제한 한다면 도체중과 등심단면적에서 손실을 보게 되는 것이다.

30개월령 전후 출하축에서 C등급 출현율을 낮추려면 비육전기 및 중기에 해당하는 시기(18~25개월)에 농후사료를 최대섭취량으로 유도하여 증체량을 최대로 늘리되, 요석증과 고창증에 유의 해야 한다.

육성기(4~10개월)에는 양질조사료를 다량 급여하고, 운동량을 증가시키면 제1위내 초산발효가 우세하고, 성장호르몬 분비가 촉진되어 근육이 집중적으로 발육하여 등심단면적 및 출하체중이 증대될 수 있는 기초가 마련되어 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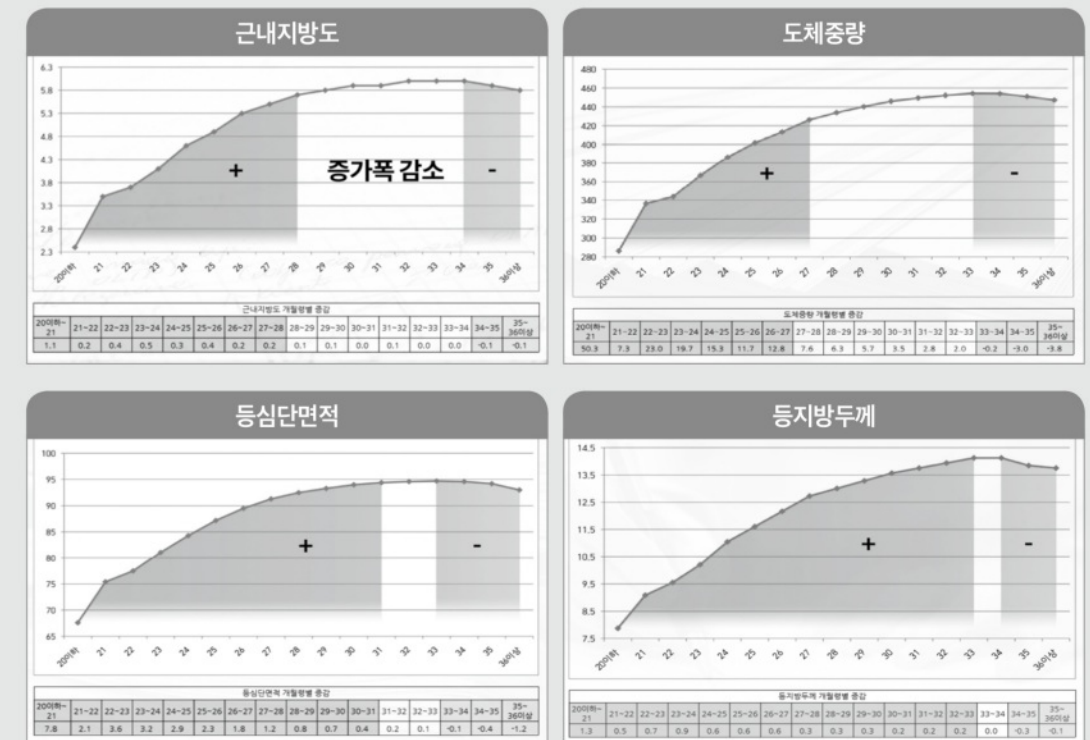
육성 및 비육기 일당증체량 목표는 0.7~0.9kg인데, 육성기에 양질조사료만 자유채식시킬 때 예상되는 일당증체량은 0.4kg전후이므로 이 기간 동안 농후사료를 급여하지 않으면 골격형성 불량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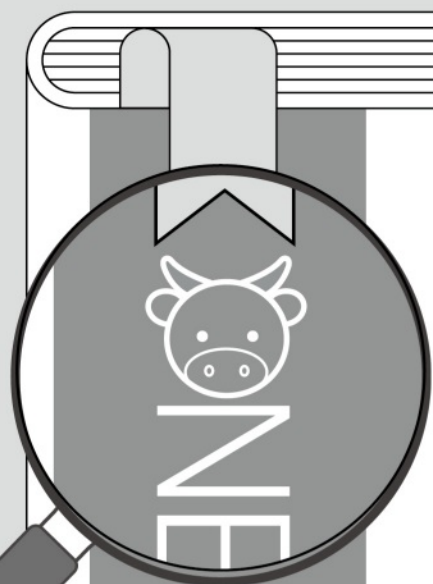
일부 자료에 의하면 육질과 육량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송아지 자질 60%, 사육 방법 25%, 사료의 영향을 15% 정도로 구분된다고 한다. 따라서 육질과 육량 개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질이 우수한 밀소의 선택이 우선돼야 하겠지만, 사양관리 측면에서는 변경된 육량등급 기준에서 접근하여야 할 것이다.

등심단면적 및 출하체중이 모두 작아지게 된다. 반대로 육성기 사료 내 섬유소 함량이 저하되고 농후사료급여가 많은 경우에는 제1위내 프로피온산 발효전환으로 성장호르몬 분비가 억제, 초기에 지방축적량이 증가하여 내장 및 피하지방 축적으로 등지방두께가 증가 하게 되고, 특히 9~12개월의 근간지방이 발달하면 등심이 발달하는 시기에 압박을 받기 때문에 등심이 커지지 않게 된다. 등심과 주위 조직 등심(홍최장근)은 지육의 가장 안쪽에 있으므로, 주위의 압박을 받아 발달이 저해되기 쉬운 부위이다.

고급육 생산을 위해서는 육성기의 반추위 발달, 큰소 비육 시기의 육량 증대, 비육전기 및 중기의 지방침착이 중요한데, 큰소 비육 단계에 증체량을 늘리는 것이 등심단면적과 근내지방도 향상에 큰 도움이 된다. 증체량을 늘린다는 것은 그만큼 사료 섭취량을 증가시키는 것을 의미하므로 고급육 생산을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든 식욕을 증진시키는 것이 중요한 과제다. 단, 사료 섭취량 증대에 따른 대사성 질병 발생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사료섭취량 증가를 위한 첨가제의 이용은 중조와 같은 단순 완충제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시작해 장내 발효 조정제, 효모제, 생균제, 등을 적절히 이용 혼합해 이용하면 도움을 줄 수 있다.

출하월령별 도체등급 항목별 변화





POINT LESSON

모든
가
세
일



이종현 농학박사
전 한우협동조합연합회
사무국장

거창축협 등록우 경매시장을 찾아서



<사진1> 22년 7월5일 경매장면(필자촬영)

1. 머리말

경남 거창군은 예전부터 번식우를 많이 기르는 지역으로 유명하다.

지금부터 40여년 전에 한우등록업무로 이 지역에서 3개월 정도 일을 한 적이 있었는데 소가 얼마나 많았는지, 산골짜기마다 나오는 누렁이가 마치 장마철에 흙탕물 쏟아져 나오는 듯한 인상을 받았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다.

거창축협의 혈통등록우 경매시장은 지리적인 특성으로 거창과 경계선상에 위치한 함양, 산청, 무주 등 여러 지역에서 출하되고 있으며 송아지 출장두수도 많기 때문에 경남 거창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의 구매자들이 많이 찾아오는 경매장이다.

거창축협에서는 혈통등록우의 친자확인사업을 일찍 추진하여 구매자의 신뢰를 얻었는데 친자확인 업무를 시작할 때는 내부적인 반발과 어려움이 있었다고 한다.

이는 전국 어느 곳이나 마찬가지로 인공수정 업무를 맡는 분들의 정확한 기록과 송아지 생산농가의 개체 확인이 필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귀찮고 번거로운 일이겠지만 송아지 구매자로부터 호응과 신뢰가 쌓이고 부터는 타 지역(무주,산청등)에서도 경매장에 출하하기 전에 친자확인을 한 송아지를 거창 등록우시장에 출하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와 함께 어미나 형매에서 근내지방도8~9(++), 등심면적110cm²이상 생산한 기록이 있으면 엘리트송아지, 3계대 이상이며 친자확인이 된 송아지는 거창한송아지로 구분하여 경매를 실시하고 있으니까 거창으로 등록우를 구매하려 가기 전에 미리 파악하여 두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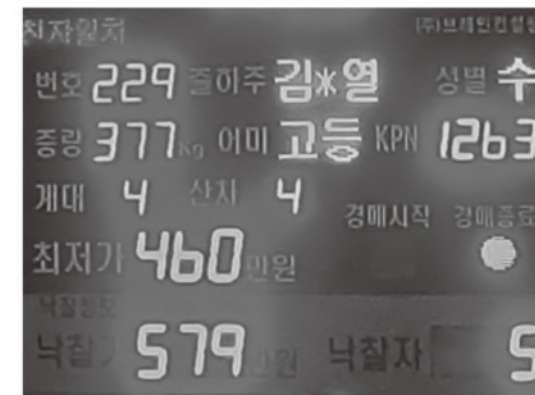
2. 체형이 큰 송아지를 좋아해

거창축협의 등록우의 체형이 다른 지역보다 큰 송아지가 많은 것이 특징이었다.

경매 전 입찰최저가를 산정하는 기준을 물어 보았더니 주로 외모와 체형을 기준으로 가격을 산정하며(유재영, 박순재 농가) 가격산정위원은 농가로 구성되어 있었다.

어미소의 후대능력은 구매자가 파악을 하는 사항이며 외모상 하자가 있는지(다리부상, 버즘 등) 자세하게 살펴본 후에 가격을 산정하는데 오늘은 외부 구매자가 많이 와서 가격이 좋을 것 같다고 하며 관내의 한우농가 보다는 외부에서 구매자가 많이 와야 송아지 경매가격이 올라간다고 하며 합천은 송아지가 작아서 잘 안 가고 구매자는 큰 송아지를 좋아하며 송아지 때 큰 송아지가 사료도 잘 먹으며 비육도 잘 되기 때문에 체형이 큰 송아지를 좋아한다고 했다.

거창과 합천은 전국에서도 유명한 등록우 경매시장이지만 서로가 좋은 경쟁을 하고 있는 느낌을 받았다.



<사진2> 8개월령(21.11.12생) 체중377kg (필자촬영)

지난번에 합천축협 경매시장을 다녀왔기 때문에 무엇이 차이 있는지 살펴보았더니 합천축협은 수송아지 7개월령, 암송아지 8개월령이 출하기준이었으며 거창축협은 수송아지 8개월령, 암송아지 11개월령이 출하의 기준이었다.

송아지 때 1~2개월령의 차이도 무시하지 못하니 구매자는 어느 지역의 송아지를 구입하더라도 그 지역의 출하기준을 잘 살펴 볼 필요가 있다.

거창 등록우 경매시장에서는 다른 지역보다 송아지 체형이 크며 외모상 결점이 없다면 다른 지역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경매가 되었으며 수송아지 중에서 체중이 무겁고 체형이 좋은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경매장의 큰 손들

현재 운영되고 있는 등록우 경매시장 중 유전자원의 관외반출을 걱정하는 홍천, 횡성축협 등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는 외부의 구매자가 많이 올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거창축협에서도 친자확인 사업 전에는 400여두의 송아지가 출하 되었는데 200여두가 유찰되던 시기도 있었다고 한다.

송아지를 출하하여 유찰된 송아지가 적다면 생축장에서라도 구매를 할 텐데 너무 많은 송아지가 유찰되면 농가로 다시 돌려보내기도 어려워 곤란함이 이루 말할 수 없었으나 일찍이 송아지의 친자확인으로 신뢰도를 높이고, 외부의 구매대행을 하고 있는 업체나 전문가에 홍보를 계속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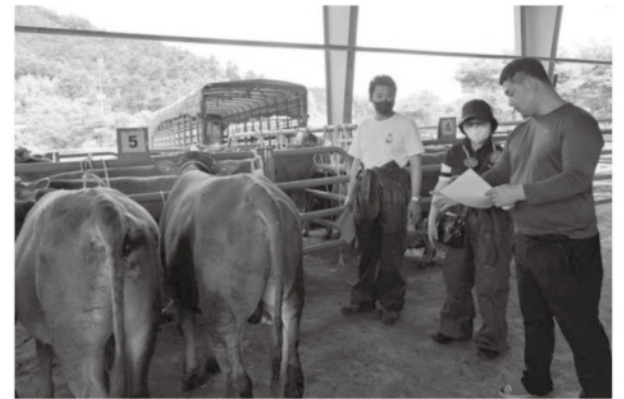


<사진3> 경매된 송아지가 운송차에 실리기 전 (필자촬영)

7월 5일 경매장에는 수송아지 151두와 암송아지 71두를 출하했는데 한 마리도 유찰 없이 100%가 낙찰되었으며 이 중에는 전북무주, 경남산청을 비롯한 관외에서 출장한 62두를 포함하고 있다.

<사진3>은 오늘 거창축협 등록우 경매시장에서 수송아지를 가장 많이 구매한 입찰자인데 151두의 수송아지중 58두를 구매(38.4%)하였다.

그런데 특이한 사항은 구입하는 두수도 많았으며 출하한 송아지 중에서 체중이 많이 나가고 송아지의 체형이 좋은 것만 골라서 운송하는 트럭 밑에 임시로 매어놓은 상태를 보니 체상선이 거의 일치 하였으며 체폭도 풍부하여 한 눈으로 보아도 출하된 송아지 중에서 거의 최상의 상태인 송아지를 구매한 것을 알 수 있으며 이 정도의 송아지를 구매한 사람이면 어느 등록우 경매장에 가도 귀한 대우를 받을 것 같았다.



<사진4> 경매된 송아지를 점검하고 있는 구매자 (필자촬영)

<사진4>는 이번 경매에 수송아지 58두를 구매한 입찰자이다.

송아지 구입기준을 여쭙어보니 「맷집이 좋고 체형이 좋은소, 뱃고래가 좋은소」를 고른다고 했다. 이 송아지는 경북에 있는 「민속한우」에 구매해 주는 것이며 가운데에 있는 여사장이 총괄하고 있으며 옆에서 설명하는 사람은 사위(최민준)인데 이제 5년이 되었다고 했다.

경매장에서 보니 거창지역에서 구매하려는 입찰자는 최저가에서 50~80만원 내외로 100만원 이내의 가격으로 낙찰을 받았으나 민속한우 구매자의 경우는 최소 100만원~150만원 높게 낙찰을 받아 소규모 구매자보다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 있으니 번식농가에서는 이러한 관외의 대규모 구매자가 많이 와야 송아지 가격을 높게 받을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 된다고 볼 수 있다.

민속한우는 경북지역에서 가장 큰 규모를 가지고 있으며 자체 농장에서만 3천여 두의 한우와 계열농장 3만여 두가 사육되고 있다고 알고 있는 단일 규모로는 전국에서 제일 큰 규모가 아닐까 생각된다.

이 외에도 암송아지 전문구매자, 지역조합 구매대행사등 여러 형태의 전문 구매자가 형성되어 있어 각 지역에서는 이들이 좋은 송아지를 확실하게 구매 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는 것이 등록우 경매시장 활성화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앞으로 걱정되는 것은 실제로 송아지를 직접 구입해서 기르고 싶은 한우농가에서 대규모의 구매자와 경쟁에서 이겨 나갈 수 있을까? 송아지 경매장의 변화는 송아지 판매자는 실제로 몇 명 되지 않고 구매자가 많다는 것이다.

이는 지역축협에 송아지 경매를 신청하면 운송업자가 운송해 주고 경매현황은 실시간 유튜브

로 중계해주고 경매대금은 축협에서 통장에 자동으로 송금을 해주니 송아지 판매자가 시간과 경비를 들여가며 뜨거운 삼복더위에 경매시장으로 나올 필요성이 없어진 것이다.

더구나 전자입찰로 3초안에 가격이 결정되니 흥정도 필요 없고 중계인이 없어도 되며 이에 따라서 가축시장의 인간미도 사라져 가고 있는 것이다.

4. 한우 번식우 전문농가 육성사업

거창축협에서는 번식농가를 위한 「한우 번식우 전문농가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축협에서 1농가당 3두의 암송아지를 구매하여 농가에 분양을 하고 농가에서는 암소가 새끼를 낳으면 어미소는 농가에서 차지하고 송아지를 축협에 환원하는 사업인데 이는 옛날의 배넛소 사업과 비슷한데 배넛소 사업은 소를 키우는 농가에서 송아지를 갖고 어미를 주는 사업이고 한우 번식우 전문농가 육성사업은 어미소를 농가가 갖고 송아지를 환원하는 사업이다.

따라서 축협에서는 2년 후에 송아지를 받기 때문에 값이 올라가거나 하락하는 것과 상관없이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지는 않는 사업이며 번식농가나 한우를 키우고 싶어하는 농가에는 매우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다.

<사진5>는 축협에서 암송아지를 구매하여 농가에 분양을 하는데 1칸당 3두씩 농가가 나와서 추천하여 배정을 받게 되며 이번 경매에서는 8농가가 추천을 할 예정이며 이 사업은 금년 9월은 넘어야 분양이 완료될 계획이라고 한다.



<사진5> 주인을 기다리는 암송아지 1농가당 3두배정(필자촬영)

송아지 가격과 관계없이 농가에서 소만 열심히 키우면 2년 후에는 어미소가 한 마리 생기는 사업이니까 농가에서도 좋고, 축협도 금전적으로 따져보면 손실이 발생하지만 우량암소를 육성하는 방향으로 활용을 한다면 비람직한 사업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한우를 기르는 농가에서도 현재의 여건을 잘 판단하여 두수의 확장에 힘을 기울이기 보다는 능력이 좋은 암소를 사육하면서 좋은 송아지를 많이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단단하게 다질 필요가 있다.

5. 맺음말

사람냄새가 물씬 풍기는 우시장이만 들어지면 더 좋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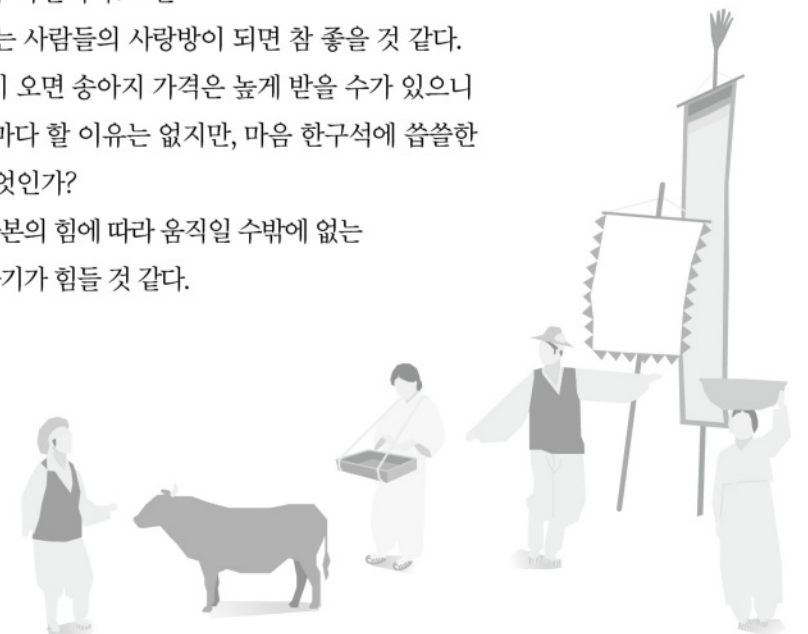
송아지를 팔려고 나온 농가와 좋은 송아지를 고르려고 두 눈에 힘을 주어가며 이리저리 바쁘게 오가는 농가가 함께 모여서 각종 정보도 교환하며 우리 송아지와 다른 집 송아지를 보면서 잘 키운 농가의 경험담도 듣고, 국밥집에 앉아서 막걸리라도 한



<사진6> 옛날 우시장(사람이 소보다 3배는 많아 보임) 자료:네이버(인터넷)

잔씩 걸치는 소 키우는 사람들의 사랑방이 되면 참 좋을 것 같다. 대규모 구매자가 많이 오면 송아지 가격은 높게 받을 수가 있으니 생산농가도, 축협도 마다 할 이유는 없지만, 마음 한구석에 쓸쓸한 기분이 드는 것은 무엇인가?

이제는 한우산업도 자본의 힘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는 눈앞의 현실을 외면하기가 힘들 것 같다.



김재경 원장의 **한우 키포인트** **이것만은 꼭!**

많은 농가가 한우를 사육하다 보면 헛갈리거나 중요한 부분들을 놓치면서 소들을 키우고 있는 것 같다. 오랜 기간 수의사 생활을 하면서 현장에서 느낀 노하우들과 현재 '소앤소 김재경 원장'이라는 네이버 밴드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자주 받는 질문들을 바탕으로 한우 농가들이 쉽게 질병이나 사양관리를 할 수 있도록 연재를 해보려고 한다.



임신중독에 의한 암소 다리 부종



Q 분만 예정일이
2주 정도 남은
2산인 어미 소가
3주 전부터 먹지도 않고
자주 누워만 있고
다리가 많이 부어 있습니다.

아버지는 그냥 밥을 안 먹는다 생각하고
방치하셨다고 하는데
상태가 더 나빠지는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어떤 조치를 하면 좋을까요?

A 다리가 붓는 경우는
원인이 다양할 수 있겠으나,
임신말기에는
보통 임신 중독에 의해
다리가 붓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임신 중독은 대개
임신말기에 영양부족으로
발생하는데 식욕부진,
의기소침 등의 행동을
보이고 심한 경우
폐사를 일으키기도 하는
질병입니다.

특히 쌍태임신일 때 발생 가능성이 큼니다. 아무래도 쌍둥이의 경우에는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데, 뱃속에 태아들이 장기들을 압박하여 각 장기로 가는 혈류량이 적어지면서 식욕부진뿐만 아니라 다리를 붓게 합니다. 임신한 소는 필요한 에너지를 보충하기 위해 간에서 포도당 합성을 증가시킵니다. 하지만 영양부족인 임신한 소는 체지방을 동원하여 포도당을 합성하면서 간 기능이 저하되고, 케톤체가 쌓이게 되어 간에 지방이 축적되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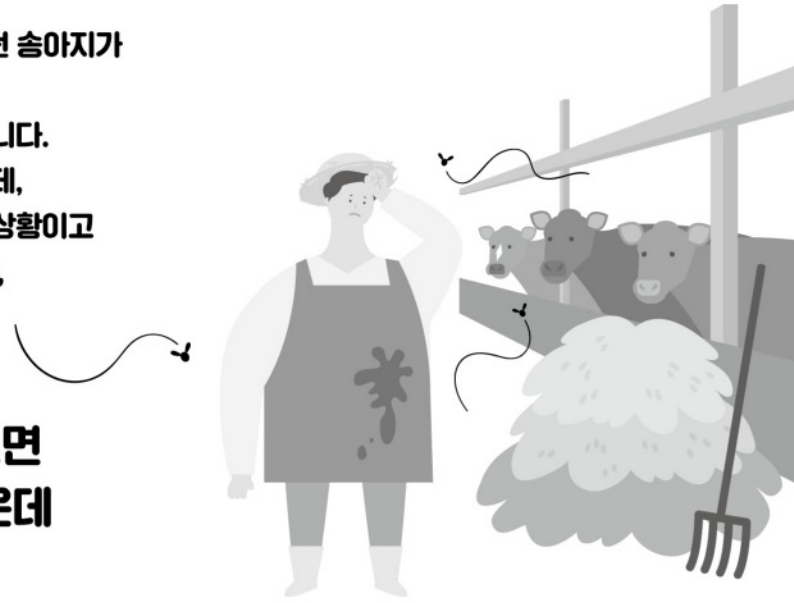
임신 중독이 발생하면
치료가 어려워서,
치료보다는 예방이
우선입니다.

임신 7개월까지는 어미소가 너무 살찌지 않도록 사료를 잘 관리를 하고, 임신 8~9개월 때는 농후사료를 평상시보다 1kg 내에서 증량해서 영양이 부족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식욕부진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비타민A를 1달에 1번 주사(100만 IU)하거나 매일 급여(4만 IU)하고, 카르니틴 성분의 식욕 촉진제를 주사하는 것도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Q 원장님 2일 전 저녁까지 괜찮았던 송아지가
어제 아침에 설사를 심하게 해서
기력도 없고 눈도 들어간 상태입니다.
상태를 보면 수액을 놓아야 하는데,
주말이라 수의사를 부르기 힘든 상황이고
혈관 수액을 몇 번 시도 해봤지만,
너무 어렵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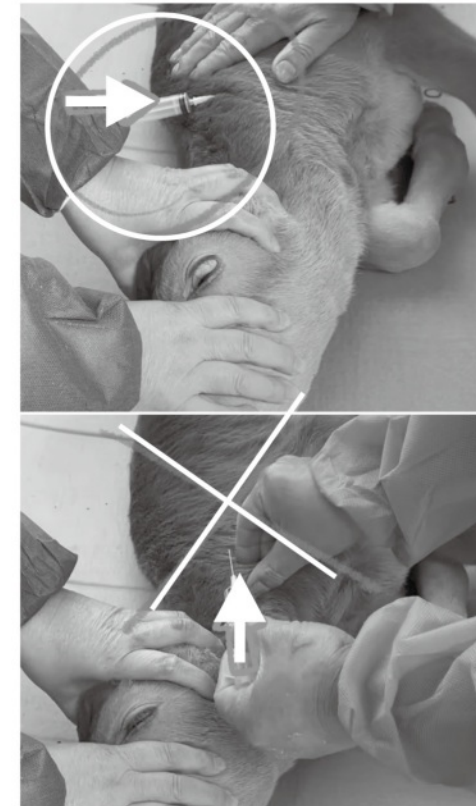
**혹시 수액을 쉽게
투여하는 방법이 있으면
한번 도전해 보고 싶은데
조언 부탁드립니다.**



일단 송아지에게 수액을 투여하는 가장 큰 이유는 탈수 때문인데, 혈관으로 수액을 투여하기
힘든 경우라면 피하주사의 방법으로 투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방법은 매우 간단한데, 목 쪽에 피부를 잡아당겨서 피부와 근육 사이에 바늘을 꽂아 수액을
넣는 방법입니다. 단, 송아지 수액 주사 시 주의해야 할 점이 두 가지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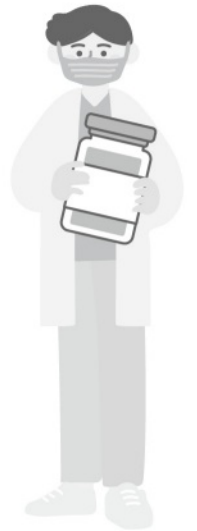


첫째,
등과 평행한 방향으로
바늘을 넣게 되면 바늘이
피부 밖으로 빠져나올 수가
있으므로 바늘은 등과
수직이 되도록
아래 방향으로 바늘을
넣어주어야 합니다.



수액주사의 방향을 쉽게 보여주기 위해
수액 바늘이 아닌 주사기를 사용

둘째, 올바른 수액의 선택입니다.
농가에서는 보통 생리식염수, 포도당, 하트만
등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
은 분이 생리식염수보다는 무언가 첨가되어있
는 포도당이나 하트만을 막연하게 더 좋게 생
각하는데, 상황에 맞지 않는 수액의 선택은 오
히려 송아지를 더 안 좋은 상태로 만들게 됩니
다. 단순 탈수 보정을 위해서는 생리식염수를,
산증 교정이 필요한 경우 하트만을 사용하지
만, 농가에서는 혈액검사를 통한 정확한 진단
이 어려워



가장 기본적으로
선택해야 할 수액은 바로
'5% 당가 식염수'입니다.

당가 식염수는 말 그대로 포도당이 첨가되어
있는 생리식염수를 뜻합니다. 만약 당가 식
염수를 구하기 어려운 경우 생리식염수 1L
에 50% 포도당을 100mL 첨가해서 사용하
면 5% 당가 식염수를 쉽게 만들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수액의 용량은 3L까지 사용하
면 되고, 수액이 들어가면서 피부가 부어오
르면 잘 문질러 주면서 주사하면 크게 문제
없이 수액을 놓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혈관
주사는 수액 1L를 대략 3시간에 걸쳐서 천천
히 투여해야 하지만, 수액을 피하로 투여할
때는 속도 상관없이 투여 하시면 됩니다.

한우산업 안정화를 위해 미경산우 비육지원사업 적극 동참 필요



글. 본회 유통사업국
황남현 주임

사육두수는 한우가격을 결정짓는 요소 중 가장 클 것이다.

사육두수 증가 시 한우가격은 하락했고, 이는 바로 농가의 피해로 이어져 왔다. 이런 악순환을 종식시키고, 농가의 피해를 연착륙시키기 위해 전국한우협회는 2019년부터 저능력 미경산우 비육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올해의 경우 사육규모 지속 증가로 인해 '24~'26년 도축마릿수가 100만 마리 내외 수준에서 형성되어 해당 기간 도매가격(거세우)은 경영비 수준 이하로 하락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송아지를 낳지 않는 미경산우로 조기 비육 도축시켜 적정 사육두수를 유지함으로 선제적 수급조절 대응을 하고

자 하는 것이 본 사업의 목적이다.

올해는 '24~'26년 도축두수 증가에 따른 농가의 피해가 심히 우려되는 바 8월 1일부터 한우협회에서는 미경산우를 중심으로, 농협은 경산우를 중심으로 농가 신청을 접수하며, 자율감축사업은 한우협회와 농협 모두 접수할 예정이다.

저능력 미경산우 비육지원 사업은 1.5천두 대상으로 진행되며 농가 1두당 20만원씩 최대 40두까지 신청 가능하며, 36개월령 안에 미경산우 도축하면 도축확인 후 지급된다.



저능력 경산우 비육지원 50개월령 이하 경산우를 대상으로 하고, 1두당 18만원(지역축협 2만원 별도)+보증수수료 정액 신청권 또는 보전금 지급농가 대비 2배 많은 정액 신청권을 선택하여 접수할 수 있다. 우리 협회와 농협 경제지주에서 모두 시행되는 자율감축 사업은 신청공고일 기준 20개월령 이하 미경산우, 60개월령 이하 경산우를 대상으로 한다. 미경산우, 경산우 비육지원 사업과 별도로 신청 가능하며 농가당 최대 40두 신청 가능하며 신청 두수 규모에 따라 보증수수료의 정액신청권을 가질 수 있다. 농촌경제연구원의 수급전망 등에 따르면 2023년 한우 도축마릿수가 평년 수준보다 23% 증

가한 92만 1000마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등 선제적 수급조절이 시급하다는 판단이 분분한 가운데 이러한 선제적 대응을 통해 수급조절의 시작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4~'26년 도축마릿수가 기존에 비해 1~2% 감소할 것 예상) 해당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에 도축마릿수가 한시적으로 늘어날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한우 가격 안정화 효과를 발생시킬 것으로 보고 있다.

사료가격이 날이 갈수록 올라가고 있는 지금, 한우가격 안정화를 위해 암소수급조절 사업에 한우농가 모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지금이다.

암소수급조절 안내표(아래 참조)

구분	저능력 미경산우 비육지원	암소 비육지원	자율감축
접수처	전국한우협회 시군지부	지역축협	한우협회 시군지부 + 지역축협
지원내용	마리당 20만원	① 마리당 18만원 (지역축협 2만원 별도) ② 우수정액 별도신청권 마리당 2.8str (3마리 이상부터 지원) ①, ② 중 택일	우수정액 별도신청권 마리당 1.4str (3마리 이상부터 지원) <정액 구매 대금은 농가 부담>
대상 개체 (신청공고일 기준)	14개월령 이하	50개월령 이하	미경산우 : 20개월령 이하 경산우 : 60개월령 이하
지급 시기 (신청공고일 기준)	36개월령 이하 미경산우로 도축 후 지급	6~11개월 이하 도축 후 지급	미경산우 : 36개월령 이하 도축 경산우 : 6~11개월 이하 도축
신청한도	농가당 최대 40마리	농가당 최대 40마리	농가당 최대 40마리
제외 대상 농가 및 개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년(19.1.1~21.12.31)동안 송아지 생산이력이 없는 농가 - 3년(19.1.1~21.12.31)동안 미경산우 또는 경산우 181마리 이상 출하 농가 - 신규농가(21.1.1 이후 축산업 등록한 자)는 송아지 실적 면제되나 미경산우 또는 경산우 연간 6마리 이상 출하 시 제외(법인 포함) - 이전 저능력 미경산우 비육지원 사업 약정 미이행자 (농가보전금 반납 시 사업참여 가능) - 농협 한우개량사업소에서 시행하고 있는 「한우암소검정 사업의 저능력암소 조기 도태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 신청(약정) 후 해당개체를 양도하더라도 도축기간 내 도축 시 신청인에게 지급 - 프리마틴, 신청농가와 소유주 불일치 개체 		

※ 본사업은 2022년 8월 1일부터 시행예정이며, 세부사항은 일부 조정될 수 있음.

남인식 작가의

소가사는세상



**‘미국산 소고기’의
햄버거 패티는
100마리 이상의
소고기를 섞어 쓴다.**

미국에서 ‘미국산 소고기(Product of the USA)’라고 표시된 소고기 중에는 외국에서 사육된 후 미국에서 도축되어 가공된 소고기도 있으며, 심지어 외국에서 도축되어 포장 가공된 소고기도 미국에서 수입된 후 다시 재포장되면 미국산이라고 표시될 수 있다고 미국 유명 건강 관련 잡지 이티엔티(ETNT)가 최신호에서 밝혔다.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소고기 가공업체가 밝히고 싶지 않은 7가지 비밀’이라는 내용 중에는 미국에서 많이 소비되는 햄버거용 패티는 소고기의 주요 소비처인데, 일반인이 생각하는 것과 달리 맛을 내기 위하여 여러 마리의 고기를 혼합하여 만들며, 맥도날드사는 자사 홈페이지에 햄버거용 패티는 100마리 이상의 소고기를 섞어서 쓴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육류업체에서는 소고기를 매장에서 더 신선하게 보이도록 붉은색으로 염색을 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비닐 포장할 때 공기를 빼내고 이산화 탄소나 질소는 물론 일산화탄소로 충진을 하여, 인체에는 무해한 것은 확인되었으나 고기의 붉은 색을 더 오래 유지하게 하는 것은 사실이다.

이와 함께 고기를 원료로 사용하는 식품 업체들은 자신들의 고기를 어디서 조달하는지를 밝히고 있지 않으며, 이를 의무화하

는 관련 규정도 없고, 비육우가 통상 2년 정도 사육 후 도축되는 데 비해 젖소도 2살부터 2년에서 3년 정도 착유를 한 후 똑같이 도축되어 소고기가 유통되고 있다고 전하고 있다. 또한, 비육우 사육과정에서 질병 치료목적으로 항생제를 쓰고 있으며, 건강한 소에도 빠른 체중증가를 위해 저용량의 항생제를 쓰는 경우가 많다고 인용하고 있는데, 다만 미국 정부 지침은 육류 전환 시점에 항생제 잔류는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지구 온난화에 소 산업의 영향에 대해서는 많이 알려져 있는데, 영국 언론 매체에 따르면 축산업이 전체 온실가스의 14%를 차지하고, 이 중에 비육우가 41%, 젖소가 20% 정도를 기여하는 것으로 인용하였다.



풀사료 비육 소고기, 곡물 비육 소고기와 영양 차이 거의 없어

2022년 1월 기준 9,200만두의 소를 사육하고 있는 미국에서 도축하기 전에 일정 기간 곡물 사료를 먹인 소고기와 풀사료만을 급여한 고기 사이에 맛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영양학적으로 어느 것이 더 좋고 건강에 더 유익하다고 할 수 없으며, 환경 영향 측면에서도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미국 오클라호마 주립대학(Oklahoma State University) 축산식품학과 연구진이 발표하였다.

통상 미국에서 사육되는 비육우의 97% 정도는 출하되기 160~180일 전후로 집단 사육시설에서 곡물 사료 위주로 비육 되는데, 출하 체중의 50% 이상이 이 시기에 형성되며, 평균적으로 생후 15개월령에 출하 도축된다. 반면에 풀사료 사육방식은 도축 시까지 풀사료만을 급여하는 방식으로, 급여되는 영양소 함량의 차이로 출하 월령이 더 길어 18개월령에서 24개월령 사이에 출하되며, 출하 체중도 곡물 사육할 때는 600kg 전후인 반면 550kg 전후로 알려져 있다.

연구진은 일반적으로 풀사료 급여 소고기가 비타민과 미량광물질의 함량

이 높고 포화 지방산의 함량이 약간 낮은 것은 사실이나 그 수준 자체로 곡물 사육한 고기에 비해 더 건강에 좋다고 할 수는 없는 수준이라며, 반면에 곡물 사육을 한 고기는 근육 내 지방함량이 더 축적되어 풍미가 있고 조직감, 육즙이 많아 맛이 좋다고 느낀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어떤 고기가 더 좋으나 하는 문제는 개인의 취향으로 미국 내 전체 소고기 시장에서 풀사료만을 급여한 고기 소비량이 5% 정도에 불과한 점도 언급하였다. 또한 환경 영향 측면에서도 풀사료 사육 소고기는 더 오랜 기간 사육하면서도 출하 체중은 크지 않아 단기 비육하는 곡물 사육방식과 비교해 환경에 더 많은 영향 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미국 내에는 비육우 집중 사육 시설이 3만여 개 이상이 있으나, 1천두 미만이 93%에 이르고, 출하 물량 기준으로는 1천 두 이상을 수용하는 대규모 시설에서 전체 출하 우의 85%를 차지하며, 그중에 3만2천 두 이상의 대형 시설에서 전체 시장의 40%를 장악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22

6월 한우동향분석

글. 전국한우협회 한우정책연구소

(한우사육) 2022년 6월 한우 사육두수 및 가임암소 두수 전월·전년 동월 대비 증가, 수급 안정화를 위한 암소 자육감축 필요

- 한우 사육두수 전월 대비 1.59% 증가, 전년 동월 대비 4.99% 증가
- 가임암소는 전월 대비 1.55% 증가, 전년 동월 대비 5.27% 증가
- 연령별 사육두수 전년 동월 대비 1세 미만은 4.28% 증가, 1세~2세 5.05% 증가, 2세 이상 5.41% 증가

(등급판정) 5월 한우 등급판정두수 전월 대비 감소, 전년 동월 대비 증가

- 1등급 이상 출현율 74.4% 전월 대비 동일, 전년 동월 대비 증가
- - 1++등급 : 24.3%, 1+등급 : 25.2%, 1등급 : 24.9%

(도매 및 산지가격) 5월 한우 도매 평균 도매가격 전월 대비 상승, 전년 동월 대비 하락, 큰 소·송아지 모두 전년 동월 대비 하락, 큰소 암소 제외 전월 대비 상승

- 한우 도매 kg당 평균 도매가격은 전월 대비 1.0% 상승, 전년 동월 대비 8.2% 하락

(배합사료·정액판매) 배합사료 생산량 전년 동기 대비 증가, 정액 판매량 전년 동기 대비 감소

- 5월 배합사료 생산량은 전년 동월 대비 14.7% 증가
- 5월 정액판매량 전년 동월 대비 1.4%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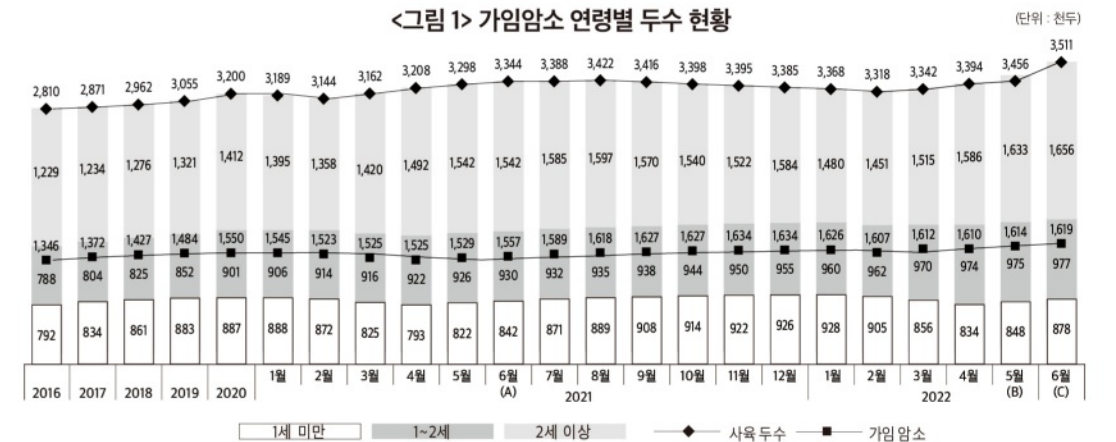
(쇠고기 수입) 5월 쇠고기 수입량은 전월 대비 22.9% 증가

- 전체 쇠고기 수입량은 전월 대비 22.9% 증가, 냉장육 수입량 14.4% 증가, 냉동육 수입량 25.3% 증가

1. 한우 사육동향

☑ 2022년 6월 한우 사육두수 및 가임암소 두수 전년 동월 및 전월 대비 증가, 한우 수급 안정화를 위한 암소 자육적 감축 필요

- 한우 사육두수는 351만 1천 두로 전년 동월(334만 4천 두) 대비 4.99%(16만 7천 두) 증가, 전월(345만 6천 두) 대비 1.59%(5만 3천 두) 증가
- 가임암소는 163만 9천 두로 전년 동월(155만 7천 두) 대비 5.27%(8만 2천 두) 증가, 전월(161만 4천 두) 대비 1.55%(2만 5천 두) 증가
- 연령별 사육두수는 전년 동월 대비 1세 미만은 4.28%(3만 6천 두), 1~2세는 5.05%(4만 7천 두), 2세 이상은 5.41%(8만 5천 두) 증가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물이력제 '소이력관리현황'

- 사육 농장수는 89,153농장으로 전년 동월(89,576농장) 대비 0.47%(423농장) 감소, 전월(89,242농장) 대비 0.10%(89농장) 감소
- 농장 당 사육두수는 39.4 두로 전년 동월(35.4 두) 대비 11.3%(4.0 두) 증가, 전월(38.7두) 대비 1.81%(0.7두) 증가

<표 1> 한우 사육 현황

(단위 : 호, 천두, %, 두)

구분	농장수	사육두수	가임암소두수	송아지두수	연령별 두수			농장당 사육두수
					1세 미만	1~2세	2세 이상	
2016	97,498	2,810	1,346	723	792	788	1,229	28.8
2017	94,107	2,871	1,372	784	834	804	1,234	30.5
2018	92,238	2,962	1,427	899	861	825	1,276	32.1
2019	89,616	3,055	1,484	135	883	852	1,321	34.1
2020	88,879	3,200	1,550	55.5	887	901	1,412	36

구분		농장수	사육 두수	가임 암소두수	송아지 두수	연령별 두수			농장당 사육두수
						1세 미만	1~2세	2세 이상	
2021	1월	88,933	3,189	1,545	58.2	888	906	1,395	35.9
	2월	88,860	3,144	1,523	65.1	872	914	1,358	35.4
	3월	89,003	3,162	1,525	79.7	825	916	1,420	35.5
	4월	89,295	3,208	1,525	131.5	793	922	1,492	35.9
	5월	89,494	3,298	1,529	142.5	822	926	1,542	36.8
	6월(A)	89,576	3,344	1,557	123.8	842	930	1,571	35.4
	7월	89,617	3,388	1,589	101.7	871	932	1,585	37.8
	8월	89,658	3,422	1,618	88.7	889	935	1,597	38.2
	9월	89,678	3,416	1,627	77.9	908	938	1,570	38.1
	10월	89,645	3,398	1,627	67.2	914	944	1,540	37.9
	11월	89,657	3,395	1,634	62.7	922	950	1,522	37.9
	12월	89,720	3,385	1,634	59.7	926	955	1,504	37.7
2022	1월	89,559	3,368	1,626	61	928	960	1,480	37.6
	2월	89,378	3,318	1,607	58.2	905	962	1,451	37.1
	3월	89,378	3,342	1,612	44.1	856	970	1,515	37.4
	4월	89,343	3,394	1,610	87.7	834	974	1,586	38.0
	5월(B)	89,242	3,456	1,614	89.5	848	975	1,623	38.7
	6월(C)	89,153	3,511	1,639	78.6	878	977	1,656	39.4
증감률	전년동월(C/A)	△0.47	4.99	5.27	△36.51	4.28	5.05	5.41	11.30
	전월(C/B)	△0.10	1.59	1.55	△12.18	3.54	0.21	1.41	1.81

자료 : 통계청, 축산물품질평가원

2. 한우 등급판정 동향

☑ 5월 한우 등급판정두수 전월 대비 감소, 전년 동월 대비 증가

- 5월 한우 등급판정두수는 67,373두로 전월(68,170두) 대비 1.2%(797두) 감소, 전년 동월(54,345두) 대비 24.0%(13,028두) 증가

- 성별비율은 암소 49.7%, 수소 0.7%, 거세우 49.5%

* 전월대비 : 암소 1.5%p↑, 수소 0.1%p↓, 거세우 1.5%p↓, 거세율 동일

<표 2> 한우 성별 등급판정두수

(단위 : 두, %)

구분	계	암	수	거세	수소거세율
전년누계 (‘21.1.~5월)	315,154	143,507	3,808	167,839	97.8
	100.0	45.5	1.2	53.3	
금년누계 (‘22.1.~5월)	339,585	155,641	2,824	181,120	98.5
	100.0	45.8	0.8	53.3	

구분	계	암	수	거세	수소거세율
전년동월 (‘21.5월)	54,345	26,577	521	27,247	98.1
	100.0	48.9	1.0	50.1	
전월(‘22.4월)	68,170	32,846	526	34,798	98.5
	100.0	48.2	0.8	51.0	
당월(‘22.5월)	67,373	33,502	492	33,379	98.5
	100.0	49.7	0.7	49.5	

자료 : 축산물품질평가원 '등급판정통계'

☑ 5월 한우 등급판정 결과 육질 1등급 이상 출현율 74.4%, 전월 대비 동일, 전년 동월 대비 증가

- 5월 1등급 이상 등급별 출현율은 1++등급 24.3%, 1+등급 25.2%, 1등급 24.9%
 - 1등급 이상 전체 출현율은 전월(74.4%) 대비 동일, 1++등급 0.5%p↓, 1+등급 0.3%p↑, 1등급 0.3%p↑
 - 전년 동월(73.4%) 대비 1등급 이상 전체 출현율 1.0%p↑, 1++등급은 2.4%p↑, 1+등급 0.4%p↓, 1등급은 1.0%p↓
 - 전년 누계(74.5%) 대비 1등급 이상 전체 출현율 0.9%p↑, 1++등급은 2.7%p↑, 1+등급은 0.5%p↓, 1등급은 1.4%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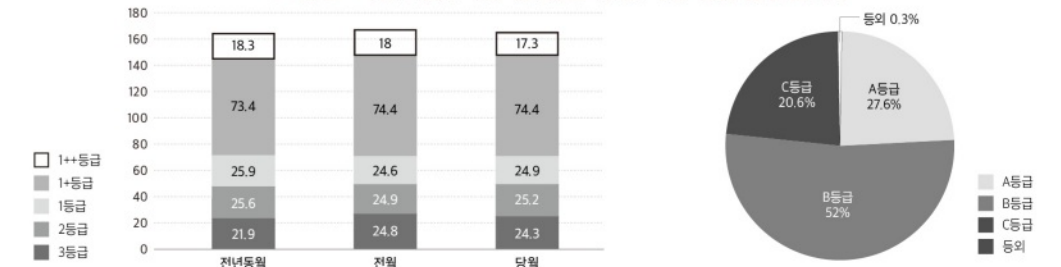
<표 3> 한우 등급별 출현율 추이

(단위 : 두, %, %p)

구분		판정두수	육질등급						육량등급			등외
			1++	1+	1	소계	2	3	A	B	C	
2016		737,476	9.6	30.4	29.4	69.3	22.8	7.6	22.9	47.2	29.6	0.2
2017		742,536	10.1	33.3	28.7	72.1	20.3	7.4	21.2	47.1	31.4	0.3
2018		736,354	12.2	30.4	30.4	72.9	19.4	7.3	20.5	47.6	31.7	0.3
2019		765,297	15.7	28.3	29.9	74.0	18.6	7.1	20.7	48.2	30.8	0.3
2020		762,749	22.5	25.5	26.1	74.1	18.2	7.4	25.0	50.5	24.2	0.3
2021		794,238	23.8	25.8	25.3	74.9	17.5	7.3	24.4	52.4	23.0	0.3
2021	5월(A)	54,345	21.9	25.6	25.9	73.4	18.3	8.0	24.0	53.2	22.5	0.3
	1~5월(B)	315,154	22.7	26.0	25.9	74.5	17.9	7.3	23.6	51.9	24.2	0.3
2022	'21.4월(C)	68,170	24.8	24.9	24.6	74.4	18.0	7.4	25.6	52.6	21.6	0.2
	5월(D)	67,373	24.3	25.2	24.9	74.4	17.3	7.9	27.6	52.0	20.1	0.3
	1~5월(E)	339,585	25.4	25.5	24.5	75.4	17.1	7.3	24.8	52.3	22.7	0.2
전월대비(D-C)		△797	△0.5	0.3	0.3	0.0	△0.7	0.5	2.0	△0.6	△1.5	0.1
전년동월대비(D-A)		13,028	2.4	△0.4	△1.0	1.0	△0.1	△0.1	3.6	△1.2	△2.4	0.0
전년누계대비(E-B)		24,431	2.7	△0.5	△1.4	0.9	△0.8	0.0	1.2	0.4	△1.5	△0.1

자료 : 축산물품질평가원 '등급판정통계'

<그림 2> 육질 1등급 이상 출현율(좌) 및 육량 등급 출현율(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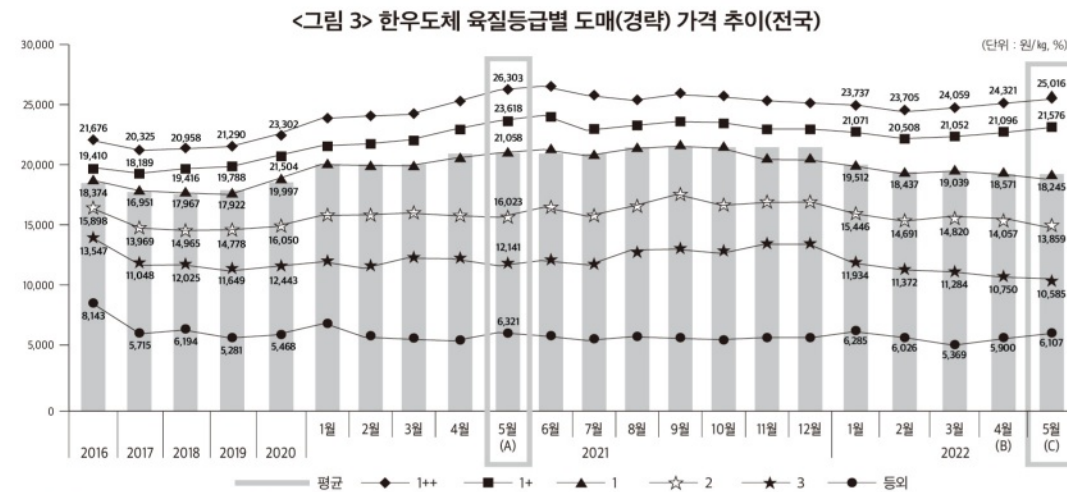


자료 : 축산물품질평가원 '등급판정통계'

3. 한우 도매 및 산지가격 동향

☑ 5월 한우 평균 도매가격 전월 대비 상승, 전년 동월 대비 하락

- 5월 1등급 기준 도매가격(18,245원/kg)은 전월(18,571원/kg) 대비 1.8%(326원/kg) 하락, 전년 동월(21,058원/kg) 대비 13.4%(2,813원/kg) 하락
- 한우도체 kg당 평균 도매가격(19,503원/kg)은 전월(19,312원/kg) 대비 1.0%(191원/kg) 상승, 전년 동월(21,247원/kg) 대비 8.2%(1,744원/kg) 하락



<표 4> 한우도체 육질등급별 도매(경락) 가격 추이(전국)

(단위 : 원/kg,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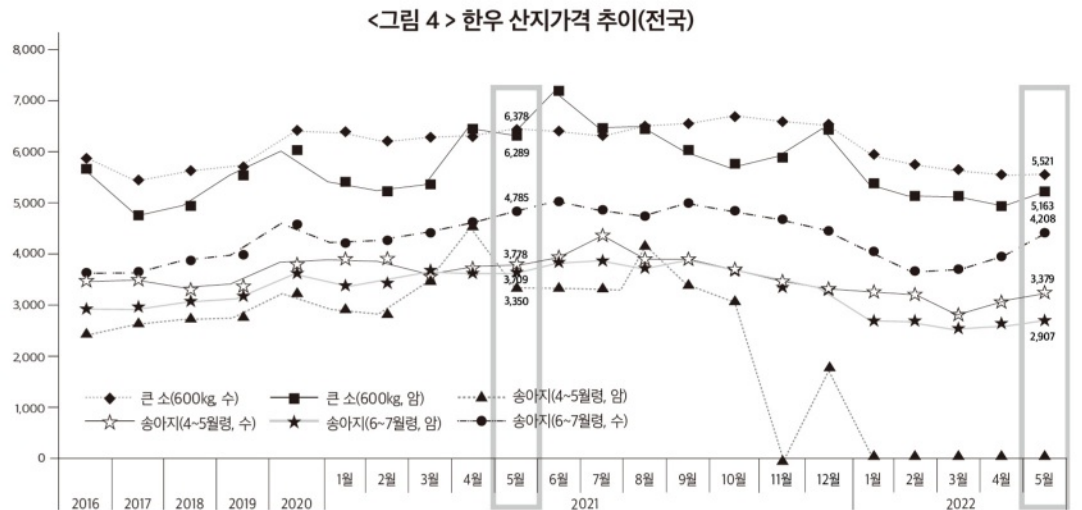
구분		1++	1+	1	2	3	등외	평균
2016		21,676	19,410	18,374	15,898	13,547	8,143	18,116
2017		20,325	18,189	16,951	13,969	11,048	5,715	16,719
2018		20,958	19,416	17,967	14,965	12,025	6,194	17,772
2019		21,290	19,788	17,922	14,778	11,649	5,281	17,965
2020		23,302	21,504	19,997	16,050	12,443	5,468	19,891
2021	5월(A)	26,303	23,618	21,058	16,023	12,141	6,321	21,247
2022	4월(B)	24,321	21,096	18,571	14,057	10,750	5,900	19,312
	5월(C)	25,016	21,576	18,245	13,859	10,585	6,107	19,503
증감율	전년동월(C/A)	△4.9	△8.6	△13.4	△13.5	△12.8	△3.4	△8.2
	전월(C/B)	2.9	2.3	△1.8	△1.4	△1.5	3.5	1.0

자료 : 축산물품질평가원 '등급판정통계'

☑ 5월 한우 산지가격 큰소와 송아지 모두 전년 동월 대비 하락, 큰소 암소 제외 전월 대비 상승

- 5월 큰소(600kg) 산지가격은 암소의 경우 5,521천원으로 전월(5,600천원) 대비 1.4%(79천원) 하락, 전년 동월(6,379천원) 대비 13.5%(858천원) 하락

- 수소의 경우 5,163천원으로 전월(4,967천원) 대비 3.9%(196천원) 상승, 전년 동월(6,289천원) 대비 17.9%(1,126천원) 하락
- 5월 송아지(6~7개월령) 산지가격은 암송아지의 경우 2,907천원으로 전월(2,868천원) 대비 1.4%(39천원) 상승, 전년 동월(3,778천원) 대비 23.1%(871천원) 하락
- 수송아지의 경우 4,208천원으로 전월(4,001천원) 대비 5.2%(207천원) 상승, 전년 동월(4,785천원) 대비 12.1%(577천원) 하락



<표 5> 한우 산지가격 추이

(단위 : 천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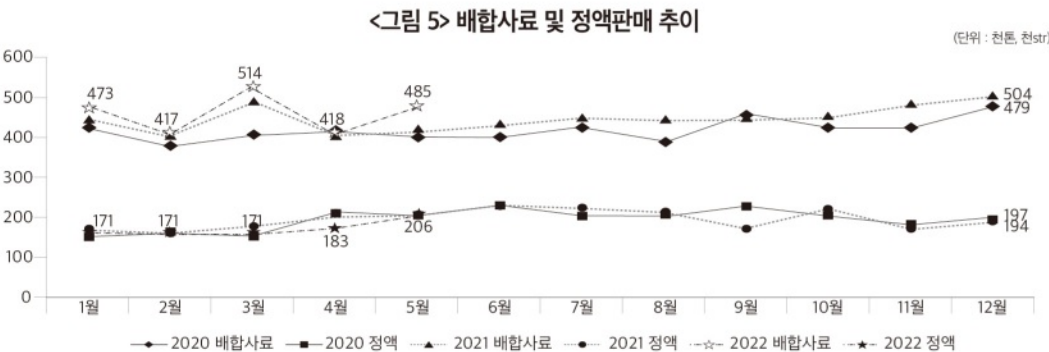
구분		큰소(600kg)		송아지(4~5월령)		송아지(6~7월령)	
		암	수	암	수	암	수
2016		5,816	5,650	2,465	3,485	2,900	3,550
2017		5,406	4,733	2,612	3,444	2,919	3,572
2018		5,599	4,911	2,725	3,272	3,118	3,841
2019		5,646	5,476	2,790	3,394	3,212	3,930
2020		6,114	5,446	3,060	3,711	3,435	4,295
2021	1월	6,372	5,372	2,990	3,877	3,402	4,196
	2월	6,209	5,207	2,880	3,891	3,436	4,263
	3월	6,263	5,348	3,500	3,641	3,594	4,328
	4월	6,322	6,434	4,500	3,597	3,729	4,562
	5월(A)	6,379	6,289	3,350	3,709	3,778	4,785
2022	1월	6,026	5,370	-	3,329	2,864	3,842
	2월	5,882	5,148	-	3,198	2,862	3,640
	3월	5,701	5,154	-	2,893	2,735	3,683
	4월(B)	5,600	4,967	-	3,048	2,868	4,001
	5월(C)	5,521	5,163	-	3,379	2,907	4,208
증감율	전년동월(C/A)	△13.5	△17.9	-	△8.9	△23.1	△12.1
	전월(C/B)	△1.4	3.9	-	10.9	1.4	5.2

자료 : 농협 축산정보센터 '월별산지가격동향'

4. 배합사료 생산 및 한우정액 판매 동향

☑ 2022년 5월 배합사료 생산량 전년 동기(423천 str) 대비 증가 한우 정액판매량 전년 동기(209천 str) 대비 감소

- 5월 배합사료 생산량은 485천 str으로 전년 동기(423천 str) 대비 14.7% (62천 str) 증가
- 5월 한우 정액판매량은 206천 str로 전년 동기(209천 str) 대비 1.4% (3천 str) 감소



자료 : 한국사료협회, 농협경제지주 한우개량사업소

표 6> 배합사료 및 정액판매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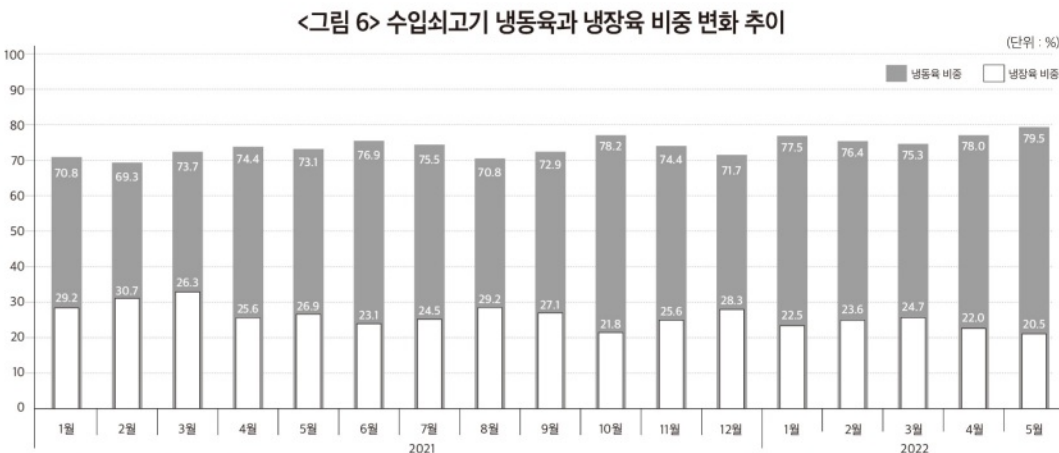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배합사료	2020	426	384	412	414	404	402	427	390	457	428	430	479	5,053
	2021	442	406	490	406	423	435	451	444	451	453	482	504	5,387
	2022	473	417	514	418	485								2,307
정액	2020	157	168	155	213	207	231	207	211	227	205	186	194	2,361
	2021	172	162	179	209	209	233	226	214	183	220	170	197	2,374
	2022	171	171	171	183	206								897
	2022	171	171	171	183	206								897

자료 : 한국사료협회, 농협경제지주 한우개량사업소

5. 쇠고기 수입현황

☑ 2022년 5월 쇠고기 수입량은 전월 대비 22.9%(8,314톤) 증가, 전년 동월 대비 12.2%(4,854톤) 증가

- 5월 쇠고기 수입량은 4만 4,669톤으로 전월 36,355톤 대비 22.9%(8,314톤) 증가, 전년 동월 3만 9,815톤 대비 12.2%(4,854톤) 증가
 - 전월 대비 냉장 및 냉동 쇠고기 각각 14.4%(1,149톤), 25.3%(7,165톤) 증가
- 5월 부위별 쇠고기 수입물량은 전월 대비 등심 18.7%(550톤), 양지 27.4%(2,041톤), 갈비 16.8%(2,428톤), 앞다리 13.9%(568톤) 증가
- 5월 국가별 쇠고기 수입량은 전월 대비 미국산이 16.1%(3,404톤) 증가, 호주산이 39.4%(3,878톤) 증가, 기타 국가에서 19.3%(1,032톤) 증가



자료 : 수입축산물 부위별 검사실적, 식품의약품안전처

구분		물량			부위별					국별			
		합계	냉동	냉장	갈비	양지	앞다리	등심	기타	미국	호주	기타	
2015		297,265	245,952	51,313	115,460	38,582	31,404	42,826	68,993	112,431	164,063	20,771	
2016		361,531	301,219	60,312	133,197	35,049	45,295	50,001	97,989	153,181	177,530	30,820	
2017		344,271	265,665	78,606	142,659	37,517	42,648	39,031	82,416	168,502	149,935	25,834	
2018		415,685	326,531	89,154	151,933	53,737	54,270	55,595	100,150	219,769	167,454	28,462	
2019		426,626	339,240	87,386	164,792	57,444	53,881	49,849	100,660	237,624	163,158	25,844	
2020		419,469	321,646	97,823	161,018	54,616	54,937	44,522	104,376	228,686	158,293	32,490	
2021	1월	34,626	24,503	10,123	11,799	5,164	4,810	3,112	9,741	17,111	14,676	2,839	
	2월	26,774	18,547	8,227	10,308	4,057	3,688	2,263	6,458	18,797	5,585	2,392	
	3월	41,272	30,406	10,866	13,090	7,874	5,548	4,256	10,504	21,154	16,657	3,461	
	4월	37,495	27,888	9,607	13,334	5,640	4,848	3,744	9,929	20,470	13,298	3,727	
	5월(A)	39,815	29,116	10,699	12,337	5,640	5,240	4,426	12,172	20,794	16,220	2,801	
	6월	36,991	28,430	8,562	12,020	5,384	4,740	3,642	11,205	23,288	11,009	2,694	
	7월	38,455	29,032	9,423	13,073	3,978	5,279	2,681	13,444	21,096	14,516	2,843	
	8월	37,402	26,487	10,915	14,018	4,247	4,930	4,146	10,061	24,686	9,681	3,035	
	9월	38,746	28,247	10,499	12,976	4,919	5,486	5,043	10,322	22,435	13,205	3,106	
	10월	42,494	33,249	9,244	15,505	5,723	5,488	5,144	10,634	24,630	13,952	3,912	
	11월	39,704	29,544	10,161	12,394	6,475	5,737	4,630	10,468	18,309	17,846	3,549	
	12월	39,018	27,963	11,055	12,627	6,230	4,831	3,861	11,469	22,104	13,472	3,442	
누계		452,792	333,412	119,381	153,481	65,331	60,625	46,948	126,407	254,874	160,117	37,801	
2022	1월	39,218	30,375	8,843	12,121	7,403	5,285	3,964	10,445	15,987	17,969	5,262	
	2월	34,349	26,232	8,117	13,150	6,485	4,737	2,640	7,337	22,977	8,291	3,081	
	3월	39,926	30,050	9,876	14,508	8,339	4,291	3,412	9,376	23,943	11,821	4,162	
	4월	36,355	28,367	7,988	14,449	7,439	4,073	2,940	7,454	21,141	9,854	5,360	
	5월(B)	44,669	35,532	9,137	16,877	9,480	4,641	3,490	10,181	24,545	13,732	6,392	
	누계	194,517	150,556	43,961	71,105	39,146	23,027	16,446	44,793	108,593	61,667	24,257	
증감률		전년동기(B/A)	12.2	22.0	△14.6	36.8	68.1	△11.4	△21.1	△16.4	18.0	△15.3	128.2

영국정부, 최대 슈퍼마켓의 축산모방식품 광고에 중지명령

🇬🇧 영국 광고표준위원회(ASA)는 6월 8일 영국 최대 슈퍼마켓인 테스코의 식물성 축산모방식품 광고에 대해, 환경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킨다며 상품 광고 중단을 명령

○ 이번에 ASA에 대해 171건의 민원이 접수된 것은 테스코가 2021년 10월부터 11월까지 TV와 웹에서 펼친 '플랜트 셰프' 시리즈로 불리는 광고

- 친환경이라는 제목과 함께 여성이 식물성 축산모방식품을 사용한 햄버거를 먹는다는 내용
- 웹사이트 버전에는 5회 중 1회 햄버거 쇠고기를 식물성 축산모방식품으로 바꾸면 영국에서 절약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는 차량 주행거리로 환산하면 270억 마일(434억 km)에 해당한다고 주장.

🇬🇧 ASA는 일반론으로서 사람들이 더 많은 식물유래 식사로 전환하는 것은 소비자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인정한 후 식물유래 제품 중에는 원자재의 조합이나 복잡한 제조공정이 있으며, 이러한 제품은 식육제품 등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환경부하를 가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

- 아울러 식물유래 제품 중에는 전 세계에서 다양한 원자재를 조달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 환경부하가 높은 방법으로 제조·수송된 원자재가 포함될 가능성도 지적
- 이러한 경우 식물유래 제품이 식육유래 제품보다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낮다는 것이 반드시 보증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음
- 이 때문에 ASA는 광고하는 제품의 환경에 대한 영향을 언급할 경우 모든 제조 공정에서 입증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 ASA는 테스코에 이번 플랜트 셰프 시리즈에서 선전된 식물 축산모방식품을 사용한 햄버거와 광고에 등장하는 쇠고기 햄버거에 대해 모든 제조 공정에서 이 회사의 주장이 옳다는 증거를 요구했음

※ 영국 광고표준위원회 (ASA, Advertising Standards Authority)

- 영국의 독립된 광고 규제 기관, 광고에 관한 민원이 있는 경우에는 광고 내용 등을 조사하고 광고 코드 등에 위반이 없는지 평의회에서 심사를 하고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변경 등을 가하도록 제재조치를 내린다.
- 또 민원이 평의회에 의해 지지되지 않는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그 이상의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

- 그러나 테스코 측은 '플랜트 셰프' 시리즈 제품, 혹은 광고에 등장하는 쇠고기 햄버거의 모든 제조 공정 환경부하를 파악하지 못해 식물유래 축산모방식품이 자연 식육 유래보다 더 친환경적이라는 주장을 입증하지 못함
- 때문에 ASA는 이번 광고가 소비자에 대해 오해를 줄 가능성이 높다고 결론짓고 광고 중단을 명령함

자료 : 일본 농축산업진흥기구 (22.06.30.)

중국 농업전망보고 (2022~2031) 발표

(쇠고기 편)



🇨🇳 중국 농업농촌부는 2022년 4월 20일 중국 농업전망대회를 개최해 향후 10년간 농업을 전망하는 '중국 농업전망보고(2022-2031)'를 발표

- 이 대회는 2014년부터 매년 개최됐으며 이번에는 2021년 총괄과 2031년까지 농축수산물의 생산량과 소비량 전망이 보고되었음. 본고에서는 이 중에서 쇠고기 관련 내용을 중심으로 소개함

🇨🇳 2021년 동향

- 2021년 생산량은 출하두수(4707만 마리, 전년 대비 3.1% 증가)와 지육중량(148.29kg, 0.7% 증가) 증가에서 3.7% 증가한 698만 톤으로 증가함
- 수입량은 국내 생산량 증가를 웃도는 수요로 인해, 동 10.1%증가한 233만 2,800톤 수준
 - 수입처의 특징적인 동향을 보면, 우루과이와 뉴질랜드로부터의 수입이 증가한 점과 광우병 영향(주1)으로 수입처 1위인 브라질의 점유율이 떨어짐
 - (주 1) 2021년 9월 브라질 국내에서 비정형 광우병(BSE)이 발생함에 따라 같은 해 9~12월, 중국에 대한 쇠고기 수출이 중단됨
- 소비량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책이 정착되고 국내 유행이 진정되면서 수요가 늘어난 결과 5.3% 증가한 931만 톤 수준
- 주목할 점은, 콜드 체인(냉장 물류)의 발전 등에 수반해 소비채널이나 상품의 다양화가 진전되고 있다는 사실
 - 아울러 품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소의 산지나 사육 방법이 주목 받고 있다는 점이 보고되었음
 - 쇠고기 시장가격은 수요 증가에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고, 사료 값 폭등에 따른 생산비용 상승 등으로 연중 고공행진을 이어감

2022년 동향 예측

- 2022년 생산량은 축산업진흥정책의 핵심이 되는 5개년 계획인 ‘전국 축산수의산업발전계획’(주2) 등에서 제시한 자급률 목표 달성을 위해 품종개량 및 가축질병 예방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전년 대비 1.7% 증가한 710만 톤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주 2) 본 계획에는 2025년에 쇠고기 및 양고기 자급률을 85% 정도로 한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음
- 수입량은 국내 생산으로는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고, 국산에 비해 수입 쇠고기가 저렴한 점 등으로 증가해 같은 기간 3.7% 증가한 242만 톤으로 예측됨
- 소비량은 돼지고기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돼지고기 대체수요는 약해지지만, 국민의 생활수준 향상에 견인돼, 2.2% 증가한 952만 톤으로 예측됨
- 가격은, 수요에 대해서 국내 공급 부족, 사료 코스트 상승 전망 등으로, 고가로 추이할 것으로 예측
 - 하지만 돼지고기 가격 하락이나 육우 사육 마릿수가 증가하고 있어, 큰 폭으로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

2031년까지의 동향 전망

- 생산량은 인건비나 사료비를 비롯한 생산비 상승, 환경보호 대응 등 자원·환경 요인을 고려하면 육용우 사육에 일정한 제약으로 성장률은 둔화되어, 2031년에는 772만 톤(기준기간<19~21년 평균치> 대비 13.7% 증가)이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 트레이서빌리티(생산유통 추적가능성) 도입과 가축질병 예방, 가축 배설물의 적절한 관리 등을 추진함으로써 근대화된 축산으로 발전할 것으로 전망
- 수입량은 생산량 증가와 수요증가가 점차 완만해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증가율이 둔화돼 2031년에는 284만 톤(39.2% 증가)이 될 것으로 예측
- 소비량은 생활수준 향상과 양질의 단백질로 여겨지는 쇠고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점 등으로 인해 2031년에는 1,056만 톤(19.6% 증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육류에서 차지하는 쇠고기 비중도 계속 확대될 것으로 예측
 - 그러나 고령화의 진전이나 2030년경에 중국의 인구가 정점에 이를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소비 증가율은 둔화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 이러한 가운데 전술한 바와 같이 쇠고기 생산량이 증가할 여지는 한정적이라는 점에서 가격은 높은 수준에서 추이될 것으로 예측

[쇠고기 수급동향 전망]

(단위 : 만 톤, kg/인)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31년		
					(예측)	전년비 (증감률)	(예측)	기준기간비 (증감률)	참고:21년비 (증감률)
생산량	644	667	672	698	710	1.7%	772	13.7%	10.6%
수입량	104	166	212	233	242	3.7%	284	39.2%	21.7%
소비량	748	833	884	931	952	2.2%	1,056	19.6%	13.4%
1인당 소비량	5.4	6.0	6.3	-	-	-	-	-	-

자료 : 중국 농업농촌부「농업전망보고 2022~2031」, 「농업전망보고 2020-2029」, 「농업전망보고 2019-2028」

주 : '기준기간'이란 2019~21년의 평균치 대비 증감률

자료 : 일본 농축산업진흥기구 (22.06.23.)

미국 농무부의 세계 옥수수 수급 예측

(2022년 6월)



2022/23년도 세계 옥수수, 기말 재고 전년도 수준 전망

미국 농무부 세계농업관측보드(USDA/WAOB) 및 미국 농무부 해외농업국(USDA/FAS)은 2022년 6월 10일, 2022/23년도 세계 옥수수 수급 전망치를 갱신

- 이에 따르면 세계 옥수수 생산량은 11억 8,581만 톤(전년도 대비 2.5% 감소)으로 전월보다 509만 톤 상향 조정됐지만, 사상 최고치였던 전년도에 조금 못 미칠 것으로 전망됨
 - 국가별로 보면 우크라이나의 생산량이 정부 발표에 따라 전월보다 550만 톤 상향 조정돼 이를 반영했으며,
 - 기타 주요국의 생산량은 모두 전월과 같은 수준으로 동결됨
- 수출량은 세계 전체에서 1억 8,267만 톤(7.1% 감소)으로 전월보다 3만 톤 하향 조정돼, 전년도 보다 상당한 정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
- 수입량은 전 세계에서 1억 7,668만 톤(1.5% 감소)으로 전월보다 16만 톤 하향 조정돼 전년도 보다 소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
 - 국가별로 보면 유럽연합(EU)은 밀 가격 급등 등의 영향으로, 전월보다 100만 톤 상향 조정된 반면, 모로코 요르단 및 페루 등이 하향 조정되면서 이를 흡수하는 모양새
- 소비량은 세계 전체에서 11억 8,628만 톤(1.0% 감소)으로 전월보다 131만 톤 상향 조정됐으나 전년도보다 소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국가별로 보면 우크라이나가 150만 톤, 유럽연합(EU)이 100만 톤 각각 상향 조정됐으며,
 - 최대 소비국인 중국은 2억 9,500만 톤으로 전월과 같은 수준으로 동결됨

세계 주요국의 옥수수 수급전망 (2022년 6월 10일, 미국농무부 공표)						
(단위 : 백만 톤)						
국 명	구분	2020/21년도	2021/22년도 (추계치)	2022/23 년도		
				(5월 예측)	(6월 예측)	전년대비(증감률)
미국	기수재고	48.76	31.36	36.57	37.71	20.2%
	생산량	358.45	383.94	397.30	367.30	▲4.3%
	수입량	0.62	0.64	0.64	0.64	0.0%
	소비량	306.54	315.99	309.01	309.13	▲2.2%
	수출량	69.92	62.23	60.96	60.96	▲2.0%
	기말재고	31.36	37.71	34.54	35.55	▲5.7%
아르헨티나	기수재고	3.62	1.18	1.49	1.49	26.3%
	생산량	52.00	53.00	55.00	55.00	3.8%
	수입량	0.01	0.01	0.01	0.01	0.0%
	소비량	13.50	13.70	14.00	14.00	2.2%
	수출량	40.94	39.00	41.00	41.00	5.1%
	기말재고	1.18	1.49	1.49	1.49	0.0%
브라질	기수재고	5.33	4.15	4.65	4.65	12.0%
	생산량	87.00	116.00	126.00	126.00	8.6%
	수입량	2.85	2.00	1.30	1.30	▲35.0%
	소비량	70.00	73.00	77.00	77.00	5.5%
	수출량	21.02	44.50	47.00	47.00	5.6%
	기말재고	4.15	4.65	7.95	7.95	71.0%
우크라이나	기수재고	1.48	0.83	6.77	6.77	8.2배
	생산량	30.30	42.13	19.50	25.00	▲40.7%
	수입량	0.02	0.02	0.00	0.00	-
	소비량	7.10	13.20	9.20	10.70	▲18.9%
	수출량	23.86	23.00	9.00	9.00	▲60.9%
	기말재고	0.83	6.77	8.07	12.07	78.3%
중국	기수재고	200.53	205.70	210.24	210.24	2.2%
	생산량	260.67	272.55	271.00	271.00	▲0.6%
	수입량	29.51	23.00	18.00	18.00	▲21.7
	소비량	285.00	291.00	295.00	295.00	1.4%
	수출량	0.00	0.02	0.02	0.02	0.0%
	기말재고	205.70	210.24	204.22	204.22	▲2.9%
세계 계	기수재고	307.47	293.25	309.39	310.92	6.0%
	생산량	1,129.00	1,216.07	1,180.72	1,185.81	▲2.5%
	수입량	185.34	179.45	176.84	176.68	▲1.5%
	소비량	1,143.22	1,198.39	1,184.97	1,186.28	▲1.0%
	수출량	182.87	196.73	182.70	182.67	▲7.1%
	기말재고	293.25	310.92	305.13	310.45	▲0.2%

자료 : USDA/WAOB「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주 : 각국의 곡물연도는, 세계, 미국; 9월~익년 8월/ 중국, 우크라이나; 10월 ~ 익년 9월/ 아르헨티나, 브라질; 3월~익년 2월.

- 🌐 이에 따라 기말 재고는 사전 예상을 뛰어넘는 3억 1,045만 톤(0.2% 감소)으로 전월 전망치보다 532만 톤 상
향 조정돼,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이 예상됨(표, '세계 주요국의 옥수수 수급전망' 참조)
- 🌐 2022/23년도 미국 옥수수 재고율 9%대 전망 : 미국 농무부 세계농업관측보드(USDA/WAOB)는 2022년 6
월 10일, 2022/23년도(9월~익년 8월) 미국의 옥수수 수급 전망을 갱신함
- 생산량은 144억 6,000만 부셀(3억 6,730만 톤(주1), 전년도 대비 4.3% 감소)로 전월 수준으로 동결돼 전년
도부터 다소 줄어든 것으로 전망됨
- (주1) 1부셀을 약 25.401킬로그램, 1에이커를 0.4047헥타르로 농축산업진흥기구가 환산
- 소비량은 121억 7,000만 부셀(3억 913만 톤, 2.2% 감소)로 전월보다 500만 부셀(13만 톤) 상향 조정됐지만
전년도 대비 조금 줄어든 것으로 전망
- 용도별로는 식품, 종자, 기타 공업용이 모두 상향 조정됨, 반면 이성화당(異性化糖)(주2)용은 글루코스와 덱스트로스 및
전분용 증가의 영향을 받아 감소가 전망되고 있음
- (주2) '이성화당'이란 우리가 자주 먹는 주스, 과자, 조미료, 절임반찬, 가공식품 등에 들어 있는 설탕으로, 1960년대 일
본에서 개발되어 옥수수 감자, 고구마 등에서 화학처리해 당을 추출한다.
- 수출량은 24억 부셀(6,096만 톤, 2.0% 감소)로 전월 수준으로 동결돼 전년도보다 소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
- 🌐 기말 재고는 21/22년도 수출량의 하향 조정에 따른 22/23년도 기수 재고의 상향 조정에 의해 14억 부셀
(3,555만 톤, 동 5.7% 감소)로 전월보다 4,000만 부셀(102만 톤) 상향 조정되었지만, 전년도를 약간 밑돌 것으
로 전망되고 있음
- 또 기말 재고율(총 소비량 대비 기말 재고량)은 9.6%(0.4%포인트 감소)로 여전히 10% 밑으로 떨어짐

자료 : 일본 농축산업진흥기구 (22.06.20.)



한우마당

전국한우협회 회원 소식지 「한우마당」은 매달 발행되는 월간지입니다.
 「한우마당」 대한민국 전체 한우 사육두수 약 70%에 달하는 협회 회원과
 전후방업계에 배포되고 있습니다.
 연간 15만부를 발행하고 있으며 양질의 정보는 물론, 축산관련 잡지 중
 가장 많은 구독부수로 높은 전파력과 막강한 영향력을 자랑합니다.

광고문의

- 1) 광고 문의 및 접수: 025251053@daum.net
 (본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 「월간 한우마당」 매체 소개 및 광고신청 안내 참고)
- 2) 광고규격: 188mm×257mm / 내부여백 7~10mm 필요
- 3) 광고금액: 홍보팀 문의 (장기계약 우대)
 * 「한우마당」 광고업체는 전국한우협회 홈페이지 홍보관 메뉴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주요 배부처 및 일정

- 1) 협회 대의원 및 임원 등 지도자, 전국 지회·지부, 일반 회원농가
- 2) 농림축산식품부 및 전국 각 지자체 축산과
- 3) 전국 수의대학 및 동물생명, 축산학과, 특성화 대학 등
- 4) 전국 농축협 및 관련 유관기관, 한우협동조합, 전문지 언론사
- 5) 사료 기자재 등 한우마당 광고업체

매월 20일

원고 및 광고시안 마감



전국한우협회



2022. 07
vol. 188

구독안내

「한우마당」은 협회 회원이면
 누구나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회원이 아닐 경우 전국한우협회 홍보팀으로
 문의주십시오.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6길 9,
 제2축산회관 2층 전국한우협회

☎ 02-525-1053, 내선 202 또는 218

🌐 전국한우협회 홈페이지
<https://www.ihanwoo.org>
 한우마당 뉴스 웹진
<http://www.ihanwoo.kr>

제 23권 제7호(통권 188호)

2022년 7월 15일 발행

<비매품>

발행인 김삼주

편집 김재광

광고 이기찬

제작 팜커뮤니케이션

발송 자산포스트

발행처 전국한우협회

주소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6길 9 2층

전화 02.525.1053 / 02.597.2377

팩스 02.525.1054

이메일 025251053@daum.net

인터넷 한우마당 www.ihanwoo.kr

한우협회 누리집 www.ihanwoo.org

등록번호 서초라 11499



전국한우협회